우리 문화

MAGAZINE

월간 우리문화 · 2002년 5월호(통권161호) · 등록번호: 마-02746(1984.7.12)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우 121-715) · 값 3,000원

2002 5

ISSN 1599-4236

제17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향토문화논문 · 향토문화자료 공모전

주최 : 전국문화원연합회
후원 :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국사편찬위원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취지

전국문화원연합회는 민족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향토문화의 체계적인 연구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전국 각지의 향토문화 자료를 발굴하여 새롭게 조명하고 향토사가의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기 위해 제17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향토문화논문 및 향토문화자료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공모요강

연구분야 : 지역의 역사, 민속 등 향토문화 전반

공모부문

가. 향토문화논문부문

나. 향토문화자료부문 1) 사료 2) 민속자료 3) 고고미술사 자료(문화유적) 등

※ 자료부분은 논문형식을 취하지 않은 단순 보고서도 무방함

※ 제출자의 응모부문 명시와 관계없이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원고매수 : 200자 원고지 100매 이상

응모기간 : 2002. 1. 1 ~ 9. 30(마감일 소인유효)

발표 및 시상식 : 2002년 10월경 개별통보 및 본회 홈페이지(www.kccf.or.kr) 발표, 11월경 시상식

응모자격

가. 향토문화논문부문 : 일반인, 향토사가, 대학생 및 대학원생(석사학위자 및 박사학위과정자 포함), 문화원(시 · 도지회 포함) 임직원 및 회원, 문화원소속 향토사가

나. 향토문화자료부문 : 문화원(시 · 도지회 포함) 임직원 및 회원, 문화원 소속 향토사가

※ 박사학위취득자(명예박사포함)및 대학(교)에서 전임강사이상(겸임, 객원, 외래교수등 포함)은 응모할 수 없으며, 기 대상수상자는 수상 연도 이듬해부터 3년 동안 응모할 수 없음. 위 규정에 저촉될 경우 응모 및 수상자격 박탈 및 상금 회수

심사기준

가. 향토문화논문 부문 : 현장조사 및 자료발굴의 성실성, 주제선정 및 소화능력, 체제 및 논리, 기존연구동향 및 성과에 대한 점검여부, 향토문화 기여도 및 성과

나. 향토문화자료 부문 : 발굴 및 새자료, 사료(자료)의 해석 및 의미부여, 체제 및 논리, 향토문화 연구기여도 및 성과

시상내역

가. 향토문화논문부문 : 대상1편(국무총리상) 300만원 / 최우수상1편(문화관광부장관상) 200만원 / 우수상2편(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 · 국사편찬위원장상) 각150만원 / 장려상4편(전국문화원연합회장상) 각100만원

나. 향토문화사료부문 : 최우수상1편(문화관광부장관상) 200만원 / 우수상2편(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 · 국사편찬위원장상) 각100만원 / 장려상3편(전국문화원연합회장상) 각50만원

제출서류

- 응모작 : 한글 화일로 작성한 디스켓 및 출력물 제출
- 추천서 : 해당지역 문화원장(시 · 도지회장 포함)의 추천서
- 이력서 : 응모자의 학 ·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

유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응모작은 접수하지 않으며, 입상되더라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낙선으로 처리함

- 국내외에 이미 단행본으로 발간했거나 기타 간행물에 게재했을 경우
- 다른 사람의 글을 모방했거나, 허위사실을 작성한 경우, 이력서에 학위를 허위기재 했을 경우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e-mail 접수
- 주소 :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국문화원연합회
- 전화 : (02)704-2311 팩스 : (02)704-2377
- 문의 : 전명찬 문화정보과장 / mcchun@kccf.or.kr

우리 문화

2002 · 5

2002년 5월호(제16권 3호 통권 161호)
등록 / 마 02746(1984. 7. 12)
발행처 / 전국문화원연합회
주소 / (우:121-7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화 / 02-704-2311~3
FAX / 02-704-2377
인터넷 / www.kccf.or.k
발행겸 편집인 / 李 秀 洪
사무총장 / 安 辰 洙
기획편집 / 컬처플러스(02-2264-9028)
인쇄제작 / 크리홍보(주)(02-737-5377)
발행일 / 2002년 5월 1일
정가 / 3,000원

※「우리문화」는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적한 대지위를 날아가는
새들의 지저귐과 차박차박 물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표지 일러스트 정진웅
프리랜스 일러스트레이터.
한국 출판미술협회 운영위원.
국제 어린이 도서협의회 회원.
1988년부터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달 의 목 차

17 ◆ 문화마당 · 美 사라넬슨 교수

24 ◆ 우리 문화 다시보기 · '탈'

38 ◆ 특집 · 금강산

54 ◆ 대중문화 · 집으로…

2 ◆ **날줄씨줄** · 21세기 문화예술과 국가경쟁력 — 이진배
2 ◆ **특별기고** · 아리랑의 세계화, 그 실상과 전망 — 김연갑
8 ◆ **우리문화논단** · 약탈문화재 반환에 관하여 — 이광표
11 ◆ **국제학술심포지엄** ·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공원 조성의 제문제"에 대한 小考 — 고경재
14 ◆ **문화인물** · 박두성(4월) · 박수근(5월) — 편집부
16 ◆ **시한편** · 그리움 — 안정자
17 ◆ **문화마당** · 양양 '신석기 유적' 소재로 소설 쓴 美 사라넬슨 교수 강원도 홍보대사로 추천 — 편집부
23 ◆ **우리 문화속의 성과 로맨스①** · 순결을 위해 아들 죽인 裵氏女 — 강민철
24 ◆ **우리 문화 다시보기** · '탈' — 강민철
30 ◆ **특집** · 금강산 기행 — 편집부
48 ◆ **2002지역문화행정** ·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대토론회 — 편집부
50 ◆ **축제** · 지역 멸치 축제 5년키워 문화관광부 축제로… — 편집부
52 ◆ **세시풍속** · 사월 초파일 연등회 — 편집부
54 ◆ **대중문화** · 외할머니, 당신이 그립습니다 — 강민철
56 ◆ **생활문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가정의 달' 5월에 생각해 보는 부모와 자녀 — 편집부
60 ◆ **전국문화원뉴스** · 제3차 전국문화원 간사 교육 등 — 편집부
67 ◆ **오픈북** · 소반(小盤) 이야기 — 편집부
70 ◆ **신간안내** · 충주댐 수몰마을사 등 — 편집부
78 ◆ **문화원 네트워크** · 전국에 214개 문화원이 있습니다 — 편집부

21세기 문화예술과 국가경쟁력

이 진 배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사무총장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21세기를 문화가 중심이 되는 세기로 예측했다. 이제 21세기로 접어들어서 이 예측은 현실의 상황으로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21세기의 문화예술은 왜 이와 같이 논의의 중심에 서 있는가, 다름 아닌 문화예술의 시대적 위상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의 시대적 위상은 문화예술의 내재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적 외부요소들로 특징 지워진다.

기원전 도시국가(BC5 ~ BC1)에서 지식교양은 고급스런 정신적 가치이었다. 손을 더럽혀서 작업도구와 노동을 사용하는 조형예술은 단순한 손재주로 천시되었다. 알렉산더대왕(BC4)에 이르러서는 도시국가의 귀족주의가 소멸하고 경제능력과 실적을 중시하는 합리주의가 대두하고, 인류역사상 최초의 국제 혼합문화가 탄생했는데, 예술적인 면에서는 대왕을 위한 선전활동이 필요한 결과로 영웅숭배와 개인숭배에 따른 예술양식이 발달하고 조형예술가의 지위가 향상되었다.

중세 그리스도교(AD5 ~ AD16)는 예술의 정신주의에 입각해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반영한 로마네스크 양식이나 고딕양식이 발달했다.

16세기 근세예술을 태동시킨 르네상스에 이르러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기치아래 인간성의 회복과 인간의 재발견을 주창한 예술적 인문주의가 대두했고, 이는 르네상스 예술양식의 창출에 그치지 아니하고 문명사적 사회변혁의 전기가 되는 종교개혁의 촉발과 계몽주의 철학의 모태를 마련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성립하는 18C ~ 19C로부터 20C까지 고전주의로부터 낭만주의, 사실주의, 아방가르드에 이르는 실로 숨가쁠 정도의 예술적 탐구와 돌출적 예술 실험의 역사를 경험했다.

자본주의 성립기의 낭만주의(Romanticism)는 최초의 근대예술양식 운동으로서 주관적인 개성과 독창성을 앞세우고 천재예술가의 개념을 강조함으로써 '예술을 위한 예술'에 경도한 20C 전반기 현대예술의 계보를 포괄하는 모더니즘 예술조류를 형성했다. 20C 후반 전위예술의 해체정신은 모더니즘에 부단히 도전했고 대중사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대중예술 주제와 기법을 수용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에로의 이행을 촉진했다. 고대로부터 모더니즘 시기까지 문화예술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때로는 형이상학적이며, 이데오르기적이며, 때로는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정신적 가치의 추구로 요약할 수 있다. 모더니즘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예술사조가 풍미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과 함께 대량생산

과 매스미디어로 상징되는 대중문화의 확산은 문화예술의 물질적 가치와의 타협으로 귀결되었다. 일방적 문화패권주의와 함께 상업주의로 무장한 문화예술시장의 세계화라는 현상이 처음에는 군사적 확장의 등에 업혀서, 그 다음에는 국제 정치적, 국제 경제적 역학 구도 속에서 진행되어왔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서양문화의 큰 물결에 밀려서 서양화, 미국화의 길을 걸어왔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미 서양 문화예술사는 현재 우리 문화예술활동의 떼어놓을 수 없는 한 부분으로 되어있고, 우리만이 전승해온 전통문화예술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21세기의 출발점에서 21세기 문화예술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문화예술에 관한한 수동적 입장에서 서양문화를 모방한 측면이 강했고, 능동적 입장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재창조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했음을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다.

21세기는 정보화 사회의 출현과 인터넷통신혁명, 디지털산업으로 특징 지워지며, 이와 같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범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확산과 성숙이 진행되고 있고, 다니엘 벨이 말한 지식사회(Knowledge society)로의 이행이 전격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지식사회의 대두는 노동가치설을 지식가치설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량생산의 규격화된 제품보다 인간적이며 심미적인, 그리고 문화적으로 세련된 감각 · 감성의 high touch 제품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오랜 역사에 걸친 인류문화예술의 정신주의와 물질주의가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만나고 있는 것이다. 즉 예술의 상품화, 상품의 예술화가 21세기 문화예술의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르네상스의 인간성회복이라는 인문주의가 예술적 귀족적이었는데 비교해 볼 때, 21세기의 이 새로운 문화예술현상은 시민적 인문주의에 기초한 인간중심주의의 회복이라는 문명사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맥락에서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이야기되고 있다. 곧 문화경쟁력이 경제경쟁력으로서 경제와 문화의 경계가 허물어져 가고 있다. 대중문화뿐 아니라 고급문화도 상품화되고 있으며, 문화콘텐츠, 영화, 음반, 출판, 게임, 방송영상, 애니메이션 등의 문화산업이 욱일승천의 기세로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지식정보산업, 문화산업이 고전주의로 부터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는 인류 문화예술사와는 관계없이 나타난 돌연변이 신종이 아니라 그 문화예술사에 깊게 뿌리를 박고 있는 인류 문화예술의 축적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이 점을 중시해야 한다. 그 문화예술의 축적이 두터울수록 또 그 내용이 보다 독창적일수록 무한한 창의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디지털은 이 창의력을 물길어 올리는 펌프의 역할을 한다. 디지털 문명은 쌍방향적이고, 개방적이며, 다양성과 다원성을 포용한다. 누가 먼저 이와 같은 변화를 능동적으로 소화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경쟁력은 차별화될 것이다. 여기서 다음 몇 가지 점을 특히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20세기 이전과 21세기를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이다.

문화예술사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그 모두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스 고전이나 중국의 설화도 우리가 먼저 그 가치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것이 되며 우리의 경쟁력이 된다.

둘째, 서양문화예술과 전통문화예술을 동등하게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같은 작업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화 도전의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문화적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문화의 폐쇄성과 배타성을 완전히 청산하고 능동적인 국제문화예술교류를 통한 적극적 개방을 추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순수예술이 문화산업의 원천임을 잊지 않을 때 정책 우선 순위와 투자전략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넷째, 이상과 같은 논의의 중심에 서서 인류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문화예술의 창의력과 수월성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우수한 인력양성이 시급하며, 대대적이며 본격적인 고전 국역 사업, 민족문화예술 박물관, 자연사박물관, 과학기술 및 우주박물관과 같은 문화예술 인프라의 확충을 한시라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 문

아리랑의 세계화, 그 실상과 전망

김 연 갑 | (사)한민족아리랑연합회 이사

세계화(世界化), 현대화란 말의 확대된 이 말은 특정 또는 고유한 어떤 것을 내국이 아닌 외국에 알려 국제성을 띠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으로 말한다면 아마도 우리 것의 세계화에 있어 아리랑만큼 구체성과 현재성을 갖고 있는 것도 드물 것이다. 이 말의 뜻은 어느 정도는 이미 세계화 되어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는 위상과 가치에서 고유성을, 해외에서는 한국의 상징(symbol)으로서의 국제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아리랑의 세계화는 단순하게 브랜드 파워를 발휘해 경제적인 경쟁력을 얻는 것에서만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국경 개념이 희박한 오늘 날에는 '문화영토' 개념이 중요하게 대두되어 어쩌면 가장 상징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인 아리랑을 〈민족의 노래〉로 공인하는 146개국 동포사회를 '아리랑영토'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아리랑의 세계화는 매우 바람직한 아리랑의 미래상인 동시에 우리의 책무인 것이다.

어떻든 아리랑의 세계화는 오래 전부터 역사적인 전파 경로를 통해 진행되어 온 현상이면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아리랑은 민요 그 이상의 노래로서 국내외로부터 불어오는 격랑을 헤쳐온 현대사의 한 축도(縮圖)이기도 하다.

외교관과 선교사에 의한 전파

역설적이지만 아름다운 노래에는 그 만큼의 비극이 배어있다고 한다. 아리랑은 구한말 살길을 찾아 조국을 떠나 중국 · 러시아 · 일본 · 미국으로 떠나간 동포들이 그만큼의 슬픔을 담아 부른 탓에서도 그럴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정황은 당시 위의 나라에 가 살던 이들의 처지에서 알 수가 있는데, 하다못해 하와이 사탕수수밭 노동자로 가 살던 이들은 농장주에게 살해당해 장례식을 치르는 현장에서 장송곡으로 아리랑을 부르기도 했고, 노령지역에서는 조국의 멸망을 보고 혁명을 위해 아리랑을 부른다는 오인으로 탄압을 받아 몰래 숨어 불러야만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구한말 우리가 원주민들에게 전한 아리랑은 분명 '망국의 슬픈 노래' 였다.

이러한 정황은 당시 국내에 와있던 외교관이나 선교사들의 기록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난다. 주지하다시피 구한말 이 땅에 와있던 외교관이나 선교사들은 직무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본국에 보고서를 내거나 여행기 같은 것을 내게 된다. 바로 이러한 경로를 통해 아리랑을 기록, 전파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런 류에 속하는 대표적인 기록을 들면 다음

과 같이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자료는 1883년 일본인 외교관 노부오 준뻬이(信夫淳平)가 조선 인천의 〈인천이사청〉 발령을 받고 인천항에 도착해 들었다는 아리랑을 기록한 《仁川港25年史》이다. 이 책에는 "폐허 같은 갈대 숲 사이로 슬픈 노래가 들려오는데 내게는 그것은 망국의 비가로 들렸다. 그 노래가 아리랑이다."라고 기록한 것이다. 이 기록은 그의 대표적인 저술인 1901년에 낸 《韓半島》란 책 속에 기생들이 부르는 노래로 소개됐다. 이 《韓半島》는 한국에 대한 일본 내에서의 관심이 고조되자 마치 교과서 같은 역할을 했다.

두 번째 자료는 미국인 HB 헐버트가 장로교 선교사로 들어와 고종의 정치 고문역을 하던 당시인 1896년 선교잡지 《Korea Repository》에 우리나라 최초의 아리랑 악보를 채보, 발표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아리랑의 역사와 전승 범위를 언급하고 "조선인들은 서정적이며 교훈적이고 서사적이며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 아리랑은 즉흥곡의 명수인 조선인에 의해 수많은 즉흥곡으로 대치되는 노래이다. 그러나 그 후렴은 변치안고 불려진다."라고 하여 음악적 구조와 개인적인 감상 까지를 피력해 놓았다. 이 설명 역시 아리랑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은 다시 자신의 대표적인 저서 《PASSING OF KOREA》에 미국의 민요 〈양키 두들〉과의 비교로 확대, 수록했다. 이어 이 악보와 설명은 1897년 영국의 유명한 여행가 L · B Bishop의 《Korea and Her Neighbors》와 1908년 알렌의 《THINGS KOREA》에 재 수록되었다. 역시 이 책들도 당시 여건상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미국과 영국의 많은 선교사들에게 널리 읽혔다.

결국 이상과 같은 아리랑에 대한 기록들은 당시 일본과 미국에서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이들에게 아리랑을 전파한 구체적인 예가 된다. 정치적인 입장에서 '망국의 비가' 로, 음악적인 측면에서 '즉흥곡' 으로, 규정해 알린 것이다. 아리랑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경로와 성격으로 해방 전까지 해외에 전파된 것이다.

한국전쟁, 참전 군인들에 의한 전파

해방 후 해외와의 접촉과 교류는 단연 미군의 진주와 주둔 그리고 한국전쟁에서의 19개국 유엔군의 참전이 절대적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혈기왕성한 청년들의 일시적인 교류와 위문공연 등의 행사가 빈번해 그 교류의 폭은 어떠한 경우보다도 폭과 규모가 크다. 그런 만큼 그 기간에 우리 문화의 하나로 아리랑도 널리 전파되는 계기였던 것이다.

이번에는 한국전에 참전했거나 전시위문 공연으로 방한한 인연으로 아리랑을 해외에 전파, 확산 시킨 인물과 작품의 사례를 들어 보기로 한다.

이 경우는 미국과 관련해 두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아리랑을 재즈화 한 것과 영어 버전으로 부른 것이다. 먼저 재즈화한 작품은 미국의 유명한 재즈 뮤지션 오스카 페티포드(Oscar Pettiford)의 〈AH DEE DONG BLUES〉이다. 오스카는 1951년 초 일본의 오끼나와 기지에서 위문공연을 마치고 한국 공연에 와있던 다른 연예인들과 합류, 귀국을 위해 인천에 기착해 잠시 머물게 되었을 때 아리랑과 인연을 맺은 것이다. 그가 인천에 체류한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이때 그는 통역병의 안내를 받아 야전 화장실에서 일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일보는 중에 문밖에 서있던 통역병이 휘파람으로 부르는 노래를 듣게 되었다. 그런데 그 휘파람 소리에서 순간적인 감흥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나온 그는 통역병에게 그 노래가 어떤 것이냐고 물었다. 그리고 귀국하여 그 기억을 되살려 작품을 쓰고 앨범으로 발표했다. 그는 그 통역병이 "아-리-랑"이라고 한 것을 "아 디 동"으로 듣고 그대로 표기를 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작품이 앨범 〈the young Rebel〉 속의 〈AH DEE DONG BLUES〉이다. 피아노 · 드럼 · 첼로 · 그리고 그의 전공 베이스, 이렇게 네 가지 악기에 의해 짜여진 고전적인 재즈 작품으로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다. 이 작품은 그의 재즈계에서의 명성만큼 50,60년대 미주지역 재즈계에서 많이 연주됐다.

영어 버전 아리랑은 미국인 가수 페터 세르게이(Peter Seeger)가 부른 〈ARIRANG〉이다. 노래를 부른 페터는 1951년 경기도 포천지역에서 약 9개월 정도 보병으로 참전했던 영국계 미국 가수로 복무를 마지고 귀국해 음반화 한 것이다. 이외에도 zhffhaqldk 레코드사에 의해 싱글로 발매한 것이다.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본조아리랑을 만돌린 반주에 의해 영어로 부른 것인데 가사 역시 우리가 널리 아는 3절을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이 음반에는 노래를 부르기 전에 페터가 아리랑과 관련해 멘트를 했다. 그 내용은 오늘의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하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인이 부르는 노래에 아리랑이 있다. 지금 이 노래는 남한과 북한에서 널리 불리고 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하고 있지만 상징적으로는 분단국이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아리랑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지금은 전쟁을 하는 적대관계에 있지만 아리랑이란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으니 서로 다른 나라가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전쟁 중이었던 시기에, 외국군이었지만 아리랑의 상징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가수라는 직업의식에서 감지했겠지만 너무나 적확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프랑스 폴모리와 북한 최성환의 아리랑

돌이켜 보면 앞에서 살핀 사례들은 일정부분 부정적인 경로와 의미로 전파된 것들이다. 말하면 아리랑이 해석되고 편곡되는데 우리의 순기능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바로 이같은 우리의 입장이 전환된 것이 1970년대에 들어서서 이다. 이는 세계화에 대한 뒤 늦은 자각인 셈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두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하나는 1976년 편곡, 음반화 되어 세계적인 작품이 된 프랑스 폴 모리아의 〈아리랑〉이다. 1975년 12월 첫 방한 때 아리랑을 접하고 두 번째 방한과 함께 발표, 우리를 놀라게 한 작품이다. '편곡의 마이더스'로 세계적인 인물인 만큼 아리랑 역시 그럴 것이다라는 기대정도는 했으나 결과는 너무나 놀라웠던 것이다. '경쾌한 현대조의 8박자와 유럽 스타일의 전통적인 기능화성 결합'이 폴 모리아의 특징인데 바로 〈아리랑〉이 딱히 그대로 적용된 작품이었다. 반응은 세계적이었다. 그런데 이 작품에는 숨겨진 사연이 하나 있다. 그것은 1976년 이 음반이 필립스 레코드사에서 첫 발매되었을 때는 곡목이 〈이스턴 러브 송〉이었다는 것인데 이미 아리랑을 알고있던 핼 와튼이란 인사가 한 교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 교포는 다시 레코드사와 폴 모리아에

게 〈아리랑〉으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고유 명칭으로 바로 잡게 된 것이다. 만일 처음에 〈아리랑〉으로 바로 잡지 않았다면 이 곡은 한국 고유의 민요가 아니라 마치 국적 없는 곡이거나 또 아니면 폴 모리아가 작곡한 작품으로 고착될 뻔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편곡자와 악단을 초청해 계기를 만들고, 곡목을 바로잡아 대표적인 민요 아리랑의 아름다운 선율을 우리 것으로 되찾은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아주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작품이다. 그것은 바로 1976년 북한의 최성환이 작곡한 〈관현악곡아리랑〉이다. 북한의 작품이지만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이다. 왜냐하면 1970년대 말 당시 중앙정보부가 입수, 검토한 예에서부터 2000년 6·15정상 회담의 공식 의전(儀典)음악으로 연주되고부터 국내에서 자주연주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나 동구권 쪽의 나라에서도 잘 이미 잘 알려져 있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악기 개량과 배합연주의 성가를 강조하며 '인민들의 비위와 정서를' 위해 재창작했다고 밝혔다. 어쩌면 이러한 소박한 목적이 오히려 작품성과 고유성을 인정받아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장르 확산과 능동적인 세계화 주도

주지하다시피 아리랑은 열린 장르이다. 1926년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이 개봉되고 이것이 공전의 대 유행을 하자 이를 주제로 한 수많은 신민요와 유행가가 탄생됐다. 그리고 이를 이어 박승희의 연극 〈아리랑 고개〉로, 연쇄극 〈아리랑〉으로, 최승희의 춤 〈아리랑 고개〉로 무대공연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아리랑 그 후 이야기〉와 〈제3편 아리랑〉까지 리메이크되어 온통 아리랑 세상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아리랑의 세계화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다양한 장르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런데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음악에 한정된 것이 사실이다. 거기에다 음악적인 면에서도 정선·진도·밀양·인제·울릉도·서도아리랑 같은 것은 전혀 작품화 된 바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제는 아리랑의 상징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리랑의 장르적 다양성과 음악적 다양성을 알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아리랑의 진정한 세계화를 위해 외국인에게 알릴 기회를 맞게 되었다. 그것은 세계 월드컵 경기의 활용이다. 약 40일간의 이 경기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빅 이벤트다. 이때 우리는 응원가로 '아리랑 파도' 외에 4종, 전야제에 2002명의 아리랑 대합창과 조용필 작곡의 가요 '꿈 아리랑'을 조수미와 함께 부르고, 개막식에서는 세계적인 드럼 주자들이 참여하는 '아리랑 드럼훼스티벌'이 있게 된다. 의외로 지난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때 보다 아리랑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는 비록 아리랑의 대중성과 형식을 이용, 소재화 한 것이지만 세계에 알리는 데에는 크게 일조할 것이다.

아리랑의 진정한 세계화, 이는 이제 단순한 국가 이미지 브랜드화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해외 145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동포사회 모두를 〈아리랑문화 영토〉로 아울러 세계에서 가장 넓은 문화 영토국으로 발돋움 하게하는 계기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적극적인 자세가 더욱 중시되는 것은 물론이다. 문

약탈문화재 반환에 관하여

이 광 표 |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

1

얼마전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일본의 한국 문화재 약탈과 반환 문제'를 보도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일본이 19세기말부터 일제강점기인 1945년까지 한반도에서 10만여점의 문화재를 약탈해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한국 문화재 약탈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무자비한 인류 문화유산 파괴였다는 점, 2차대전 종전 직후 일본 점령군 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문화재 반환에 반대했다는 점, 한국이 약탈 문화재 반환에 무관심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물론 일본의 한국 문화재 약탈과 약탈문화재 반환을 둘러싼 논란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타임』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화제와 함께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기사였다.

정부의 해외 현지 조사 결과, 해외에 유출 혹은 약탈된 문화재는 20개국에 7만4000여점으로 추정된다.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도 포함돼 있다. 이 중 일본에 있는 것이 약 3만4000여점.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타임'이 보도한 일본이 약탈해간 문화재는 10만여점이라는 수치. 이 수치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아니라 10만여점에 달할 것이라는 세간의 추정을 인용 보도한 것에 불과하다.

2

우리는 19세기말부터 일제침략기를 거치면서 소중한 문화재를 외국에게 무수히 약탈당했다. 최근 들어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들 약탈 문화재를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었으면 생각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반환 움직임은 지지부진하다.

사실 반환에 있어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많다. 우선 우리 것을 약탈해간 국가가 반환하지 않겠다고 배짱을 부리면,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프랑스가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의 경우, 1993년부터 반환 협상이 전개되고 있지만 프랑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 영구 대여니 상호 대여니 이런 저런 협

상 방식이 동원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흥정의 대상으로 삼을지언정 실제로는 돌려주지 않겠다는 것이 프랑스의 속셈이다. 이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돌려주겠다는 의지가 없다. 물론 일본과의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잘못도 크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때 경제개발 자금을 지원받는데 급급해 문화재 반환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극히 일부인 1300점만 돌려받는 것으로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따라서 지금 다시 정부간 협상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일본은 "이미 끝난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약탈 문화재 반환의 난항은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타임'은 '유럽에서는 나치 약탈 문화재 반환에 관한 논의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에선 반환에 관한 논의가 별로 없다'고 꼬집었지만 유럽에서도 실제 협상의 성과는 극히 미미하다.

유럽에서의 문화재 반환 협상은 주로 독일과 2차대전 중 독일이 점령했던 국가들(프랑스 등) 사이, 독일과 종전 후 독일에 주둔했던 연합국(러시아 등) 사이에 이뤄지고 있다. 전자는 독일이 약탈한 경우고, 후자는 독일이 약탈당한 경우다. 독일만 보아도, 약탈당한 것은 돌려받고 싶지만 약탈한 것은 돌려주고 싶지 않을 게다. 그러니 복잡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독일이 러시아가 약탈해간 문화재(슐리만이 발굴한 트로이 유물)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자 주변국에선 약탈국 독일이 문화재 반환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약탈 문화재를 다수 소장하고 있는 프랑스도 안달이 났다. 루브르박물관은 "슐리만 발굴 문화재가 독일로 반환될 경우, 어떤 혼란이 야기될지 모른다"며 자신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럴진대 프랑스가 외규장각 도서를 우리에게 돌려주겠는가. 돌려주지 않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3

이제 얘기의 초점을 모아보자. 그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약탈해간 국가에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그냥 내버려두어야 할 것인가. 돌려받아야 한다면 어떤 협상을 통해 돌려받을 것인가.

앞의 지적에서도 드러났듯 약탈국이 돌려주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이를 강제할만한 국제법도 미미하다. 유네스코가 약탈문화재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놓고 있지만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럼, 그냥 포기하고 말란 말인가. 물론 그것은 아니다.

대신 우리의 반환 협상 태도를 돌아보아야 함을 지적하고 싶다.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을 보자. 현재 협상대표단은 지난해 '상호대여(맞교환)' 형식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 중인 외규장각 도서 중 어람용 의궤와 우리의 비어람용 복본(複本) 의궤를 상호 대여하기로 한 것이다. 즉 우리 것을 주고 외규장각 도서를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협상방식은 굴욕적이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유괴된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아이를 내주는 꼴이다. 프랑스의 문화재 약탈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셈일 뿐 아니라 다른 해외유출 문화재 환수에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차라리 돌려받지 않는 것만 못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설픈 협상보다는 차라리 협상을 결렬시키거나, 당분간 시간을 갖고 추후 협상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을 '어쨌든 돌려받아야 한다'는 명분에 집착했다. 돌려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보니 그것을 돌려받기 위해 다른 희생을 치르는 것은 무방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됐다.

약탈 문화재 반환은 거시적 장기적으로 보아야한다. 지금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지금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후대에 넘겨도 된다. 여기엔 국민들이 책임도 크다. 당장 돌려받아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어나가선 곤란하다. 그렇다보면 무리수가 나오기 마련이다.

4

대신 민간 차원의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 정부간 협상은 지나치게 국민 감정을 의식하고 국가간의 명분에 집착하게 만들어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러나 민간 차원의 반환 협상은 그렇지 않다. 아무래도 부담이 없다. 물론 상대국의 입장을 이해해주자는 것은 아니다. 정부간 협상의 비효율성을 냉정하게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재전문가들은 "정부간 협상은 명분은 좋지만 현실적인 효과가 없다. 반면 민간 협상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실제로도 그렇다. 일본 약탈 문화재 반환의 경우, 정부간 협상을 통한 반환은 1965년 한일협정 당시의 1300여점 반환 이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1990년대 들어 조금씩 반환이 이뤄졌지만 그것 모두 민간차원의 반환이었다. 그렇게 96년 경복궁 자선당 건물 유구가 돌아왔고 데라우치 총독이 약탈해간 데라우치문고를 일본의 야마구치여대가 경남대에 기증함으로써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99년엔 개인 소장가가 고려 동종을, 2001년엔 역시 개인소장가가 문인석 65점을 한국에 기증하는 등 민간 기증으로 모두 1900여점의 문화재가 반환됐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 민간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정부간 협상의 유리한 토대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지금 문화재를 돌려받자고 외쳐야만 우리 문화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서두르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함께 약탈당한 우리 문화재를 우리 전통문화 해외 홍보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 문화재들을 현지에 전시하고 도록 등을 발간해 홍보 효과를 높일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약탈문화재 반환에 관해, 한 면만 보지 말고 두루두루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넉넉하게 생각하자고 말하고 싶다. 문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공원 조성의 제문제' 에 대한 小考

고 경 재 양양문화원장

I. 양양문화원의 '오산리선사유적공원조성' 사업 추진경위

양양문화원에서는 1981년 오산리 신석기유적지를 서울대 박물관(관장 임효재)팀의 초기발굴 조사 때부터 양양군 일원의 선사유물 수습자료 및 지표조사지역정보제공과 현장보존 등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1990년 발굴조사결과 우리 나라 최고의 신석기 유적지로 판명됨으로써 국가사적지 지정과 유적공원 조성이란 원대한 계획에 의해 사계 국내외 학자들의 학술적인 고증을 통한 신석기유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키로 하고 우선 동년 발굴조사팀장인 임효재 교수초청학술강연회를 개최했다. 그리하여 동년 5월 31일자로 강원도 기념물 제62호로 지정됐다.

이후 1992년부터 5회에 걸쳐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그사이 1996년에는 전국 최초로 민간특별보조금 1억원의 국고 지원을 양양문화원에서 받아 양양선사문화 전시실을 개관하고 1997년 4월 18일 드디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94호로 격상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어 1998년부터 오산리 선사유적정비 기본계획을 문화재청에 검토 의

△ 개회사를 하는 고경재 양양문화원장.

△ 앞줄 외쪽부터 최정필 교수, 사라넬슨 교수, 오인택 양양군수, 고경재 양양문화원장, 최복규 교수, 백홍기 교수.

뢰해 2001년 6.25유적전시관 실시설계승인을 받아 동년 11월 21일 유적전시관을 착공하게 됐다.

2. 양양오산리 신석기 유적의 지리적 환경과 발굴 성과

襄陽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등뼈를 이루고 있는 태백산맥의 중등부 동해안에 연접해 바다와 명산을 끼고 있는 지명 그대로 '해 돋는 신선한 아침의 고장'이다. 그리고 영동지방에서는 가장 큰 젖줄인 남대천이 보기 드물게 넓은 삼각주 충적평야를 이루고 하구일대에는 하천 해안 호두 삼림 등과 기후 또한 온화해 이 유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선사유적이 밀집된 선사문화의 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신석기 시대 최고의 유적으로 유명하다.

이 남대천 하구에서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약2㎞ 떨어진 지점에 창세개벽 때에 6별이 이 봉을 옮겨 놓았다는 오산봉이 바다에 돌출해 해문을 지키고 있듯이 우뚝 서 있다. 바로 이곳에 자리한 마을이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이다.

이 마을 서쪽 산등성이 너머로 동해를 업고 쌍호(雙湖)라는 호수를 품에 안은 모래 언덕에 오산리 신석기시대 유적이 있다. 오산리 신석기인들이 자리잡았던 본래의 땅바닥은 약4.5m의 모래톱 밑에 묻혀있는데 서울대 박물관의 임효재 교수팀이 지난 1981~85년까지 발굴한 이 유적에서는 우리민족의 초기단계를 규명할 수 있는 열 여섯채의 둥근 움집터와 약 2,500여점의 중요 유물들이 출토됐다.

여기서 채집한 숯 덩어리를 방사성탄소 연대측정법에 의해 연대를 측정한 결과 BC 6000~5000년 사이로 나와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최고(最古)의 유적으로 판명됐다. 더구나 이 유적을 중심으로 구석기시대 청동기 시대 원삼국시대의 유물들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대 변화에 따른 우리역사의 변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3. 국제학술 심포지엄의 취지

이번 본원에서 개최하는 '오산리 선사유적 공원조성의 제문제'라는 국제학술 심포지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본 '국제학술대회'의 화두를 깊이 새기는 뜻에서 송나라의 학자였던 소옹선생의 시 한구절을 소개하고자 한다.

【古人은 形似獸나 心有大聖德하고 今人은 表似人이나 獸心을 安可側이리오?】
옛 선사인은 형체는 짐승과 같았으나 마음은 위대한 성인의 덕망이 있었고 지금 현대인은 겉모양은 사람같으나 짐승의 마음이 있는 것을 어찌 헤아릴 수 있으랴?

나는 이 글귀속에서 선사문화속에 내재되어 있는 정신적 가치를 음미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선사문화의 세계화, 대중화에 보탬이 되고 우리가 실감있게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조성방안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고장이 아직도 '선사문화의 보고요', '신석기시대 문화의 요람'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지나간 시간이 아득하게 긴 탓인지 그 풍요성과 의미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선 우리선인들이 오랜 세월동안 살아오면서 남긴 흔적들을 통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보완과 재구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잃어버린 역사의 고리'와 '잃어버린 문화의 편린'도 찾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4. 오산리 신석기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신석기인들은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토기를 만들었다. 오산리 신석기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더구나 그들은 제작기술상 이른 단계의 납작밑 토기와 덧무늬를 두른 융기문토기를 구워냈다. 특히 재기 넘치는 손재주를 부려 사람얼굴을 진흙으로 빚어 예술품을 구워낸 것이다. 진흙 덩어리를 두께 1.5㎝, 깊이 5.7㎝, 너비 4.4㎝ 크기로 납작하게 얼굴모양을 빚은 다음 손가락으로 깊게 눌러 두눈과 입을 표현한 것이다.

이 얼굴 테라코타는 풍요를 기원하는 뜻을 담은 신상이자

예술품으로 당시 신석기인의 정신적 측면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하고 있다.

오산리 신석기인들은 고기잡이에도 일가견이 있어 야무진 돌 혈암을 다듬고 거기에다 뼈 바늘을 끼워 고기를 낚는 결합식 낚시를 일상의 고기잡이에 썼던 것이다. 그리고 움집자리에서는 도토리가 무더기로 나왔다. 도토리를 그냥 먹지 않고 가루를 내어 가공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이것은 유적에서 나온 갈돌과 갈판이 이를 입증한다. 그러고 보면 둥근 움막집자리 한가운데에는 화덕자리가 있어 한 움집에 살 수 있는 가족은 다섯식구 정도로 화덕에 둘러앉아 물고기나 짐승의 바비큐를 즐겼을 것이다.

또한 오산리 유적에서는 흑요석 날돌인 럭비볼 절반 만한 흑요석 덩어리가 나왔다. 일본 교토대 원자력 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흑요석의 원산지는 백두산이었다. 또한 오산리 사람들이 만든 토기와 흡사한 덧무늬토기가 일본 쓰시마섬의 고시다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오산리 신석기인들은 행동반경이 꽤나 넓은 마당발이었을 것이다.

△ 세계적인 고고학자들을 초청해 현장을 답사하고 있는 장면. 좌로부터 고경재 양양문화원장, 추연식 고려대 교수, 임효재 서울대 교수, (한사람 건너) 마이클 조킴 교수, 짐 캐시디 박사(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대)

5. 오산리 신석기인들의 영혼이 새가 되어 세계를 여행하다

영혼은 육체가 아니면서 육체에 깃들어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며 죽어서도 육체를 떠나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정신적 실체라고 사전적 의미는 정의하고 있다. 옛부터 새는 하늘과 땅사이를 자유롭게 날아 오르내리는 영물로 여겨 영조라 했다. 또한 새에 대한 상징적 의미는 동서양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새는 세계적으로 영혼의 모습으로 간주되어 왔다.

사라넬슨 교수는 본원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심포지엄에 적극 참여한 분으로 1992년 양양 오산리 첫 방문때 신석기인들의 생활모습이 영감으로 떠올라 소설을 쓰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이 소설은 금년 1월부터 한국어로 번역을 시작해 오는 4월 출간할 예정이다. 이분은 한국 고고학을 독립 panel로 구성하는데 진력했을 뿐만 아니라 오산리 유적을 세계 고고학 사전에 등재시키기도 한 세계적인 고고학자이다.

본원에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라넬슨 교수는 강원도와 강원 선사문화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오산리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써서 전 세계인에게 한국 오산리 선사문화를 알리는데 공헌했다.

서울대 임효재 교수와 본인(양양문화원장 고경재)이 적극 추천해 강원도 문화대사로 지난 28일 14시 도지사 접견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또한 29일 10시 뜻깊은 본 국제학술대회장에서 양양군민패도 수여하기도 했다.

우리고장에서는 1200여년전 낙산사의 관음송에서 지저귀던 파랑새가 날아다니면서 불교문화를 세계에 널리 선양했다면 이제 8천년전 오산리 신석기인들의 영혼의 황금새가 세계를 자유롭게 날아 여행하면서 양양오산리는 물론 강원도와 한국을 세계만방에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것으로 확신해 마지 않는다. 문

시각장애인의 아버지 '박두성'

박두성(1888~1963) : 시각장애인 교육자, 한글점자 창안, 조선어점자연구위원회를 통해 한글점자 보급,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간 회람지 '촉불' 발행, 주요서적 점역보급(성경, 명심보감, 의학서적 등)

한글점자 창안자이며 시각장애교육에 생애를 바친 松庵 박두성은 구한말인 고종25년 경기도 강화군 교동면 상용리 516번지에서 박기만씨의 6남 3녀중 맏아들로 출생했다. 어려서는 서당에서 한학을 수학하고, 8세가 되던 1895년 7월 무관 출신 성제(誠齊) 이동휘(李東輝)가 강화도에 세운 보창학교에 입학해 4년간 보통학교의 신학문을 수학하고, 성제의 주선으로 한성사범학교(현 경기고등학교 전신)에서 수학했다. 졸업 후 어의동보통학교(현 효제초등학교 전신) 교사로 발탁되어 8년간 근무했다. 그 후 1913년 제생원(濟生院) 맹아부(盲啞部) 설립과 함께 교사로 발령됨으로써 시각장애인들과 인연을 맺고 시각장애인들에게 한글점자를 창안해 주어(1926년) 우리나라 시각장애인들이 마음대로 쓰고 읽게함으로써 암흑 속에서 허덕이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광원을 찾아주는데 평생을 바쳤다. 이처럼 박두성은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세종대왕으로 일컬음을 받는 분이다.

박두성의 시각장애인 교육관은 애맹정신의 실천, 끊임없는 권학정신, 생활자립을 위한 교육강화, 잠재능력개발이었으며 이에 평생동안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쳤다. 박두성의 위대함은 한글점자 창안은 물론 한글점자의 보급을 통해 우리나라 시각장애인계의 문맹퇴치에 기여한 것이다. 성경을 비롯 76종의 맹인용 교육자료 도서를 점역 · 출간했으며, 점자도서 보급 사업, 통신교육사업, 주간 회람지 '촉불' 발행 등을 통해 전국의 시각장애인들이 한글점자를 생활에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조선어 점자연구회, 육화사 등의 연구조직을 결성, 한글점자를 더욱 연구함으로써 그 실용성을 높였다.

박두성의 신념은 시각장애 교육이 단지 장애인교육이나 자선사업이 되어서는 안되며 직업교육과 더불어 시각장애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 양성과 민족정신을 싹틔우는 것이었다.

이러한 박두성의 신념은 일제치하의 조선어 말살정책으로 모든 학교의 조선어 교육이 폐지된 상황에서도 제생원에서는 우리 말과 글의 공교육이 계속되도록 했다. "…실명이라는 1차적인 신체적 장애에 시각장애인이 마음대로 읽고 쓸 한글점자가 없으면 시각장애인의 심안을 밝히지 못하며 이로 인해 제 2차, 3차로 장애가 중복 · 심화되어 정서불안, 열등감, 비사회적 행동의 부차적 장애를 가져오게 되므로 점차 이질적인 방향에로 고착화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장애를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시각장애인에게 문자를 주어 그들의 정서를 순화시키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애절한 진정으로 총독부를 설득시키는데 성공한 박두성은 당시 구전식 교육과 점복업을 주로 하는 시각장애인의 생활 한가운데에 투신함으로써 한글점자의 창안과 보급, 교수학습방법의 기반 연구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시각장애 교육을 거의 현대적 모습으로까지 완성시켜 놓았다. 그리하여 박두성의 가르침은 직간접으로 시각장애자 지도자, 교육계 · 종교계 · 의약계 · 예술계의 박사들을 비롯 수많은 인재들을 우리나라 사회에 배출했다. 박두성은 우리나라 모든 시각장애인의 정신적 지주임과 동시에 애맹사상가로 그 불멸의 업적은 오늘날은 물론 후세에까지 길이 빛날 것이다. 문

서민의 삶 화폭에 담은 '박수근'

박수근(朴壽根 1914~1965) : 서양화가, 소박하고 일상적인 서민의 삶의 모습을 한국적인 서정성으로 표현한 화가. 주요작품 〈나무와 두 여인〉, 〈모자(母子)〉, 〈절구질하는 여인〉, 〈농악〉 등

박수근은 1914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났다. 태어났을 당시 넉넉했던 집안 형편은 그가 보통학교에 들어갈 즈음 어려워졌고 그 이후로는 계속 가난으로 인한 고단한 삶을 살았다. 12세 때 밀레의 '만종'을 보고 자신도 그와 같은 화가가 되고자 독학으로 그림 공부를 계속해 18세인 1932년, 조선미술전람회(선전)에서 수채화 〈봄이 오다〉로 입선을 하게 되었고 이후 거듭 선전에서 입선했다. 화가로서 그의 삶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6 · 25동란 후 박수근은 한동안 미8군 PX에서 초상화를 그려주고 그 대가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갔다. 이후 국전에 수 차례 입선과 특선을 했고 이 때부터 가난한 이웃을 소재로 하여 평면적이고 독특한 마띠에르(질감)를 가진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만들어 나갔고 화가로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1957년 심혈을 기울여 그린 대작 〈세 여인〉이 국전에서 낙선한 것에 크게 낙심한 나머지 과음을 계속해 백내장으로 한 쪽 눈을 실명하게 되었고 간경화도 심해졌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계속 작업을 해갔으나 건강이 더욱 나빠져 1965년 5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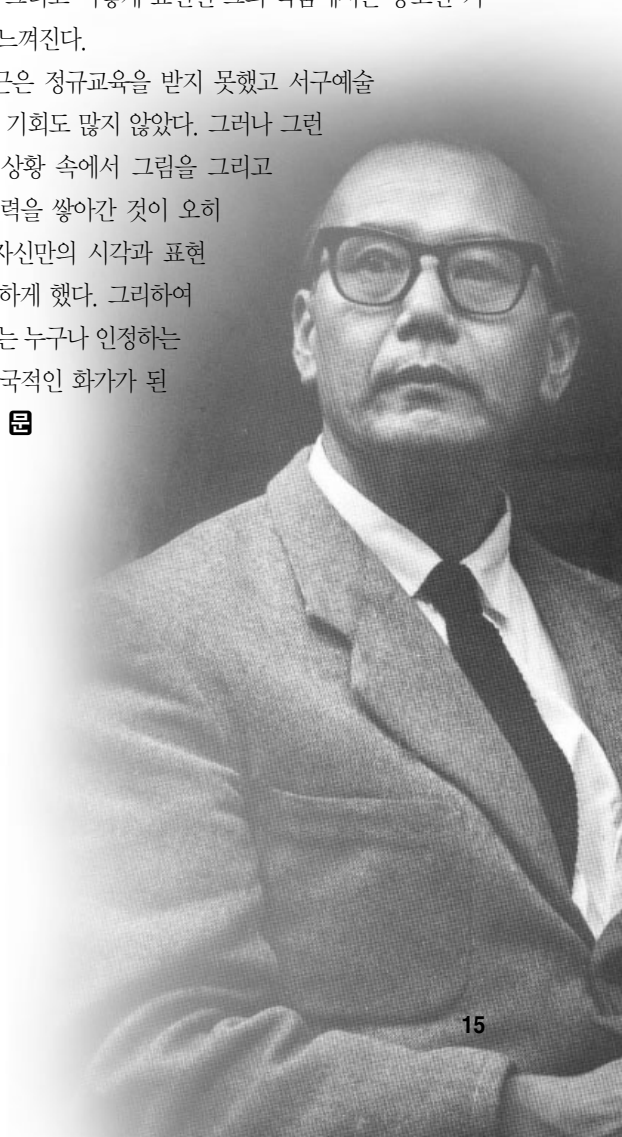
"나는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려야 한다는, 예술에 대한 대단히 평범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내가 그리는 인간상은 단순하고 다채롭지 않다. 나는 그들의 가정에 있는 평범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물론 어린아이들의 이미지를 가장 즐겨 그린다."

이것은 박수근 자신의 철학과 그림에 대한 생각이 담긴 유일한 말로 여기에서 그의 작품의 주제와 특징의 근간을 엿볼 수 있다.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소박한 우리네 서민의 일상적인 모습이다. 일하고 있는 여인이나 장터의 풍경, 할아버지와 손자 등 생각만으로도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하는 그들을 박수근은 그리고자 했다.

그들의 '선함과 진실함'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화강암의 거친 질감을 화폭에 옮겨왔고 그 위에 공간감을 무시하고 극히 단순한 형태와 선묘를 이용한 평면화된 대상을 모노톤의 색채로 그려내어 마치 바위에 각인된 듯한 이미지로 표현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 그의 작품에서는 숭고한 기운마저 느껴진다.

박수근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고 서구예술을 접할 기회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계속 실력을 쌓아간 것이 오히려 그 자신만의 시각과 표현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하여 현재 그는 누구나 인정하는 가장 한국적인 화가가 된 것이다. 문



그 리 움

안 정 자 | 시인 · 마산문화원 부원장

당신이 떠난 빈자리가 한다발 안개로

피어 오르고 술하게 아픈 사연은 내일을

기약 받고 흐느적 거렸던 생의 자세를

먼데서 나부끼고 지금은 찬란한 四月

당신의 숨결이 나의 가슴속에 사무치고

당신은 나의 마음깊이 가득차 있네 來日은

길을 나서 고개넘어 진달래 꽃 꺾어

꽃잎속에 가득 글을 써서 주소없는 번지 써

당신에게 보내 오리다.

回信없는 당신에게 보내 오리다.

詩

70년대 경남매일 주최 신춘문예에 등단한 이래 시작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다. 저서로 2인집 '아름다운 별집을 위해'가 있다. 현재 마산문화원 부원장으로 재직하며 마산의 지역문화개발과 대일 문화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하만기 신임 전국문화원연합회 사무총장

전국문화원연합회 사무총장에 하만기 前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사무국장(60)이 임명됐다.

하만기 신임 사무총장은 68년 전주체신청 행정서기보로 발령받으며 공직생활에 발을 내디뎠다. 2000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하기까지 근 32년동안 공직에 몸담은 하 총장은 공직생활 초기 국방부 방위산업국과 군수국에서 근무한 것을 빼고는 국립현대미술관 · 국립중앙극장 · 문화관광부 감사관실 · 종무실등 줄곧 문화관련 부서에서 일해왔다. 또 97년 부터는 현충사 관리소장과 경복궁 관리소장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민족정신과 전통문화 발전에 힘썼다. 하 총장은 녹조근정훈장을 받은 바 있으며 문화부안팎에서 덕망이 높은 것으로 소문이 나 있다.

이번에 총장에 선임된 하 총장은 "우리나라 민족문화와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일하게 된 것이 한편으론 영광스럽지만 또한편으로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전국 214개 문화원과 이들 문화원 소속 임직원 · 회원들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양 '신석기 유적' 소재로 소설 쓴

美 사라넬슨 교수 강원도 홍보대사로 추천

양양문화원과 한국선사문화고고학회는 3월 28~30일 세계적인 고고학자이자 세계 동아시아 고고학회장인 미국 덴버대학 부총장 사라넬슨 교수를 초청한 가운데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라넬슨 교수는 한국의 신석기문화 연구로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 덴버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 신석기 문화 특히, 강원도 양양군 오산리 신석기 유적을 세계학계에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오산리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써서 전 세계인에게 한국 오산리 선사문화를 알리는데 공헌했다.

이 소설은 금년도 1월부터 한국말로 번역을 시작해 4월에는 한국어로 출간될 예정이다. 사라넬슨 교수의 강원도와 강원선사문화에 대한 애착은 남다르다. 고경재 양양문화원장과 임효재 한국선사문화고고학회장은 최근 사라넬슨 교수를 강원도 홍보대사로 추천했다. (관련기사 11면)

강원도 양양군 오산리 신석기유적 발굴 성과 소설로 재생

「Spirit Bird Journey」는 S. Nelson 미국 Denver대학 교수(세계 동아시아고고학회장)가 9년 전에 초고를 완성하고 2년 전에 출간해 별5개 최고로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1985년에 오산리 발굴 현장(1981~85년까지 서울大 임효재 교수가 발굴, 2000년까지 신석기 유물발굴)을 직접 방문했던 Nelson교수는 시종 놀라운 표정이었다. 오산리 유적은 뾰족밑 빗살무늬토기에 선행하는 평저형토기로 보아 종래보다 2000년 앞선 8000년 전의 신석기문화 현장이다. 또 오산리 유적은 우리 신석기문화 기원의 하나로 생각되는 연해주 일대보다 훨씬 선행(90년에 발견한 연해주 최고의 신석기 유적보다도 선행)한다. 임효재 교수는 이를 백두산 중심 두만강 문화의 북상 결과로 설명한다.

또 Nelson교수는 오산리 어로 현장(그물)과 물고기잡이, 오산리 현지의 어촌부락을 보고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 1992년 양양 오산리 국제학술회의 참가 후 오산리를 방문했을 때에는 금방 신석기시대의 여인이 나타나 음식과 토기를 만드는 모습이 보이며, 밤마다 신석기인의 생활과 이야기소리가 떠올랐다며 이것을 소설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암사동 신석기 그리고 오산리 발굴을 기초로 쓴 'Spirit Bird Journey'는 Clara Alden이라는 한국 재미교포 여학생이 미국에서는 동양인이라는 핸디캡이 있었으나 한국에 고고학을 공부하러 왔다가 오산리, 암사동 유적을 방문하고 자신이 새가 되어 신석기시대의 토기 제작에 참여하고 음식을 요리하는 등 신석기 시대를 체험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더구나 Clara는 한반도 신석기시대의 모계 중심사회를 여행하게 되는데 다시 실사회로 돌아와 한국 사회가 남자 중심사회라는데 커다란 충격을 받고 갈등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사라넬슨 교수 약력

▷ 1931년 마이애미에서 출생
▷ 1954년 웰줄리대 성서학과 졸업
▷ 1968년 미시간대 대학원에서 고고학 공부 시작
▷ 1970년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강유역 신석기 문화 공부
▷ 1973년 미시간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취득
논문 한강 유역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 연구
▷ 1996년 미국 고고학계 최고 학술상 존 에번스 교수상 수상
▷ 1996년 하와이 세계동아시아 고고학대회에서 한국 독립분과 개설
▷ 2000년 세계 동아시아 고고학회 회장으로 선출
현재 미시간대 인류학과 교수(고고학 전공)
저서 '한국의 고고학', '중국 동북부의 고고학', '고고학 속의 성(性) 권력과 특권의 분석' 등

Nelson교수는 1989년 환태평양 선사 학술회의에 참가하고 1996년 하와이 동아시아 대회에서 이전에 중국이나 일본 고고학의 일부분에 불과하던 한국고고학을 독립 패널로 구성해 그간의 서러움을 극복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었다. 2000년 7월에는 영국 Durham 대회에서는 회장으로 한국고고학 지위 향상에 힘썼으며 오산리 유적을 세계 고고학사전에 등재시키기도 했다. 또 Nelson교수는 풍납동 문제를 세계 학계에 보고하고 풍납동처럼 학계와 정부, 주민의 마찰로 유적이 파손되는 일이 다른 나라에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렸다.

이번에 Nelson교수는 22일에 서울 강동구 암사동 선사유적공원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속에서 본 암사동 신석기문화' 라는 주제의 국제학술세미나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한다. 암사동 유적은 뾰족밑 빗살무늬토기 문화에 있어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북쪽 계통의 빗살무늬토기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는 일본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중국의 만주지역과 무늬 일부의 유사성은 인정되나 청천강 이남의 뾰족밑 토기문화가 태고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암사동에 정착했던 신석기인들이 식량이 부족하게 되어 해안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식량 고갈로 인해 암사동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른바 신석기인들의 계절 이동설을 발표했다. 또 토기의 기능적 측면에서는 그 용도가 serve, 끓이는 용기, 저장용기로서 토기의 세 가지 기능을 유추했다.

Nelson교수는 16일 방한해 서울대 호암 생활관에서 머물면서 서울대 임효재 교수팀이 경기도 오이도 신석기 패총 유적발굴 현장을 방문하고 방한기간동안 대전 충남대와 대둔 신석기 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고창 고인돌, 경주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Nelson교수는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한강 유역 신석기토기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간의 저서로는 '한국 고고학', '한강유역 빗살무늬토기연구', '중국 동북 지역 고고학' 등이 있다.

(좌) 지난해 심포지엄이 끝난 후 사라넬슨 교수가 오산리 신석기인을 소재로 쓴 소설책 「Spirit Bird Journey」를 고경재 양양문화원장에게 증정하는 장면.
(우) 강원도 문화대사 추천 관련 김진선 강원도지사를 방문한 사라넬슨 덴버대교수. (좌로부터) 임효재 서울대교수, 사라넬슨 덴버대 교수, 김진선 강원도지사, 고경재 양양문화원장, 최정필 세종대 교수.

서울특별시 · 광진문화원

광진구에 어린이전용미술관 개관

'어린이는 네모난 사과를 그릴 자유가 있습니다'

어린이날이 들어 있는 5월을 맞이해 광진문화원(원장 이동표)은 3일 오후 3시 서울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지하1층에서 '어린이미술마당' 개관식과 더불어 '월드컵과 세계의 어린이'를 주제로 한 전시회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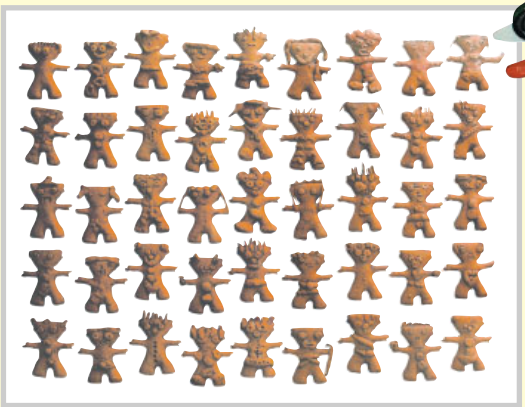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시장 고건)가 지하철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고 광진문화원이 위탁관리를 하는 이 미술관은 어린이 전용 미술관으로 앞으로 서울시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의 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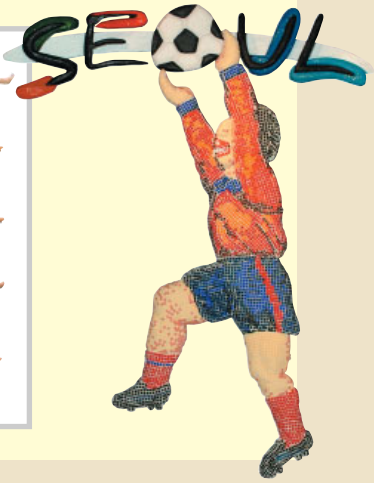
어린이 미술마당에는 '함께하기방' '만지기방' '놀기방' 등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비롯 전시실, 육아휴게실등이 꾸며져 있으며 서울미디어시티에 선보였던 유명작가들의 작품들도 전시돼 있다.

특히 이날 부터 6월 30일까지는 개관을 기념해 전국유아미술교육협의회 광진지구(지구장 안희주) 소속 미술학원 20여군데가 참가한 가운데 전시회도 열린다. 이번 개관전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나 초콜릿을 소재로 한 집이나 월드컵을 축하하러온 우주인등 50여 작품이 선보여 눈길을 끈다.

대관 · 관람문의 : (02)461-8690

<개관전 작품>





18일 월드컵 성공기원 '태조이성계 사냥행차'

11일에는 중요무형문화재 17호 '봉산탈춤' 공연

월드컵 성공기원 '태조 이성계 사냥행차'가 5월 18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성동구 살곶이운동장에서 열린다. 성동문화원이 주관하고 성동구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5월말부터 6월 한달동안 열리는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자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태조 이성계 사냥행차 재연을 비롯 축하공연과 연예인 초청공연으로 꾸며진다. 한편 성동문화원은 5월 25일 오후 5시 성동문화회관 야외무대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인 봉산탈춤 공연을 펼친다.

2002 청주공예문화상품대전

9월13~15일까지 작품 접수

두 차례에 걸친 성공적인 국제공예비엔날레를 계기로 국제적인 공예도시로 부상되고 있는 청주시는 국제공예비엔날레의 맥을 잇고 한국의 문화를 표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상품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2002청주공예문화상품대전'을 개최한다.

'우리 고유의 삶과 멋'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금속 · 도자 · 목(칠) · 섬유 · 기타(유리 · 종이 · 가죽 · 돌 등) 공예 전분야로 대상에는 1천만원의 상금과 토로피 · 상장이 수요된다. 작품접수는 9월 13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이번에 열리는 공예상품대전은 한국문화의 대표적 상징성을 국제적으로 보편화할 수 있는 공예문화상품과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및 청주의 지역문화적 고유성을 국제적으로 표상할 수 있는 공예문화상품의 개발을 목적으로 국내 기성작가 및 참신한 신진작가를 대상으로 공예의 현대성과 전통성을 아우르는 작품을 공모 받을 예정이다.

CHEONGJU 2002 청주공예문화상품대전

순결을 위해 아들을 죽인 裵氏女

강 민 철 domingo@cultureplus.com

'아들의 목숨이 소중한가?' '여성으로서의 순결이 중요한가?' '한국학'의 대가로 불리는 이규태씨의 명저 '한국인의 性과 사랑'(문음사 刊)에 보면 한국 여성이 얼마나 성에 억압되어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글이 나온다.

전라남도 신안에 배씨녀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다. 자색도 곱고 몸매도 빼어나 이 해안지방을 약탈하는 왜적이 눈독을 들이고 뒤쫓았다. 배씨녀의 뒤를 쫓아온 일단의 왜적들은 배씨녀가 어디로 숨어 버리고 없는 것에 화가 났다. 불을 지른다고 고함을 쳐도 나타나질 않았다. 잔인한 왜적들은 이 배씨녀가 어디선가 기어나올 수 있도록 계책을 꾸몄다. 그녀에게는 열두살난 아들 지립과 열살난 지발 두 아들이 있었다.

왜적은 이 두 아들을 잡아왔다. 여성에게 있어 가장 아픈 모성애를 미끼로 삼아 끌어낼 작정을 한 것이다. 이들은 여물 써는 큰 작두를 가져다 마당 한가운데 놓았다. 그리고 지립과 지발의 손을 뒤로 묶고 쳐든 작두날 아래 목을 겨냥해 뉘었다.

이제 쳐든 작두를 누르기만 하면 두 형제의 목이 나뒹굴 판이었다. 잠적을 했던 배씨녀는 바로 이 두 아들이 목을 나란히 하고 멀뚱 멀뚱 눈알을 굴리고 있는 네 개의 시선이 마주치는 곳간 속에 있었다. 두 아들은 마냥 엄마를 불러댔다. 빨리 나와서 우리 형제를 구해 달라는 그러한 목적과 요구가 있는 울음은 아니었을 것이다. 갓 태어나서 엄마를 부르는 듯한 본능적인 외침이었다.

배씨녀는 뛰어나갈 맘을 먹고 옷춤을 추켰다. 한데 무언가 그의 본능적 발작을 억세게 짓눌렀다. '나가면 안돼, 나가면 안돼, 나가면 겁탈을 당한다. 겁탈이 너 혼자의 육체적 피해만으로 끝난다면 나가도 된다. 하지만 네 일신의 수모는 네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 시할아버지, 온 가문, 시집의 조상들, 그리고 시집의 후손들에까지 욕을 입힌다.'

배씨녀는 두 아들의 비명을 귓가에 들으면서도 얼어붙은듯 밖으로 한발자국도 나가질 못했다. 왜적들은 화가 치밀대로 치밀었다. 그런 끝에 왜적들은 무자비하게 작두를 내리눌렀다. 두 아들의 비명도 그치고 두 머리가 마당에 나뒹굴었다. 그래도 성이 안풀렸는지 왜적들은 두 아들의 시신에 칼을 대어 간을 내어 나무에 걸어놓는 것이었다.

그녀는 미치고 말았다. 미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후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해변을 방황했고, 방황하다가도 파도만 치면 그 소리를 두 아들들이 울부짖었던 엄마소리로 듣고 마냥 귀를 막고 주저앉아 몸부림치고 했다 한다. 이렇게 몸부림치며 방황하다가 바닷가 높은 바윗돌 위에서 부딪치는 파도소리의 그 환각적인 비명에 홀려 몸을 던져 버렸다 한다.

이처럼 우리 한국여성에게 성(性)이란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차마 뛰쳐나가지 못할 만큼 억압적인 성(城)이었던 것이다.

우리문화 다시보기

'탈'

가면(假面)은 우리말로 '탈'이라고 부릅니다.
탈은 사람이나 동물의 얼굴 모양을 만들어 주로 얼굴에 써서 분장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자어로는 면(面), 면구(面具), 가면(假面), 대면(代面), 가두(假頭), 가수(假首) 등이라 하고, 우리말로는 광대, 초라니, 탈, 탈박, 탈바가지 등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얼굴 앞면을 가리는 면구를 가면, 머리 전체 후두부까지 가리는 것을 가두, 가수, 투구라고 하여 구별하게 합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탈놀이에 사용하는 탈을 면구(面具)라고 부릅니다.

양주별산대놀이 탈

양주별산대놀이는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유양리에 전승되어 온 탈놀이로서, 1964년에 중요 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다.

양주별산대놀이는 19세기 초·중엽에 본산대놀이 계통의 탈놀이를 본따 성립된 것이다. 양주별산대놀이는 음력 3월 3일, 4월 8일(석가탄신일), 5월 5일(단오), 8월 15일(추석), 9월 9일(중양절)과 기우제 때 놀았다. 원래 양주별산대놀이의 공연 장소는 사직당의 앞마당이었다.

놀이의 내용은 제1과장 상좌춤, 제2과장 상좌·옴중놀이, 제3과장 옴중·먹중놀이, 제4과장 연잎·눈끔쩍이놀이, 제5과장 염불놀이, 제6과장 침놀이, 제7과장 애사당법고놀이, 제8과장 파계승놀이, 제9과장 신장수놀이, 제10과장 취발이놀이, 제11과장 의막사령놀이, 제12과장 포도부장놀이, 제13과장 신할아비·미얄할미놀이로 구성되어 있다.

연잎

양주별산대놀이에서 사용하고 있는 탈들은 바가지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완만한 타원형고선과 곱게 다듬어진 볼록면을 갖고 있으며, 색채가 밝은 것이 많고, 사실적인 인물탈이 많은 점이 특징이다.

북청사자놀음 탈

북청사자놀음은 원래 함남 북청군에서 전승되어 온 탈놀이로서 6·25당시 월남한 놀이꾼들에 의해 복안되었다.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었다. 이 탈놀이는 북청군 산하 11개면과 3개읍에 속하는 각 마을에서 음력 정월 15일 밤 세시 풍속의 하나로 행하여졌다.

현재는 북청사자놀음에 사자가 두 마리 등장하지만 원래 북청 지방에서는 사자가 한 마리만 등장했었다. 사자외에 애원성춤·사당과 거사춤·무동춤·곱추춤·칼춤·승무·중·의원·양반·꼭쇠 등이 나온다. 이중 탈을 쓰는 것은 길잡이·양반·꼭쇠·곱추·사자 뿐이다.

북청사자놀이는 극적인 요수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나례의 매귀(埋鬼) 행사와 동일한 모습도 보인다. 16일 새벽 사자놀이가 끝나고 난 후 놀이패는 사자를 앞세우고 마을의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나례의 매귀(埋鬼) 즉 지신밟기와 유사한 의식을 거행했다. 사자는 머리부분에 큰 방울을 많이 달고 있는데, 이는 방울소리를 통하여 잡귀를 쫓으려는 것이었다.

사자

송파산대놀이 탈

송파산대놀이는 원래 구 송파에 전승되어 온 탈놀이로서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로 지정되었다. 19세기 초·중엽에 구파발본산대놀이 등의 영향 아래 형성되었다.

송파산대놀이의 전승지인 송파나루는 오강(五江)의 하나로서, 조선후기 전국에서 가장 큰 열다섯 향시의 하나였던 송파장이 서던 곳이다. 이 시장 상인들의 지원에 의해 송파산대놀이가 전승되었다. 정월 대보름·사월 초파일·단오·백중·추석에 산대놀이를 놀았다.

옴중

1925년 7월 대홍수로 인하여 송파마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모래사장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1930년대 초부터 돌말이(석촌리)에서

탈놀이가 재연되어 태평양 전쟁이 나기전까지 한동한 활발하였다. 그후 일제시대말에 단절되었던 돌말이의 산대놀이는 해방이후 몇 차례 공연되었으나 다시 전승이 끊겼다가 1960년대에 복원되었다.

가산오광대 탈

가산오광대는 경남 사천군 축동면 가산리에 전승되어 있는 탈놀이로서, 1980년 중요무형문화재 제73호로 지정되었다.

가산리는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는데, 조선시대에 조창(漕倉)이 있었던 곳이다. 그래서 가산오광대에 대하여 '조창오광대'라는 명칭이 생겼다. 가산리의 노인들은 가산오광대가 2~3백년 전부터 전승되어 왔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기록이나 증거는 없다. 다만 가산 조창이 1760년에 설치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조창 설치 이후 마을의 규모가 커지고 큰 시장이 생기면서 오광대 탈놀이를 놀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형성되고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점차 오광대를 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놀이의 내용이나 탈의 제작법 등 여러 면에서 가산오광대는 이미 전승이 단절된 진주오광대와 매우 유사하다.

큰양반

음력 정월 2월부터 매구꾼 즉 풍물패가 풍물을 울리며 14일까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지신밟기를 해주고, 보름날 저녁에는 조창 앞마당에서 오광대 탈놀이를 놀았다.

고성오광대 탈

고성오광대는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에서 전승되고 있는 탈놀이로서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었다.

고성에서 처음 오광대놀이를 시작한 것은 조선말엽 남촌파 서민층 한량들이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정확하게 오광대놀이를 언제 누가 어디서 배워 왔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고증이 어렵다. 어쨌든 고성오광대가 현재와 같은 놀이로 짜임새를 갖게 된 것은 1920년 무렵 통영오광대와 창원오광대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난다.

예전에는 대개 정월 대보름날 객사 마당이나 시장거리에서 오광대를 놀았다고 하며, 그 외에 봄에 꽃이 필 무렵이나 단오날 그리고 가을에 단풍이 들 때도 놀았다고 한다. 이런 사실로 보아 고성 오광대는 신앙적 성격은 약하고, 오락적 성격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시골양반

현재는 종이 찰흙으로 탈을 만들므로 종이탈의 일종을 사용하는 셈이지만, 고성오광대보존회에 1960년대 사용하던 고성오광대의 나무탈 17개가 소장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예전에는 나무탈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통영오광대 탈

통영오광대는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전승되어 온 탈놀이로서,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었다. 통영오광대는 1900년 무렵 창원오광대를 본따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 의흥계를 조직해서 이 탈놀이를 놀았는데, 의흥계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통영에 위치한 수군통제사의 통제영의 부속관아인 취고수청의 악공 출신들이었다.

이후 1910년대에 징용기가 중심이 된 난사계가 통영오광대를 전승하였고, 다시 1920년대에 장재봉이 중심이 된 충흥계가 계승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통영오광대는 거제오광대와 고성오광대의 성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의흥계는 정월 2일부터 14일까지 가가호호를 방문하면

서 매귀(埋鬼) 즉 지신밟기를 해주고 받은 기부금으로 탈놀이를 준비하여, 정월 14일 밤에 파방굿과 오광대탈놀이를 거행했다. 4월 초 봄놀이에는 사또놀음의 일부로 탈놀이를 연행했다.

사또행사는 세병관에서 출발하여 명정골을 거쳐 미륵산 용화사 뒤 잔디밭에 도착한 후 모의 재판을 열어 죄인을 다스리고나서 밤새도록 탈놀이를 놀았다.

홍백양반

대부분 바가지탈인데, 문둥이와 말뚝이는 대바구니로 만든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탈을 바가지로 만들었지만, 최근에는 나무탈로 바꿨다.

봉산탈춤 탈

봉산탈춤은 원래 황해도 봉산군 동선면 길양리에서 전승되어 왔으나, 1915년 무렵 군청 등 행정기관이 사리원으로 이전하자 탈놀이도 함께 사리원으로 옮겨가 전승되었다.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었다.

봉산탈춤은 주로 단오날 놀았고, 그 외에 중국 사신의 영접이나 신임사또의 부임을 축하할 때 관아의 행사로도 연행되었다.

원래 봉산 길양리에서는 경수대 아래 마당에서 탈놀이를 놀았다. 사리원에서는 경암루 앞마당에 28개의 구획을 가진 반원형의 다락을 매고, 그 안쪽의 마당에서 낮에는 그네뛰기와 씨름을 하고 밤에는 장작불을 피워놓고 밤새도록 탈놀이를 놀았다.

둘째양반

예전에는 밤의 탈놀이에 앞서 오후에 길놀이를 하였다. 옛부터 단오놀이를 위해 봉산의 주민들은 일정한 비용은 헌납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상인들은 매년 단오절 경기를 이용하여 왔으므로 상대적으로 놀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강령탈춤 탈

강령탈춤은 황해도 옹진군 부민면 강령리에서 전승되어 온 탈놀이로서, 6·25때 월남한 놀이꾼들에 의해 복원되어 1970년 중요무형문화재 제34호로 지정되었다.

강령탈춤은 봉산탈춤과 함께 황해도의 탈놀이를 대표한다. 강령탈춤은 해서탈품의 대부분이 그러하듯 단오날의 행사로 거행되었다. 음력 5월 6일에서 8일까지는 해주감영에서 벌어진 해서탈춤의 경연에도 참가하였다. 놀이 후에는 탈을 태워버렸다.

매년 단오는 주민들의 지원과 호응을 받아 탈놀이를 하였다. 음력 5월 4일에는 길놀이를 하였으며 5일·6일에는 저녁부터 새벽 무렵까지 밤새도록 탈을 놀았다. 놀이 마당으로는 주로 공청(公廳)의 앞마당(미곡시장)이 이용되었다.

현재 사용되는 탈은 얼굴에 혹이 많고 눈두덩이 튀어나오게 만든 후 안구를 뚫은 것이 특징이며, 귀면적(鬼面的)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고 사실적인 면이 강하다. 노승·취발이·미얄할미탈이 귀면이지만, 이 탈들을 포함하여 모든 탈들은 안면의 선들이 모두 부드러운 곡선이어서 온화하고 서민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미얄할미

은율탈춤 탈

은율탈춤은 원래 황해도 은율군 은율 소읍에서 전승되어 온 탈놀이다. 1978년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로 지정되었다. 은율탈춤의 유래나 성립연대를 고증할 만한 기록이나 자료는 없지만 19세기 경에는 놀이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황해도 서쪽 평야지대의 중심지였던 은율은 쌀 · 사과 · 참외 등의 농사와 서해의 어물이 비교적 풍부한 지역이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놀이를 위해서는 액수에 관계없이 지원해주었다.

탈놀이는 주로 단오에 놀았으나, 4월 초파일(석가탄신일) · 백중 그리고 회갑잔치 때도 불려가 놀았다고 한다. 단오날이 되면 놀이꾼 전원이 읍에서 1km 정도 떨어진 마숲에 모여 탈고사를 지내고 음복(飮福)을 한 후 길놀이를 시작했다. 길놀이는 읍내를 한 바퀴 돌고나서, 장마당에 마련된 놀이판에서 탈놀이를 벌였다. 탈놀이가 끝나면 탈을 모두 불태웠다. 1925년 경 이후부터는 탈을 태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 두었다가 다시 사용하였다.

은율탈은 주로 흰색과 붉은색이 바탕을 이루는 가운데 마치 둥근 공 같은 혹이 많은 것이 인상적이다. 전체적인 선도 타원형의 부드러운 곡선이 기조를 이루었고, 사실적인 형태에 혹을 붙임으로써 귀면(鬼面)의 성격을 갖도록 하였다.

말뚝이

하회별신굿탈놀이 탈

하회별신굿탈놀이는 경상북도 안동군 풍천면 하회리에서 전승되어 온 탈놀이로서, 1980년 중요무형문화재 제69호로 지정되었다.

하회의 탈놀이는 서낭굿의 일종인 별신굿을 거행할때 놀았다. 하회별신굿은 1928년 이후 전승이 중단되었다.

탈놀이에 사용되는 탈은 동사에 보관되어왔다. 놀이 장소로는 주로 동사 앞마당이 사용되었으나, 삼신당 앞마당도 자주 사용되었다.

이 탈들은 신성시되었다. 특히, 각시탈은 서낭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별신굿 때를 제외하면 꺼내 볼 수 없었다. 부득이 탈을 꺼낼 때는 반드시 산주가 고사를 지낸 후 꺼냈다.

원래의 하회탈은 1964년 국보 제121호로 지정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하회탈은 각시 · 양반 · 부네 · 중 · 초랭이 · 선비 · 이매 · 백정 등 현존하는 9종 외에 떡달이 · 별채 · 총각의 3개 탈이 더 있었다.

하회탈은 한국적인 표정을 갖고 있으며, 한국인의 골격과 용모를 잘 표현하고 있으며 나무탈 가운데 걸작으로 꼽힌다. 여러 방증 자료에 의하면 하회탈은 고려시대 중기인 11~12세기까지 소급된다.

동래야류 탈

동래야류는 부산동래 지방에 전승되어 온 탈놀이로서,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되었다. 동래야류의 모태는 수영야류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다.

동래야류는 1933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1946년에 3 · 1절 기념행사로 공연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마지막으로 또다시 중단되었다가 1965년에 복원되었다.

동래야류는 정월 대보름의 상원(上元)놀이를 원칙으로 하고

말뚝이

있으되 유동성을 가졌다. 동래야류를 공연하기에 앞서 길놀이를 거행하였다. 길놀이는 세병교에서 출발하거나 안락동 쪽에서 출발하여 시장터까지 행진하였다. 놀이패가 놀이마당인 시장에 도착하며, 놀이꾼뿐만 아니라 구경꾼들도 함께 음악반주에 맞추어 군무를 추며 놀았다. 이때 구경꾼들은 각자 탈을 준비하였다가 착용하고 춤을 추었다.

탈의 재료는 바가지이다. 다만 모양반탈은 바가지위에 전체적으로 개나 토끼의 털을 붙인다. 전반적으로 각 과장의 등장인물의 탈은 크기 · 색깔 · 아름다움 등에서 상호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등장인물의 성격을 부각시킴과 아울러 시각적인 재미도 부여하고 있다.

수영야류 탈

수영야류는 부산 남구 수영동에서 전승되어 온 탈놀이로서 1971년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로 지정되었다.

수영야류의 직접적인 기원에 관하여는 약 200년 전에 좌수영 수사가 병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초계로부터 대광대패를 데려와 공연한 것을 배운 것이라는 설과, 초계에 살던 수영 사람이 초계에서 배워와 시작되었다고 하는 설이 있다.

수영야류를 공연하기 앞서 음력 정월 3 · 4일경부터 13일까지 야류계가 주동이 되어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지신밟기를 해주고 이때 들어온 곡식으로 탈놀이의 경비를 조달하였다. 보름날 저녁 달이 뜰 무렵 마을 주민들과 탈놀이꾼들은 놀이판인 시장터에서 1km정도 떨어진 먼물샘에 모여 길놀이를 거행하였다.

길놀이패가 놀이판에 도착하면 풍물패의 반주에 맞춰 놀이꾼뿐만 아니라 구경꾼도 고깔을 쓰고 함께 군무를 추며 놀았다. 서너 시간동안 군무를 추다가 자정이 지나면 탈놀이를 시작하여 새벽까지 놀았다. 탈놀이를 마치면 새벽에 탈과 고깔을 한곳에 모아 놓고 고사를 지낸 후 불태우며 액운을 쫓고 행운을 기원하였다.

※자료제공 : 한국공예예술가협회

영노

외국 탈

◁ 남아공 탈

△ 베트남 · 태국 탈

▽ 아프리카의 세네갈 · 콩고 · 기니 등의 탈

PHOTO NEWS

사진 **남 기 동** 영동문화원 사무국장

3월의 금강산

▲ 해금강 「향로봉」

▼ 비룡폭포

▲ 구룡폭포 가는 초입 「목란관」

구룡폭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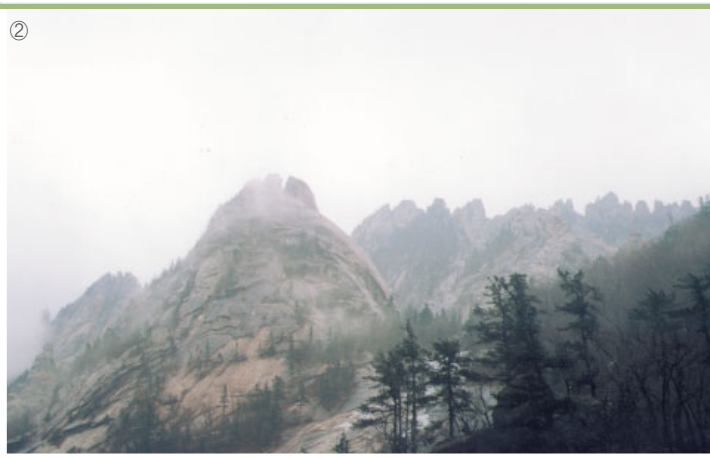


PHOTO NEWS

① 해금강의 섬바위들
② 금강산 연봉
③ 금강산 계곡의 맑은 물 〈옥류동 근처〉
④ 금강산 계곡 : 구룡폭포 가는 길
⑤ 삼일포의 누정

금강산 연수교육에 참석한 사무국장들 (온정각 휴게소 앞마당에서)

특집 금강산 기행 ①

전국문화원 사무국장 교육, 금강산에서 성료!

편집부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가 후원한 제12차 전국문화원사무국장 교육이 지난 3월 14일~16일까지 2박3일간 금강산에서 168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방문화원운영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중심으로 뜻깊게 거행되었다.

14일 오후에 속초항을 출발한 일행은 장전항에 도착한 뒤 호텔해금강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는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의 인사와 최천식 문화관광부 전통지역문화과장의 격려사에 이어 이종인 한국문화행정연구소장의 사회로 6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15일에는 금강산 구룡폭포코스의 산행과 북한교예단의 교예공연관람이 있었고 16일에는 해금강과 삼일포관광을 마치고 저녁에 속초에 귀항하였다.

토론회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주제인 지방문화원의 행·재정문제에 관하여 발제자인 이계홍(동두천 문화원)사무국장은 지방문화원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이나 공공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향토사나 문화를 전공한 자를 문화원에 근무시킬수는 없는지? 각 시·군에 향토사 전문직을 배치할 수 없는지? 그리고 시·군의 문화행정 담당공무원을 전문직으로 하여 그 분야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모색되어야 하겠다고 하였다. 재정문제에 관해서는 문화원이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제2주제인 지방문화원의 시설 및 기자재 문제에 관하여 발제자인 이경자(진해문화원)사무국장은 진해시의 사례를 들어 그동안 문화원 원사가 3곳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주민의 접근이 불편했었고, 시설이 노후하여 사용에 애로가 많았으나 다행이 금년 하반기에는 각종시설을 갖

문화교실 평가기준이 교육적 성과보다 얼마나 많은 인원이 신청했는가 하는 단순한 수치적 평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중복되는 강좌프로그램을 기관별로 정리하는 일, 국고의 운영비지원 증대, 수강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키는 일 등을 제안했다.

춘 통합된 원사로 이전하게 되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제3주제인 문화원의 공연 및 전시프로그램 문제에 관하여 발제자인 이만철(인제문화원)사무국장은 17년 간의 경험을 통하여 취약한 여건의 문화원 프로그램에 대한 애로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민의식이 낮은 관계로 주민참여도와 호응도가 낮다는 문제. 둘째, 예술인 · 예술단체 · 예술매체가 불모하다는 문제. 셋째, 자치단체의 재정빈곤으로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 넷째, 지역 내에서 프로그램 창작여건이 불미하고 외부예술인 초청시 경비가 많이 든다는 문제. 다섯째, 공연장 · 전시장등 문화시설이 미흡 · 부족하다는 문제를 거론하였다.

제4주제인 향토사(문화자료) 생산방안 문제에 관하여 발제자인 김창훈(함평문화원)사무국장은 이 분야는 서둘러야 할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전문인력과 전문지식 및 텍스트가 될만한 프로그램이 부재하며, 사료조사연구비가 부족하고, 자치단체의 인식부족과 무관심 · 비협조적인 태도가 문제라고 전제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모범적인 프로그램텍스트 개발 · 보급, 자치단체의 대폭적인 지원증대, 전문요원의 배치, 자료활용의 확대 및 적극화를 주장하였다.

제5주제인 문화원의 문화예술행사 수행문제에 관하여 발제자인 송기동(김천문화원)사무국장은 5년 동안의 문화원 근무를 통하여 아쉽게 느껴졌던 점은 문화원 업무영역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사업공간(원사)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최근에 실시된 문화원 운영실태평가에 따른 사업비 차등지급에 대한 문제점, 재정압박과 직원의 사기저하 문제들이 아쉬운 점이지만, 문화원은 지역주민의 문화사랑방이고 문화의 세기를 문화원이 주도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제6주제인 문화강좌(문화교육) 추진 문제에 관하여 발제자인 박종오(부산 연제문화원)사무국장은 연제문화원의 문화강좌를 사례로 들면서 문화원 및 각종 문화시설의 문화교실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주민들의 선호에만 추종하고, 문화교실 평가기준이 교육적 성과보다 얼마나 많은 인원이 신청하였는가 하는 단순한 수치적 평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중복되는 강좌프로그램을 기관별로 정리하는 일, 국고의 운영비지원 증대, 수강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키는 일 등을 제안하였다.

전국문화원 사무국장 교육 · 연수 장면 〈해금강호텔 대회의장〉

종합토론에서는 발제자들의 의견에 대한 보충과 문화원별 업무량에 따른 정원의 신축적인 운영과 그에 따른 인건비 지원의 증대요구, 사무국장 및 직원들의 권익보호 문제, 문화원 간사의 연수기회 확대 등의 의견도 있었다.

토론회 말미에 문화관광부 최천식 전통지역문화과장은 지방문화원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있는 사무국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2002년도 문화관광부의 주요정책방향과 2002년도 지역문화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설명하고, 새로운 지역문화의 좌표를 설정해 나가는데 사무국장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분발을 당부하였다. 문

(1)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금강산에서 제12차 전국문화원 사무국장 교육을 한다는 공문을 받고 어리둥절하였고 한편으론 놀랐다. 속초여객터미널에서 간단한 출입심사를 마치고 현대 설봉호에 승선하니 금강산관광 안내교육과 북측에서 반입금지 및 규제하는 물품의 종류와 성능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확인하는데 그 과정이 귀찮고 불편하였다.

설봉호는 8300여톤급의 호화여객선인데 승객수용인원은 600여명이라는데 이번에 탑승객은 450여명으로 알려졌다. 직선코스를 가면 가까운 거리인데 군사분계선이 있어 일단 공해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영해로 진입하기 때문에 고성항(장전항)에 도착하는데 4시간이 소요되었다. 산봉우리에 하얀 눈을 이고 있는 꿈에 그리든 천하명산 금강산(天下名山 金剛山)을 바라보면서 부두에 도착하니 벅찬 감동을 억제할 수 없었다. 우리 세대는 오랜 세월동안 냉전과 분단의 상황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남북분단(南北分斷)후 처음으로 밟아보는 북녘 땅이라 몹시 긴장되고 두려움과 설레임 속에 첫 발을 내딛었다.

현대에서 만들어 놓은 부두시설과 해금강호텔은 현지 주민들이 살고있는 곳에서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외진 곳으로 현지 주민들과는 전혀 만날 수도 접촉할 수도 없다. 해금강호텔에 짐을 내려놓고 관광버스에 올라 온정동에 있는 금강산온천과 온정각 휴게소로 가는데 도로 양쪽에 철망이 설치되어 있고 곳곳에 북측 병사가 지키고 있으며 도로에서 가까운 곳에 주민들이 살고있는 나즈막한 주택이 보였는데 남측의 60년대 탄광지대의 사택처럼 낡고 초라한 기와집이었다. 그리고 차창을 통하여 보이는 주민들의 모습도 피곤한 표정으로 다가와 마음이 무거웠다. 그런데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낮에 본 마을에서 불빛하나 보이지 않아 놀랐다. 설봉호가 정박하여 있는 부두와 해금강호텔 주변을 대낮같이 밝히고 있는 전기는 현대에서 설치한 발전기에서 공급한다고 한다. 북한의 전기사정이 어려운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줄 몰랐으며 50여년간의 장벽이 남북간의 격차를 이렇게 벌려놓은 현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시간은 늦었지만 예정대로 해금강호텔2층 대강당에서 사무국장들의 교육을 시작하는데 북한지역이라 태극기는 걸지 못하고 애국가봉창으로 국민의례를 대신했지만, 지역문화원 운영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의 열기만은 어느 때보다 뜨겁게 회의장을 달궜다.

특집 금강산 기행 ②

금강산 기행

이 남 중
창원문화원 사무국장

(2)

옛날부터 금강산은 산세가 수려하여 천하명산으로 널리 알려져 중국 북송시대(北宋時代)의 유명한 시인인 소동파(蘇東坡)는 "원생고려국 일견금강산(願生高麗國 一見金剛山)"이라 했으며, 조선시대 송강(松江)은 「관동별곡」에서 금강산을 예찬한 기행시로 유명하다. 그 외에도 수많은 시인묵객(詩人墨客)들이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시와 노래 산문 또는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금강산은 고성 · 통천 · 금강 등 세 군에 걸쳐 자리잡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외금강 · 내금강 · 해금강으로 나누며 남북 길이가 60km, 동서 폭이 40km, 총 면적이 530㎢로서 12,000봉우리가 천

태만상(千態萬象)을 이루고 있으며 그 이름도 계절에 따라 다른데 봄에는 금강(金剛)이요, 여름에는 봉래(蓬萊)요 가을에는 풍악(楓嶽)이요 겨울에는 개골(皆骨)이라 하였다. 그리고 신라(新羅)가 3국을 통일한 후에는 우리나라를 복(福)받은 땅이라 하여 불국정토(佛國淨土) 즉 부처님이 사는 곳이라고 하여 곳곳에 불교와 관련된 지명을 많이 붙였는데 금강산도 예외가 아니어서 제일 높은 비로봉을 비롯하여 세존봉 · 미륵봉 · 아미봉 · 금강문 · 극락현 등이 보인다.

그리고 조선조까지만 해도 많은 절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유점사 · 장안사 · 신계사 · 표훈사등을 4대사찰(四大寺刹)이라 하였다는데 현재는 표훈사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외금강(外金剛)은 금강산 동쪽에 자리잡고 있는데 큰 폭포와 수많은 계곡과 뾰족한 봉우리들의 모습이 웅장하고 당당하여 남성적 아름다움을 풍긴다고 한다. 우리 일행들의 금강산 관광 제1일차 코스는 외금강의 구룡연구역이다. 목란관을 지나 수림대 · 앙지대 · 금강문 · 옥류동 · 연주담 · 비봉폭포 · 구룡폭포 · 상팔담으로 이어지는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절경인 곳이다. 수림대를 지나는데 미끈미끈한 각선미를 자랑하는 미인송(美人松 · 赤松)이 나를 반기드니 곧 이어서 깍아지른듯한 세존봉과 옥녀봉에 둘러싸여 기이하고 절묘한 경치가 황홀할 만큼 아름다워 일상생활에 지친 영혼을 씻어내고 싶었다.

〈구룡폭포 앞에 선 필자〉

우리 일행들이 금강산 입구에 들어서면서 "금강산아! 내가 왔다!"고 외치면서 신고를 했는데 산신(山神)이 허락하지 않았는지 생김새가 특이한 금강문을 통과하니 궂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계곡 건너편 위쪽 봉우리 위의 토끼바위에 관한 전설에 취해 올라가니 수정같이 맑은 구슬이 되어 흘러내린다고 해서 옥류동(玉流洞)이라는 계곡에 닿는다. 춘원 이광수는 여기서 "바위는 백옥(白玉)이요 흐르는 물은 벽옥(碧玉)이라 碧玉이 白玉으로 흐르니 玉流인가 하노라"라고 〈금강유기(金剛遊記)〉에서 읊조렸다. 주위의 그윽한 숲과 바위, 물, 구름, 안개 등이 조화를 이루는 대자연의 신비와 조물주의 장엄한 솜씨에 탄성이 절로 나온다. 여기서 〈동(洞)〉은 '깊이 파인 구렁'을 뜻한다. 그리고 옥류동폭포는 누워있는 '와폭포(臥瀑布)'다. 그곳에서 조금 올라가면 구슬처럼 아름다운 두 개의 담소(潭沼)가 비단실로 꿰어 놓은 듯 연이어 있는 연주담(連珠潭)이 있고 그 위의 거대한 벽을 타고 내리는 비봉폭포의 물은 비단폭처럼 보이고 바람이 불면 흘러내리는 물이 물안개처럼 피어올라 봉황새가 나는듯하다하여 비봉폭포(飛鳳瀑布)라고 이름지었다 한다. 은사류에서 구룡폭포(九龍瀑布)가 빤히 보이는데 상팔담을 먼저 보기 위해 구룡대(九龍台)로 길을 잡았다. 오르는 길이 너무 가파라서 곳곳에 쇠다리를 설치하여 놓았다. 눈이 내려 미끄러워 쇠다리에 매달려 겨우 오르는데 갑자기 뇌성벽력이 치면서 우박이 쏟아지는 사나운 날씨로 변해 고생하면서 상팔담을 볼 수 있는 전망대까지 갔지만 농무가 자욱하여 지척을 분간할 수 없어 비좁은 계곡에 맑은 물을 담은 작은 여덟 개 구슬을 꿰어 놓은 듯한 상팔담을 볼 수 없어 다리에 힘이 쭉 빠졌다. 이곳이 '선녀(仙女)와 나무꾼'의 전설이 전하는 곳인데 내금강 만폭동의 팔담(八潭)과 혼돈을 피하기 위해 상팔담(上八潭)으로 고쳐 부른다고 한다. 구룡폭포는 금강산에서 제일 웅장하고 유명한 폭포인데 절벽과 바닥이 커다란 한 덩이의 화강암으로 되어있고 높이가 74m이다. 이 폭포는 설악산의 대승폭포와 개성의 박연폭포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폭포(三大瀑布)에 속하며 옆 바위에 〈미륵불(彌勒佛)〉이라는 세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다. 이 미륵신앙은 항상 물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또 토속신앙 가운데 용에 대한 신앙이 미륵신앙으로 전환되었다는 설도 있다. 천하명산인 금강산은 각 봉우리와 계곡 · 바위마다 숱한 전설이 전하고 있어 역사와 문화가 함께 숨쉬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산을 그동안 북에서 너무 깨끗하게 가꾸고 보존하고 있어 고마웠지만 한 가지 눈에 거슬리는 것은 산의 곳곳에 북측(北側) 지도자의 예찬과 체제를 선전하는 문구를 커다랗게 파 놓아서 아름

다운 산의 자연경관을 훼손하여서 안타까웠다.

(4)

금강산관광의 2일차는 해금강코스다. 해금강(海金剛)은 산과 호수와 바다가 함께 어우러지는 절경인데 해만물상(海萬物相)과 삼일포(三日浦)의 두 지역으로 나눠서 관광을 하는데 우리들은 해만물상이 있는 바다 쪽으로 향하였다. 도로 연변의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선전용 현수막과 광고판이 온통 붉은 색으로 도배한 것 같아 어지러웠고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지만 같이 흔들어주는 사람들은 드물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시선을 피하거나 외면하였다. 온정동과 해금강 사이에는 제법 넓은 고성평야가 있는데 들에서 일하는 주민들이 가끔 보였고 좀 떨어진 곳에는 6.25동란때 허물어진 옛 고성역사와 파괴된 철교의 잔해가 강에 걸려있어 아직 전쟁의 상흔으로 남아있다. 이중철조망이 처져있는 민간인 출입통제구역 출입문에 도착하니 〈섯〉이라는 표지판이 있는데 〈섯〉이란 용어는 우리 용어로는 〈정지〉 혹은 〈일단정지〉와 같은 용어라고 가이드가 설명하면서 한가지 퀴즈를 냈는데 여성의 〈브래지어〉를 북에서는 무엇이라고 할까? 대부분이 '젓마개', '젓가리개', '젓싸개' 등 여러 답이 나왔는데 정답은 '가슴띠' 라고 하여 한바탕 웃었다.

또 가이드가 몇 년전에 서울 모대학교 여학생 몇 십 명이 단체 관광을 와서 도로 곳곳에 표정 없이 장승처럼 서있는 경비병들을 한번 웃겨보기로 작정하고 경비병들 앞을 지나가면서 입을 모아 오빠! 라고 크게 합창하여 그들을 웃기고 손까지 흔들게 하여 금강산에서 톡톡히 오빠부대 노릇을 했다는 일화를 들었다. 원래 해금강은 외금강의 동쪽 해안에 있는 명승(名勝)인 삼일포(三日浦)와 남강하류의 남쪽으로 영랑호와 화진포에서 총석정 일대까지 포함하는 약 30km를 해금강구역이라고 하지만 우리들에게 개방된 해만물상은 입석과 부처바위, 촛대바위, 금강문, 죽봉등이 펼쳐져있는 기암절벽과 바다의 푸른 물결이 어울러져 있는 아름다운 해안이었다. 여기서 남쪽의 통일전망대가 희미하게 보인다.

남측의 최북단인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다보는 해금강과 해금강에서 남측의 통일전망대를 바라보는 심정이 묘하고 착잡하였다. 땅덩어리는 크지 않지만 우리처럼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흔치 않을 것인데 이러한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살면서 아직까지도 우리는 50여년동안 이 분단의 장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 총을 맞대고 적대시하며 비방하고 대립하고 있을까? 이러한 현실이 우리들을 너무 슬프게 한다. 다음으로 해금강구역의 마지막 코스인 삼일포로 갔다.

삼일포(三日浦)는 관동팔경의 하나이며 동해안 호수의 특징인 파도나 해류의 작용으로 모래나 자갈이 싸여 만입구가 막혀서 생긴 자연석호(潟湖)로 신라의 화랑인 영랑을 비롯한 네 사람이 이곳의 경치에 반해 3일간 머물고 갔다고 하여 생긴 이름인데 지금은 주위의 구릉에 있는 큰 바위엔 김정숙장군(김정일 어머니)의 업적을 선전하는 문구가 새겨져있어 혼란스럽다. 호수의 둘레가 8km이고 수심이 9~13m라고 하는데 호수 안에는 와우도(솔섬)와 사선정 및 단서암들이 있고 주위엔 장군대, 연화대, 봉래대등이 있어 좋은 전망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곳에 서면 삼일포가 한 눈에 들어온다. 그중에 봉래대(逢萊台)는 조선시대 시인이며 명필가인 양사언(楊士彦)이 공부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글씨가 지금도 금강산 만폭동 바위에 〈봉래풍악천화동천(蓬萊楓嶽天化洞天)〉 8자가 남아있다고 한다.

(5)

금강산온천은 원래 북한해군소속 건물이었는데 現代에서 개축하여 온천탕으로 만들었으며 무색무미의 중탄산 나트륨 성분의 온천수(溫泉水)로 피부병과 신경통, 만성스트레스 해소의 효능이 있다고 하며 욕탕 천장 중앙에는 투명재로 피라밋드 꼭대기형처럼 만들어 햇빛이 많이 들어와 금강산정기를 많이 받도록 했는지 모르겠다. 한번에 수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온천탕에는 대중욕탕, 개별욕탕, 노천탕으로 나눠져 있는데 특히 노천탕(露天湯)에서 금강산 영봉을 바라보면서 일광욕을 즐기는 재미는 일품이다.

그리고 온정각 휴게소는 단층으로 굉장히 넓은 건물인데 지붕에 사용한 기왓장이 12000장이라고 한다. 관광식당 2개와 상품판매장 및 휴게실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 종사하는 판매장 종업원들과 운전기사들은 모두 중국에 사는 조선족들이라고 한다. 아마 북측에서는 주민들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문화회관에서 그 유명한 평양 모란봉교예단공연을 보았는데 관람료 25~30$로 비싼 편이지만 신기에 가까운 그들의 재주를 보고 있으면 탄성이 절로 나온다. 교예내용은 눈꽃조형, 널뛰기, 봉재주, 장대재주 등이었는데 공연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했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놀라면서 힘껏 박수를 치면서도 왠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으며 자꾸만 눈물이 나왔다.

(6)

이번 우리들은 금강산에서의 교육과 관광을 통하여 남북교류현장에서의 귀중한 체험을 했으며 남북화합과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없을까를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가졌다. 비록 짧은 2박 3일간의 방북기간이었지만 금강산은 역시 소문대로 세계적인 명산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그리고 북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주민들도 언젠가는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내 동포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전국문화원사무국장들에게 금강산관광을 시켜준 문화관광부와 전국문화원연합회의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문

특집 금강산 기행 ③

"금강산아 내가 왔다"

권 태 하
작가
동대문문화원 사무국장

우리 땅에 불교가 성행했던 고려시대 "동북쪽 바다에 금강산이 있으니 담무감 보살과 1만2천 보살이 항상 반야심경을 설법하고 있다."는 화엄경 속의 금강산에 한때나마 TV반공드라마(113수사본부)를 집필했던 내가 발을 디딜수 있다니 감격에 겨워 가슴이 멍했다.

3월 14일 오후 3시 18분. 북으로 가는 현대 아산의 설봉호 선상 방송은 우리 일행이 그 시간 남북 분계선을 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분단 50년. 155마일 철책으로 허리가 잘린 육지와는 달리 바다는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 그곳에는 흉물스런 철조망도 없었고 분계선을 알리는 부표도 없이 파도는 하나로 이루어져 육지쪽을 향해 출렁이고 있었다. 흐린 날씨로 인해 비록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지는 않았지만 수평선 멀리 아스라이 바라다 보이는 육지 또한 내 눈에는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하나가 되어 그렇게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 시간 설봉호 객실에서는 우리가 소지한 휴대폰, 줌랜즈 망원경 등을 수거했고, 저들을 비방하거나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고 저들이 신성시하는 표지나 바위에 새겨진 글발에 손가락질을 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는 교육이 이어져 선창 밖으로 바라다 보이는 하나가 결코 하나가 아님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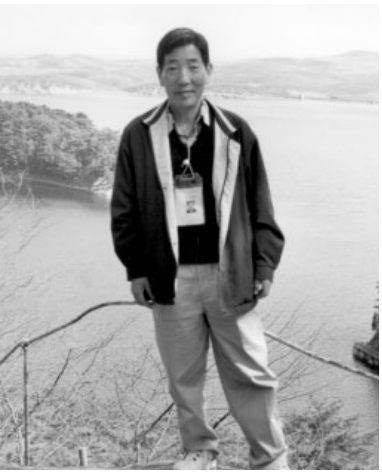
3시간 30여분의 항해 끝에 우리가 다달은 항구는 옛 고성읍이 건너다 보이는 장전항 부두였다. 함께 간 480여명의 설봉호 승객중 전국문화원사무국장일행 170여명과 경실련 등 단체가 묵기로 예정된 해금강 호텔로 가기 위해 북한 세관을 통과하여 나오면서 언뜻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금강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아! 금강산!

모두의 입에서 저절로 탄성이 쏟아져 나왔다. 금강산은 설악산과는 달랐다. 산아래 바로 밑에 가서야 비로소 쳐다보이는 설악산과는 달리 금강산은 마치 호수같이 잔잔한 장전항 부두에서 한눈에 그것도 마치 70밀리 대형화면에 가득히 펼쳐지듯이 스팩터클하게 다가왔다.

하도 경치가 아름다워 봄이면 금강산, 여름이면 봉래산, 가을이면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 불리어지는 명산 중의 명산, 세계의 명산을 이렇게 가까이 와서 올라볼 수 있다니!

모두들 가슴이 벅찬지 말이 없다.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외금강의 봉우리들을 바라보니 어떤 것은 화살촉 같고 어떤 것은 매 같고 또 어떤 것은 달걀(이북에서는 닭알바위라 한다) 같고....


삼일포에서 필자

「성군정치 만세」, 「걸출명장 김정일 장군」거대한 바위에 새겨진 글씨 또한 그렇게 낯설게만 느껴지는 것은 아니었다.

철책을 따라 드문드문 경비를 서고 있는 앳된 인민군들. 그 표정이 비록 무표정 일변도였지만 적대감은 커녕 정감이 솟구쳤고 머리통보다 큰 모자를 쓴 모양에 나도 몰래 입가에 미소가 스친다.

돌아가신 내 아버지께서 학창시절 수학여행으로 가 보셨다는 금강산 전철역은 어디쯤 있을까? 아버지께서는 철원역에서 경원선 기차를 하차하여 내금강역까지 전철을 타고 가셨다고 했었지. 그러나 이제는 녹슬은 동해북부선 철길만이 낡아서 못쓰게 된 전봇대와 나란히 온천욕을 하기 위해 온정리로 가는 버스 차창 밖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내 살붙이 하나 살지 않는 북녘땅이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따뜻한 햇볕을 그토록 씌웠어도 변함이 없는 그들이 얄미워서 그랬을까. 나는 그동안 내 주변에서 많은 이들이 「햇볕」이 '소용있다', '소용없다' 논쟁을 해도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아니었다. 그동안 쪼인 햇볕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우리 눈에 그 증표가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 일행이 북한주민들에게 손을 흔들었을 때 아직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무표정하였지만 어떤 이들은 답례로 손을 흔드는 것이 눈에 보였다.

처음 금강산을 다녀온 이들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관광객이 탄 버스가 지나가면 북한 주민들은 숨거나 외면을 하더라고만 했다. 관광객 속에 북한기관원이 숨어 있다가 불쑥 튀어나와 벌금을 물리거나 트집을 잡는다고 했지만 내 눈으로 본 현재의 금강산 북한인들은 요소 요소에만 남녀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서 있었고 억지로 일지는 모르나 겉으로는 미소를 띤 모습으로 내가 권한 남한 담배도 결코 거절하지 않았다. 예전에 다녀간 이들이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면 이 또한 햇볕의 효과임이 분명하다.

"토요일은 반공일이라 학생들이 오전 수업만 하는게 아니냐?"고 내가 물었을 때 '반공일'이라는 단어와 '수업'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여 말뜻을 모르는 그들이 답답하기는 했지만 말과 피가 통하는 그들은 확실히 내 동포였다.

비봉폭포를 지나 구룡연으로 오르는 산행 또한 가파르지 않고 또한 그들이 존경스러울 정도로 산과 물이 깨끗했다. 게르마늄 성분이 너무 강하여 프랑크톤이 살지 못하다보니 물고기 한 마리 없다는 금강산 물은 그냥 손으로 퍼 마셔도 입에 달았다.

그러나 그 모든 산수의 경치보다도 내 마음에 와 닿은 것은 못사는 집에 딸아이를 시집 보낸 것 같은 아린 마음으로 북한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측 관광안내원이 목란관을 통해 금강산에 들어서면서 일행들에게 "금강산!"하고 선창하면 우리 모두는 금강산이 떠날 정도의 큰 목소리로 "내가 왔다!"하고 외쳤다.

문화관광부에서 지방문화진흥의 진원지인 문화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고 특히 지방문화원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사무국장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해마다 전국을 돌며 해왔던 연수교육을 금년에는 금강산에서 하게 된 것은 참으로 효과적이고 고마운 배려였다.

50년 동안 꽁꽁 얼었던 얼음이 4~5년의 짧은 햇볕으로 다 녹을 리가 없고 2박 3일의 짧은 여정으로 금강산을 다 볼 수도 없지만 그러나 타도해야 할 집단으로만 보아왔던

그들이 내 동포임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은 문화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관에게 참으로 감사드릴 배려였고 감동적인 격려였다.

마지막날 해금강을 관광하며 남쪽을 향해 바라보니 멀리 통일전망대가 아련히 시야에 들어왔다. 하도 경치가 좋아 임금께서 3일을 묵었다하여 '삼일포'라 칭했다는 삼일포 관광을 끝으로 우리는 귀로에 올랐다.

돌아오는 날 삼일포로 가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따뜻한 해풍(海風) 때문일까 산비탈 양지바른 곳에 어느새 진달래가 활짝 피어 있었다.

동토의 땅. 금강산에 그렇게 봄이 오고 있었다.

문화관광부 남궁진 장관님 그리고 전국문화원연합회 이수홍 회장님 두분의 존함을 우리 일행들은 눈에 삼삼이는 금강산과 더불어 오랫동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문

특집 금강산 기행 ④

금강산-다시 가고 싶은 이유

김 정 희
광주 서구문화원 사무국장

먼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좋다고 했던 이는 베르그송이었을까? 오래동안 신비속에 감추어져 있던 금강산은 그 이름만큼이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산이었다. 얼마전 금강산을 다녀오신 김 종 원장님은 '금강산에는 지금도 선녀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금강산의 신비함을 형상화하여 그리셨다. 금강산을 돌아보고 온 지금의 나는 그 선녀를 만나고 온 느낌이다.

광주 · 전남의 문화원 사무국장 일행 26명은 광주터미널에서 일정 하루 전인 13일 밤에 만나 속초로 향했다. 어두운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내가 머지않아 만나게 될 낯선 곳을 그려보자 마음은 벌써 한껏 설레이고 있었다. 여행은 익숙한 것들과의 짧은 결별이다. 이미 익숙해진 것들을 뒤로 하고 낯설음을 찾아 떠나는 길, 그것은 단순한 설레임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영원성과 진실성을 돌아보는 반추의 시간이다. 속초항의 새벽바다는 사선으로 날던 몇마리 새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물빛, 그리고 확실하게 선을 그은 수평선이 싱싱한 기운으로 다가왔다.

승선 절차는 지루했다. 설봉호에 오르자 반세기만에 열렸다는 바닷길은 부두를 배경으로 파도의 출렁거림마저도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다. 얼마를 달렸을까? 하룻밤을 꼬박 세우고 배를 탄 때문인지 주체하기 힘든 흥분속에서도 끈질긴 졸음이 몰려왔다. 갑판을 몇차례 서성거리면서 망망대해를 향해 '금강산아, 내가 지금 너를 만나러 가노니 기다려라' 참으로 사소하지만 꽤 당당한 화두같은 중얼거림을 던져보기도 했다. 다섯시간 남짓한 항해를 마치고 장전항 부두에 닿았다. 또 다른 세상과의 만남은 입국수속을 맡은 직원들의 무표정한 모습에서 지레 주눅드는 것으로 시작됐다. 우리 일행은 숙소인 해금강 호텔에 짐을 내려 놓고 석식이 준비된 온정각으로 가는 셔틀버스에 올랐다. 해가 벌써 기울고 있었다. 바람이 낯선 땅의 구름을 몰고 다녔고 왠지 길을 잃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서먹한 느낌에 나는 자꾸만 주위를 두리번 거리며 일행의 뒤를 쫓아다녔다. 온정각 맞은편에 '천하제일의명산금강산'이라는 글귀가 붉은색 바탕에 흰글씨로 선명히 쓰여 있었다. 도대체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라고는 없이 불빛 한 점 새어 나오지 않는 회색건물이 의문부호처럼 저무는 산 아래 쓸쓸히 잠기고 있었다. 그래, 이곳까지 이동해 오는 동안에도 온정리 마을의 집들은 참으로 기묘한 정적을 이기고 있었구나. 내가 떠나온

도시의 밤은 지금쯤 얼마나 많은 색채로 빛나고 있을지… 그나마 착한 나무꾼의 우화를 소재로 세워진 벤치의 촬영 세트(?)에서 일행들은 열심히 셔터를 눌러댔다. 깨끗하고 정갈하게 마련된 저녁식사는 뷔페식이었다. 맛이 가장 오래 남는 추억이 된다고 했던가. 이곳에서의 식사가 시간이 지나면 향기로운 추억으로 남으리라.

저녁식사후 호텔의 한 공간을 빌려 문화원별 사례발표와 설문조사,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문화원의 실질적인 살림과 행사의 기획을 맡고 있는 사무국장들의 현장 이야기들은 절실한 현안 위주였다. 모두들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문화의 한 풍속을 만들어간다는 사명감으로 일하는 것이 느껴졌다. 늦은 시간까지 토론과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국의 밤처럼 바다위에 세워진 해금강 호텔의 저녁은 그렇게 깊어갔다. 저 편에 우리가 타고온 설봉호의 불빛과 호텔 발코니에 마련된 자유 낚시터, 물위에 어른거리는 수은등…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이 아는 만큼 알 필요도, 꼭 그만큼 성공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이렇게 숨막히게 아름다운 곳을 볼 수 있는데. 잠시 엉뚱한 상상을 하면서 고성항에서의 첫 밤을 맞았다.

해금강에서 필자

이곳에서의 이틀째인 15일 우리 일행은 금강산 상팔담과 구룡연 코스로 일정을 잡고 산행을 서둘렀다. 조금 흐린듯한 날씨였다. 하지만 일행들은 조장의 깃발을 따라 씩씩한 발걸음을 옮겼다. 양지마을과 온정리 마을, 용계리마을을 지나 태창에서 지었다는 금강산 샘물공장도 흘깃 쳐다 보았다. 금강산의 풍경은 판에 박은 감탄사만으로는 정말 모자랐다. 내 어설픈 모국어로는 다 그려낼 수 없는 진한 충격이 일었다. 산의 중간 쯤 올랐을 때 거짓말처럼 우박이 쏟아졌다. 산은 온통 운무에 쌓여 지척을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순식간의 일이다. 누군가 아름다움을 훔치러온(?) 우리들을 시기하는 것일까? 그러나 우리는 멈출 수가 없었다. 아니 돌아갈 수 없었다. 산의 뼈를 만지듯 이 순간만은 예술가의 거대한 영감을 안고 앞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바위 곳곳에 아프게 새겨진 요란한 구호들이 이데올로기의 덫처럼 마음을 심란하게 했다.

악천후를 무릅쓰고 천신만고 끝에 오른 상팔담은 물소리만 들려올 뿐 발아래는 온통 구름밭이었다. 누군가 아름다움은 늘 순간이었다고 했지만 이 아름다움만은 영원하리라. 여행에의 기억은 두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발에 새겨진다고 했다. 처음의 기억이 너무 아름다웠다면 시간이 지난 후 그곳을 다시 찾지말라고도 한다. 글쎄, 나는 진실로 이 산에 다시 오고 싶은 것을, 새 한 마리 날지 않는 바위와 바람과 물이 내 영혼까지 묶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산에서 내려온 후 아치형 돔으로 만들어진 극장에서 평양교예단의 공연을 관람했다. 배우들의 까만 눈빛과 주체 발성법을 하는 여자 사회자의 씩씩한목소리, 아주 어린 날 보았던 동춘써커스 같은 곡예… 공연은 충분히 즐거웠지만 왠지 가슴이 아렸다.

이튿날은 삼일포와 해금강을 둘러 보았다. 군데 군데 미동도 않고 서 있던 군인들과 남녀가 조를 짜서 안내하듯 다가오던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해금강은 깎아세운 듯 신비스러운 절벽바위와 기암, 미인송 , 해송들이 말 그대로 절경이었다. 저 유명한 중국의 소동파도 '고려국에 태어나 금강산 한 번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다지. 이 땅에 살면서 피나게 금강을 그렸던 겸재와 단원, 최북 그 예인들의 삶을 다시 생각해본다. 그리고 아아 금강산을 꿈결같이 기억한다. 문

금강산 가는 길

안 용 산 시인 · 금산문화원 사무국장

설레임이다 따뜻한 햇살처럼
남쪽에서 북쪽에서 서로
그리워하는 바람 서둘러
자맥질하는 뱃길 따라
오르내리며 찾아가는 길

갖은 배낭과 옷차림처럼
다양한 생각과 꿈을 진 채
금강산 오르내리는 동안
보았다 모두 비슷한
옷과 배낭을 진 사람들을
일터에서 길에서 부딪치면서
더러는 저 배낭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궁금해 하기도 하였지

우리가 알려고 하는
그 마음처럼 배낭 속엔 서로
그리워하는 햇살 들어있다는 것을
보았다 비록 비 내리고
우박이 쏟아지고 천둥이 내려칠지라도
비 그친 하늘 넉넉하게 쏟아지는
햇살의 무게를 누가 잴 수 있겠느냐

우리 땅 하나가 되어
그리운 금강산을 불렀던
노래처럼 보았다 서로
빗속을 뚫고 전해지던
애잔한 눈짓과 목소리를
이것은 추억이 아니다
비를 뚫고 찾아온
찬란한 햇살이다 아니
우리 서로 살 수 있는 그래서
거듭 오르고 내려야 할
우리 민족 갈 길이다

놀라운 일이었다. 금강산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동안 헤어져 있던 우리 겨레가 함께 얼굴을 맞대고 함께 손을 잡으며 약간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아주 천천히 같은 의미로 접근해가는 의사소통을 하는 일은 진정 놀라운 일이었다.

오후 6시에 도착하여 우리 일행은 해금강호텔에 여장을 풀자마자 온정리 온천으로 향하면서 처음으로 접하는 북측의 공기를 호흡하고, 2백미터 간격으로 서 있는 인민군의 모습을 보면서 간혹 저쪽 길 건너로 보이는 다른 길로 다니는 우리 겨레의

해금강

특집 금강산 기행 ⑥

금강산에서 맞잡은 겨레의 악수

김 준 혁
나주시문화원 사무국장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참으로 감회가 깊었다. 북에 헤어진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북에서 월남한 사람의 후손도 아니건만 정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몇 년 전에 기아상태의 어린이들의 불룩한 배를 보면서 눈물을 쏟았던 일이 생각났다. 우리 나주에서 북한에 통일쌀 보내기 운동을 하던 선후배들의 모습이 나의 뇌리에 선연히 떠올랐다.

온천욕은 뒤로 미루고 다른 일행과 대화를 나누며 저녁식사를 하게 될 온정각 휴게소를 향하여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가 정말 좋았다. 그곳의 사람들 역시 우리와 같은 한 겨레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나의 선입견이 굳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저런 생각은 접고 온정각 휴게소에서 주변의 경관을 둘러보며 여유있는 시간을 가졌다.

금강산은 정말 아름다운 산이다. 금강이란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침범할 수 없는 단단함을 일컫는 말이다. 원래는 불교적인 의미가 크지만, 나에게는 마치 우리 민족이 수천 번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굳게 이 강산을 지켜온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느껴졌으며, 내 눈에도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아름답고 소중한 보물로 보였다. 크고 작은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까닭에 비만 오면 산 전체가 크고 작은 폭포가 될 것을 상상하였다. 그 아름다운 금강산에 한 번 구경오는 것이 소원이던 예전 우리 선조들의 풍류를 돌이켜 생각하면서 과연 그럴 만한 산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실제로 우리 나주에는 일제 강점기에 영산포역에서 기차를 타고 금강산을 구경하면서 그 모든 내용을 칠언절구로 기록했던 한학자도 있을 정도다.

다음 날 우리는 구룡폭포를 올랐다. 금강산의 수려한 풍광도 좋았지만 곳곳에 배치된 북측 청년들과 함께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정말 가슴 벅찬 기쁨이었다. 한 청년은 우리에게 민족문화를 지키는 분들이라고 들었다면서 정말 중요한 일이니 열심히 일해주기를 바란다며

말하는 것이었다. 가히 일국의 대통령의 발언에 해당하는 발언이었다.

큰 암벽마다 새겨진 글발과 구호가 눈에 들어왔으나 그 역시 위에서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북측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의에 의한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환경파괴라는 생각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중간쯤 올라가니 김일성 주석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50회 생일을 기념하여 내린 친필 칠언절구와 한글로 번역된 시가 새겨져 있었다. 웅혼하면서도 물 흐르는 듯한 필력이 느껴지는 필체였다. 북측 청년들의 말에 의하면 금강산과 묘향산에 이러한 글발이 많이 새겨져 있으며 다른 곳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었다.

맑은 계곡을 따라 오르는 산길은 그렇게 가파르지도 않고 거의 산책코스에 해당하는 그런 길이었다. 비가 왔기 때문에 안개가 산봉우리를 순식간에 먹었다가 토해내기를 반복하였고, 우리는 그런 금강산의 매력에 혹하여 아픈 다리도 잊은 채 산을 오르고 있었다.

최종 목적지인 구룡폭포에 도착하자 장쾌한 폭포수 쏟아지는 물소리, 그 옆에 큰 글씨로 '미륵불(彌勒佛)'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북측의 체제나 지도자를 찬양하는 글발만 새겨진 곳에서 유일하게 새겨진 색다른 글씨였다. 알고 보니 1919년 조선의 독립을 기원하며 해강 김규진 선생이 썼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필이면 미륵불이었을까. 이곳에 2002년 3월에 '미륵'의 아버지가 올 줄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었다. '미륵'은 나의 4살 박이 아들 이름이기 때문이다.

금강산의 날씨는 해가 보이다가 비가 오다가 우박이 쏟아지기도 했다. 우박이 쏟아질 때는 정말 10미터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짙었기 때문에 나는 상팔담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내려왔다.

다음날 해금강과 삼일포로 길을 잡았다. 해금강과 삼일포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비무장지대 민통선 안에 있는 절경이다. 비교적 날씨가 좋아 멀리 강원도 고성군의 통일전망대 있는 곳이 가물가물 보였다.

함께 간 조장(가이드)에게 초기 금강산 관광때의 일화가 많지 않았느냐고 질문했더니, 한 번은 해금강에 오는 길에 북측의 군인이 차를 세워 맨 뒤에 탄 사람을 내리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창문에 웬 사진을 붙였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말인즉, 한 달 전에 할머니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평생의 소원이 고향인 금강산에 와보는 것이었다는 말이었다. 그래서 돌아가셨지만 사진으로라도 금강산 구경을 시켜드리는 것이라고 울면서 말하자 북측의 군인이 자신도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인간인데 그걸 떼라고 할 수 업슴메다. 그냥 붙이고 다니십시요. 나는 못본 것으로 하겠슴메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는 나도 순간적으로 눈물이 핑 돌았다. 사실 여러 가지가 눈물이 핑 돌게 하였다. 북측 청년과 단지 몇마디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눈물이 핑 돌았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고 반가움을 표현하는 정도에서 끝나야 한다는 사실도 슬프게 느껴졌던 것이다.

금강산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다.

또한 그냥 아름다운 산인 것만은 아니다. 아직은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와서 북한 공기를 마시고 북한의 물을 마시고 금강산을 보았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말 아직은 그것만으로도 좋은 것 같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북측에 도움이 되고, 남북한간의 의견차이가 좁혀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그 사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금강산에 많은 것을 두고 왔다. 북측 청년들과의 좀 더 다정다감한 대화를 두고 왔고, 평양 모란봉교예단의 교예공연도 나중에 보려고 아껴 두었으며, 관광 차원에서는 오를 수 없게 된 금강산의 정상 비로봉도 밟지 않았으며, 아름다운 금강에 살고 그곳을 가꾸고 싶은 나의 마음을 두고 왔으며, 또한 우리 겨레가 하나가 되는 그날을 기원하는 나의 진심어린 기도를 두고 왔다.

(후기 : 이번 금강산 여행은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매년 해왔던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연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업이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금강산 관광이 남북의 격차를 줄이고 의식의 차이를 줄이며 또한 화해의 현장이 되어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 자리를 빌어 연합회와 문화관광부에 감사 말씀 드린다.)

3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전주공용버스터미널에 집결한 전북도내 문화원 사무국장들은 속초행 직행버스에 몸을 싣고 11시 정각에 전주를 출발했다. 전주에서 속초까지 넉넉잡아서 다섯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도중에서 마음놓고 식사를 할만한 겨를도 없이 대전 유성, 강원도 원주, 횡성, 홍천, 인제, 원통 등 중간 정류장에 들러 길면 10여분 짧게는 2~3분을 쉬었다가 바로 출발을 하는데도 무려 일곱 시간이나 걸리는 바람에 집에서 준비해간 오리알 두 개씩과 간단한 음료수로 점심을 대신하면서 긴긴 여정에 시달려야 했다.

채 녹지 않은 잔설(殘雪)이 한겨울을 연상케 하는 설악산의 미시령을 넘어 저녁노을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운 석양무렵 속초시에 도착해 숙소를 정하려고 돌아다니다가 주택가 정원의 목련과 개나리가 꽃망울을 활짝 터뜨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오히려 남부지방보다 봄소식이 먼저 와있는걸 보니 금강산지역도 그렇게 춥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어 한결 마음이 가벼웠다. 민박집에 방을 잡아 여장을 풀고 속초여객선터미널 부근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몇 잔으로 노독을 달랜 뒤 숙소로 돌아와 내일의 여정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특집 금강산 기행 ⑥

봄이 오는 금강산에서

김 희 선
정읍문화원 사무국장

3월 14일 새벽에 잠에서 깬 일행들은 동명항 부근 해안도로를 산책하고 돌아와 아침식사를 한 뒤 현대아산이 금강산관광객들을 위해 따로 마련한 여객선터미널 대합실로 나가보니 전국의 문화원 사무국장 170여 명을 비롯한 일반관광객 등 600여 명이 모여들어 북한에서 사용할 달러를 환전하고 2박 3일 동안의 단체행동에 필요한 반과 조를 나누느라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출국신고를 하고 설봉호에 올라 정해진 좌석에 앉아 출항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역만리 타국을 가는 것도 아닌데 달러를 바꿔야 하고 출국신고를 해야한다고 법석을 떠는 현실이 무척 안타까웠다.

12시 30분에 속초항을 떠난 설봉호는 고성항까지 네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공해상으로 우회하지 않고 직행을 한다면 한 시간 남짓이면 도착하고도 남을텐데 아까운 시간과 연료를 허비해야하는 불편을 언제까지 겪어야 될지 모르겠다. 선실에서 V.T.R을 통해 방북에 따른 교육과 관광안내교육을 받고 반입금지품목인 핸드폰 등을 보관시킨 뒤 무료함을 달래려고 도내 국장들과 술잔을 기울이다보니 16시 30분쯤 고성항에 도착해 통관절차와 입국수속을 마치고 말로만 들어오던 북한 땅을 직접 밟아보고 숙소인 호텔해금강 604호실에 여장을 풀었다.

호텔해금강은 바다위에 떠있는 해상건물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이며 베트남에서 건조해 예인선을 이용해 이곳까지 끌고 와서 정박을 시켰다고 하는데 어지간한 바람에는 끄떡도 하지 않을 만큼 완벽함을 자랑한다고 한다.

산천이며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낯설지 않은데 고성항 부두의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는 북한 노래를 듣노라니 북한 땅에 와있다는 사실이 실감 난다. 호텔 앞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금강산온천장에 도착해 원하는 관광객들은 온천욕을 즐기고 나머지는 산책로를 따라 온정

각휴게소까지 걸어 내려와 북한토산품 판매점에서 쇼핑을 하는 등 자유시간을 갖은 뒤 현대백화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뷔페식 저녁식사를 하면서 어둠이 살며시 장막을 드리우는 북한 산천을 바라보니 감회가 새롭다.

살아 계셨으면 올해로 99세이실 선친께서 지금부터 77년 전인 스물세살 때 이곳 금강산을 다녀가셨다고 들었다. 교통이나 숙박시설이 형편없던 시절에 정읍에서 꼬박 26일을 걸어서 이곳에 오셨다가 열흘정도 구경을 하시고 다시 한 달을 걸어서 귀가하셨다고 하니 금강산 유람을 위해 투자된 경비도 만만치 않았겠지만 오고 가실 때의 고생인들 오죽 했겠는가? 요즘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못했을 용기임에 틀림이 없다. 아버님께서 살아 생전에 늘 입버릇처럼 "사내 대장부로 태어났으면 금강산 구경은 꼭 한번하고 죽어야 하는데 나는 다행히 그 꿈을 이루었다만 가로막힌 휴전선 때문에 너는 금강산 구경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금강산 구경을 하신 걸 무척 자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런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신지도 벌써 23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금강산에 와서 지난날의 추억들을 더듬다보니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젖어온다.

이런저런 생각에 사로잡혀 저녁식사를 마치고 셔틀버스를 기다렸다가 9시가 넘어서야 숙소인 호텔해금강으로 돌아왔는데 제12차 전국문화원 사무국장 교육이 있다고 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2층 회의실로 올라갔다.

개회식에 이어 열린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북한에서의 첫 밤을 보냈는데 룸메이트는 고창문화원의 최이수 국장이었다. 바다 위에 지어진 해상호텔이라서 파도가 칠 때는 다소 흔들릴 줄 알았는데 제법 큰 물결이 출렁이는데도 미동도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건조솜씨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왠지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다가 머리맡에 놓여진 텔리비젼의 스위치를 켰더니 뜻밖에도 한국의 방송들이 고스란히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었다.

심신은 지치고 피곤해서 파김치가 되었지만 꿈에도 그리던 금강산을 내일이면 직접 밟아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 때문인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는데 모닝콜 소리에 잠이 깨고 말았다.

숙소인 호텔해금강 1층 레스토랑에서 뷔페식 아침식사를 마치고 셔틀버스를 이용해 온정각 휴게소로 가 잠시 쉬면서 기념촬영을 하고는 금강산관광 1일차 코스인 구룡연을 향해 출발을 했다.

금강산 관광코스는 구룡연(외금강), 만물상(내금강), 삼일포(해금강) 등 세 개가 있는데 2박 3일의 짧은 일정 때문에 만물상코스는 생략하고 다른 두 곳만 보게된다는 조장(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신계사 터를 지나 주차장에 버스를 세워두고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날씨가 잔뜩 흐려지는가 싶더니만 제법 굵은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좀처럼 그칠 것 같지가 않다. 우의를 준비하지 않은 탓에 꼼짝없이 비를 맞으면서 걷다보니 목란관(식당)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다.

아직은 오염이 안된 태고적 자연형태를 간직하고 있는 천하의 절경 외금강 입구에 식당건물을 지은 것은 옥의 티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금강산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나무는 소나무였다.

온산에 빽빽하게 늘어선 낙락장송들의 장엄한 모습에 감탄사를 연발하며 '금강산에 있는 소나무라고 해서 금강송(金剛松), 미인의 각선미를 연상케 한다 하여 미인송(美人松), 옛날 왕실의 국상 때 관을 짜는 재료로 사용했다 해서 황장목(皇葬木)이라고도 한다'는 가이드의 설명을 듣다보니 금강문에 가까워졌다.

계절에 따라 그 아름다움이 달라 여러 가지 별칭을 갖고있는 금강산은 온갖 꽃이 만발하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에는 금강산(金剛山), 만산의 녹음이 유수(幽邃)하여 신선들이 산다고 하는 여름에는 봉래산(蓬萊山), 나무들이 온통 붉게 단풍드는 가을에는 풍악산(楓嶽山), 낙엽이 져서 나무들과 기암괴석의 산체가 헐벗은 모습을 드러내고 또 거기에 흰 눈이 내려 눈부시게 눈꽃으로 단장하는 겨울에는 개골산(皆骨山) 또는 설봉산(雪峰山)으로 불린다.

동서의 길이 40㎞, 남북의 길이 60㎞의 광대한 지역을 차지하는데 강원도의 고성군(高城郡)과 금강군(金剛郡)에 속하며 면적은 530㎢이고 높이 1,638m의 비로봉(毘盧峰)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세존봉(世尊峰), 서쪽에는 영랑

봉(永郎峰), 남쪽에는 월출봉, 일출봉, 차일봉(遮日峰), 북쪽에는 오봉산(五峰山), 옥녀봉(玉女峰)을 비롯한 1만 2천여 개의 봉우리가 솟아 있고 도처마다 천태만상의 암주(巖柱), 암대(巖臺), 단애(斷崖) 및 기암괴석과 폭포, 시내, 못 등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금강산의 년 평균기온은 11℃이며 1월의 평균기온은 -2.1℃, 8월의 평균기온은 23.6℃이고 년 평균강수량은 1,500㎜라고 하는데 금강산에는 2,256종의 식물과 100여 종의 특수식물, 38종의 금수류(禽獸類), 130종의 조류(鳥類), 9종의 파충류(爬蟲類), 10종의 양서류(兩棲類), 30종의 물고기류가 서식한다고 하며 금강국수나무, 금강초롱, 만리화 등 금강산에만 자생하는 특산물들이 분포하고 있다고 한다.

갈수록 더욱 굵어지는 빗줄기를 피할 방법이 없어 고스란히 맞아가며 산길을 더듬어 오르다보니 산 전체에 노란 산수유 꽃이 만발해 있었는데 예년 같으면 개화시기가 남쪽보다 열흘쯤 늦는다는데 금년에는 오히려 1주일 이상이나 빨리 꽃이 피는 이상기후 때문에 삭막하기만 했을 개골산의 분위기를 확 바꾸었으니 우리 일행들의 여행길에 복이 내린 셈이다.

금강문을 지나 옥류담, 연주담, 비봉폭포, 무봉폭포, 주렴폭포를 거쳐 '나무꾼과 선녀'의 전설이 깃든 상팔담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면서 진눈깨비를 곁들인 우박이 쏟아져 가파른 계단길이 빙판으로 변하는 바람에 무척 애를 먹었다. 중국의 근세를 대표하는 사대부로서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이요 이지적 학자이면서 섬세한 감각의 시인이었던 소 식(蘇 軾, 1036~1101, 호는 동파거사(東坡居士)은 일찍이 고려국에서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은(願生高麗國), 금강산을 한번 보기 위함이라네(一見金剛山)라는 시로 금강산을 예찬했고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선생도 천 길 흰 비단을 드리웠는가(千丈白練), 만 섬 진주 알을 흩뿌렸는가(萬斛眞珠)라고 노래했을 만큼 아름다운 세계적인 명산 금강산을 직접 밟아볼 수 있는데 이까짓 악천후쯤은 얼마든지 감수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정상을 향해 올라가다가 누군가가 부르는 우렁찬 노래 소리에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졌다. '누구의 주제런가 맑고 고운 산/ 그리운 만이천봉 말은 없어도/이제야 자유만민 옷깃 여미고/ 오늘에야 찾을 날 왔나 금강산은 부른다.' 내가 평소에 즐겨 부르는 가곡중의 하나인 '그리운 금강산'을 현장에서 직접 듣는 감회는 한 마디로 벅찬 감동이었다. 노래의 주인공은 올해 나이 환갑이라는 울주문화원의 이부열 사무국장이었는데 낭랑한 목소리에 풍부한 감정까지 곁들여 어찌나 열심히 부르는지 주위에 있던 일행들도 하나 둘씩 따라 부르기 시작해 나중에는 합창으로 변해 금강산 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지척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안개가 짙게 낀 상팔담 정상의 바위 위에서 목청껏 노래를 불러댔더니 기분이 좀 호전되어 하산하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다.

비봉폭포, 십이폭포, 조양폭포와 함께 금강산 4대 폭포의 하나이며 개성의 박연폭포, 설악산의 대승폭포와 더불어 우리 나라 3대 폭포의 하나로 꼽히는 구룡폭포(九龍瀑布)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구룡폭포가 한 눈에 바라보이는 관폭정(觀瀑亭)에 들러 일행들과 기념촬영을 한 뒤 가이드의 설명을 들었다. 전체가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구룡폭포는 너비 4m에 높이 74m이며 폭포 밑에는 깊이 13m의 구룡연(九龍淵)이 있고 그 위로는 여덟 개의 맑고 푸른 못이 층층으로 있는데 이 곳이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왔다는 상팔담이라고 한다.

구룡폭포 옆 암벽에는 해강(海岡) 김규진(金圭鎭) 선생이 썼다는 미륵불(彌勒佛)이란 대형글씨가 새겨져 있었고 금강산 곳곳의 바위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서 자연훼손의 본보기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가 않았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는데 아침부터 계속 비를 맞아가며 몇 시간을 미끄러운 계단을 오르고 내렸더니 전신의 맥이 풀리면서 몸에 한기가 들고 시장기까지 들어 발걸음이 무거웠으나 서둘러 주차장으로 내려와 대기하고 있던 셔틀버스를 타고 온정각휴게소로 돌아와 식당에서 뷔페식으로 마련한 늦은 점심을 먹고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오후 4시부터 공연되는 평양 모란봉교예단의 묘기를 관람하기 위해 일행들과 함께 문화회관으로 이동을 했다. 관람료는 특석 $30, 일반석 $25로 한화로 계산하면 특석은 40,410원, 일반석은 33,675원으로 좀 비싼 편이지

만 공연이 시작되어 출연진들이 고난도의 묘기를 연출할 때마다 아슬아슬해 손에 땀이 났고 우뢰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져서 장내는 열광의 도가니로 변하고 말았다.

안내원의 설명에 의하면 모란봉교예단원중 상당수가 공훈배우이고 나머지는 모두 인민배우인데 공훈배우는 장관급, 인민배우는 차관급의 특별대우를 받기 때문에 여유 있는 생활을 영위한다고 했다. 공연이 끝나고 출연했던 단원 모두가 무대로 나와 '반갑습니다' 라는 북한 가요를 합창하자 관람객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박수를 치다가 끝내는 눈물을 흘리며 남과 북이 하나되는 진한 동포애를 느낄 수 있었다.

문화회관을 나와 셔틀버스를 타고 금강산온천장으로 이동해 오늘 하루의 노독을 풀기 위해 온천욕을 즐겼는데 $12, 우리 돈으로 16,164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입장료를 부담해야 했지만 하루종일 비와 눈을 번갈아 맞아가며 먼길을 걸어다닌 탓으로 다리도 아프고 몸에 오싹하는 한기가 들어 따끈한 온천수에 전신을 담그고 나면 좀 나아지려나 싶어서 일행들과 함께 노독을 푼 뒤 온정각휴게소로 내려와 저녁식사를 하고 토산품판매점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숙소인 호텔해금강으로 돌아왔다.

변덕스런 날씨에 모처럼 먼길을 걸었더니 몸이 나른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까하다가 북한에서의 마지막 밤을 무의미하게 보내기가 아쉬워서 도내 사무국장들에게 술이나 한잔 나누자고 연락을 했더니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 우리 방으로 모였기에 속초에서 사온 술과 안주로 조촐한 술상을 마련해 권커니 잣커니하며 정담을 나누다보니 어느덧 자정이 넘었는데도 술자리는 쉽게 파할 것 같지 않았다.

새벽녘에야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지만 모닝콜 소리에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 샤워를 하고 1층 식당으로 내려가 뷔페식으로 마련한 조반을 먹고 숙소에 있던 짐들을 챙겨서 셔틀버스에 싣고 3일차 관광코스인 해금강을 향해 출발했다. 고성군 동해 기슭의 수원단에서 옥교암에 이르는 해안절경을 일컫는 해금강은 일출(日出) 광경이 빼어나며 풍화(風化)와 침식(浸蝕)에 의해 형성된 배바위, 사공바위, 동자바위, 잉어바위 등 천만가지의 기묘한 생김새를 가진 해만물상(海萬物相)이 유명하고 해금강 남쪽에 위치한 바다기슭에 높이 솟은 암석기둥과 기묘한 모습의 동굴들이 절경을 이루는 통천의 총석정(叢石亭)은 관동팔경(關東八景) 중의 하나인데 참고로 관동팔경은 총석정을 비롯해 고성 삼일포(高城 三日浦), 간성 청간정(杆城 淸澗亭), 양양 의상대(襄陽 義湘臺), 강릉 경포대(江陵 鏡浦臺), 삼척 죽서루(三陟 竹西樓), 울진 망양정(蔚珍 望洋亭), 평해 월송정(平海 越松亭) 등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동해안의 여덟 명승지를 이르는데 월송정 대신에 흡곡(歙谷)의 시중대(侍中臺)를 넣기도 하며 옛날에는 모두 강원도에 속해 있었으나 망양정과 월송정은 현재 경상북도에 편입되었고 삼일포와 총석정은 북한지역에 있다. 눈앞에 펼쳐진 해금강의 절경에 반해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다가 일행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나서 모래사장에 둘러앉아 컬컬해진 목을 몇 잔의 소주로 축인 다음 셔틀버스를 타고 삼일포로 이동했다.

온정리에서 12㎞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삼일포는 먼 옛날 어느 왕이 하루를 즐기려고 왔다가 그 경치에 매혹되어 3일을 놀고 갔다는 전설을 지닌 아름다운 석호(潟湖)인데 석호란 사주(砂洲)나 사취(砂嘴) 따위의 발달로 바다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와서 생긴 자연호수를 이르는 말이다.

유달리 맑고 푸른 물을 자랑하는 삼일포는 면적이 0.79㎢이며 호숫가의 반짝이는 은빛모래밭에서는 해당화가 만발하기도 한다는데 계절이 계절인지라 그 아름다운 모습만을 상상하면서 아쉬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삼일포에는 전망이 좋은 장군대와 봉래대, 연화암, 연화대, 몽천 등의 명소와 식당으로 사용되던 단풍관 건물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끈다. 금강산을 제대로 구경하려면 계절마다 한번씩 최소한 네 번은 와봐야 한다는데 2박 3일의 짧은 여정(旅程)에서 보고 느낄게 뭐가 있겠는가. 계절에 따라 이름이 바뀐다는 천하의 명산 금강산을 주마간산(走馬看山)식으로 살펴보고 돌아오면서 서산대사의 시 금강산 '장할시구 풍악산 높이도 솟았구나/ 몇 번이나 비바람을 겪어왔던가/ 푸르른 네 등줄기 굽지 않았고/ 몇 번이나 눈서리를 겪어왔던가/ 우뚝한 그 기상 하늘을 펴 이고 섰네' 를 읊조리며 금강산관광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문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대토론회

- 지역문화예술행정가 WORK SHOP -

'2001년 지역문화의 해'를 마감하면서 지역문화 발전의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2월 26~28일 제주휘트니스타운에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지역문화예술행정가 WORK SHOP-"이 있었다.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하고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지역민속축제의 차별화 · 전문화', '전국 문화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전통문화의 생활화' 등의 주제를 갖고 문화관광부 담당공무원, 전국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예술 담당과장, 지역문화의해추진위원 등 지역문화예술행정가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였다.

1분과

○ 주제 : 지역민속축제의 차별화 · 전문화
○ 사회 : 이원태(한국문화정책개발원)
○ 발표자 : 강원 속초시청 문화공보실장 김철수
○ 건의내용 :
- 일선 행정공무원은 축제에 전문성 부족, 잦은 보직변경 등으로 효율적인 축제관리 및 진행을 위해 관주도 중심에서 지방문화원 및 예총 등 문화예술단체에 이양하여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 및 자생력 향상
- 축제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도에서는 지역축제관계자가 국내외 다양한 축제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2분과

○ 주제 : 지역민속축제의 차별화 · 전문화
○ 사회 : 정강환(배재대학교 교수)
○ 발표자 : 충남 금산군청 문화공보관광과장 박범인
○ 건의내용 :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민속축제 발굴 · 지원에 관한 종합대책 필요
- 정부 예산부처를 적극 설득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
- 민속축제를 발굴, 육성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시스템 개발
- 정부차원에서 민속축제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를 통해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세계화 전략 등 필요

3분과

○ 주제 : 전국 문화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 사회 : 이혜경(여성기획 대표)
○ 발표자 : 경기 과천시청 예술진흥담당 조동순
○ 건의내용 :
- 문화관광부의 종합문화정보네트워크 프로그램인「컬처넷21」을 기반으로 전국단일망구축을 조기에 실현하고 문화정보의 통합화와 표준화 체계구축 필요
-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간 문화사업 지원체계가 활성화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 필요
- 문화관광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문화관련부서 공무원들의 문화마인드 확대를 위해 예산보조 등의 조치를 통해 해외연수기회 확대요망
- 문화시설 설치지원 및 관리운영비 지원요망

4분과

○ 주제 : 전국 문화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 사회 : 김석만(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발표자 : 경기 여주군청 향토사료관담당 구본만
○ 건의내용 :
– 지역을 찾는 관광、답사단에게 지역의 문화유산을 안내하고 홍보할 '문화 유산해설사'의 양성을 위해 정부차원의 예산보조 검토요망
– 「컬처넷21」에 문화유적해설사에 대한 인적네트워크 구축, 전국 시군문화유적지도 작성, 각 시군 홈페이지 링크 요망
– 정부차원에서 지역축제에 필요한 외국어통역요원의 교육 및 지원 확대
– 국방부와 협의하여 공익근무요원 중 우수인력을 지역의 박물관이나 문화유적지 안내요원으로 배치 요망
– 지역 문화학교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확대요망 및 성과에 따른 차별지원 검토 요망
– 영호남 화합을 위한 자매결연을 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이를 확대하여 문화를 매개로 문화관광부에서 주선하여 탈중복 및 활성화 기대

5분과

○ 주제 : 전통문화 보급과 올바른 방향(생활화)
○ 사회 : 강신표(인제대학교 교수)
○ 발표자 : 대구 중구청 문화공보실장 김재옥
○ 건의내용 :
– 지방에 지원되는 문화관련 예산이 연초에 처리되어 사업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 간혹 예산처리가 늦어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가 있음
– 전통문화에 대한 자원은 풍부한데 이를 전시 보관할 기념관, 박물관 및 계승、발전시킬 전문인력이 없는 지역이 많음

6분과

○ 주제 : 전통문화 보급과 올바른 방향(생활화)
○ 사회 : 이종인(2001지역문화의해 상임위원)
○ 발표자 : 경기 남양주시청 예술팀장 김이문
○ 건의내용 :
–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방문화원에 대한 전문인력(학예사, 큐레이터 등)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지원 및 제도마련
– 정액보조단체인 지방문화원의 예산지원이 행자부의 지침인 가이드라인을 폐지 또는 변경하여 자치단체에서 신축적이고 자율적으로 적용하여 예산 증액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요망
– 문화소외 지역인 농어촌의 실정에 맞는 제도 및 예산의 지원
– 문화관광부는 문화관광축제만을 육성할 것이 아니라, '지역민속축제 육성 방안'에 따라 금년에 선정한 9개도 18개 대표 지역민속축제를 확대하여 지원, 육성해야 함
– 문화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는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흔적이 짙다. 무엇보다 경쟁력을 갖춘 축제를 우선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
– 문화의 중앙집중화와는 달리 오히려 전통문화는 지방에서 더 잘보존되고 있다. 이것을 계발하고 보존할 수 있는 제도 및 예산 확충. 특히 문화부에서 문화정책을 수립할 때 지방에 대한 안배가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 지방문화원에 지급되는 향토사료수집비가 광역시도 문화원에는 제외되었다. 광역시도에도 향토사료수집에 대한 예산이 절실하다. 문

지역 멸치 축제 5년키워 문화관광부 축제로…

'파다닥!'. 먹거리 축제의 새로운 소재로 멸치가 꼬리를 치며 물위로 떠올랐다.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입안가득! 두손가득! 행복가득!'이란 슬로건으로 기장군 대변항 인근에서 열리는 2002 기장 멸치 축제는 지난 5년동안 '동네잔치' 규모로 열렸던 축제로 올해 문화관광부 선정 축제로 지정됨에 따라 프로그램을 더욱 재미있게 꾸며 관광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기장의 특산물을 국내 대표적인 축제로 만드는데 성공한 기장군은 이번을 계기로 기장군이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번 축제의 소재가 되는 기장멸치는 전국 유자망 멸치어획고의 70%에 이를 만큼 기장미역과 함께 기장군의 주요 특산물로 꼽힌다. 대변항 봄 멸치는 지방질이 풍부하고 살이 연한 것이 특징으로 멸치잡이가 절정을 이루는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 까지의 생멸치와 멸치젓갈로도 유명하다. 특히 싱싱한 멸치로 버무린 멸치회, 멸치구이, 멸치찌개가 일품이다.

축제기간중에는 멸치비비기, 멸치요리, 멸치널기등 체험행사와 함께, 그물에서 멸치를 터는 후리장면이 볼거리다. (www.anchovyfestival.or.kr)

기장군은?

'아침이 좋은 도시' 기장군은 부산시 전체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그 중 8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역발전에 제약을 받아왔으나,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있어 40㎞의 수려한 해안선을 따라 일광 · 임랑해수욕장이 펼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내륙에는 불광산 · 달음산 도시자연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기장군은 동부산권관광개발계획의 중심축으로서 휴양 ·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장안사와 테아임도 · 해동용궁사 · 수산과학관 등의 볼거리와 함께 대변 · 연화리 · 죽성 · 문오성 지역의 횟촌, 철마한우, 장안매운탕 등 다양한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다. 도 · 농복합도시로서 농수산업이 발달해 기장미역 · 멸치 · 칼치 · 기장배 · 흑장미 · 방울토마토 · 팽이버섯등 특산물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주요시설로는 고리원자력발전소와 국립수산과학원등이 있다.

주요행사 프로그램

멸치 퓨전요리 전시(구방파제에서 5월 16~19일)
기장의 특산물인 멸치는 멸치회와 멸치젓으로 유명한데요. 멸치가 몸에 좋은 것은 다들 알지만. 입맛이 까다로운 아이들은 맛있는 것만 찾는 경향이 있지요. 특히 봄철 입맛이 떨어진 사람들은 저희 멸치 요리 전시장에서 맛있는 퓨전요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찾아드릴게요. 신선한 생멸치초밥과 아삭아삭한 멸치튀김을 드셔보세요. 멸치 요리 전시장에서 드신 요리는 집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멸치요리 레스토랑(구방파제에서 5월 16~19일)
싱싱한 멸치회 뿐만이 아니라 기장 특산물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전국에서 으뜸이라고 자부 할 수 있는 기장곰장어, 기장미역 등 여러 가지가 마련되어 있답니다.

임금님 진상 길놀이(5월 17일)
기장 멸치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성공을 기원하는 길놀이로 기장 미역과 멸치, 장안, 일광, 정관, 철마 5개 마을의 특산물들이 한양으로 출발하는 웅장한 행렬을 재현합니다. 이 길놀이는 기장중학교~기장시장~청강사거리~대변행사장으로 이어집니다.

개막행사, 만선제(5월 17일 대변항일원)
만선의 깃발을 단 멸치배들이 대변항에 입항해 멸치털이를 하고 턴 멸치를 배변항 바다에서 멋진 어선퍼레이드와 함께 행사가 시작됩니다.

연극 '갯마을' 공연(5월 18일 대변 특설무대에서)
기장을 소재로 한 연극(오 영수의 단편소설)으로 어촌 마을의 옛 기장 사람들의 삶을 재현하는 공연입니다. 기장 사람들의 옛 삶의 모습을 느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장사람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입니다.

멸치털기체험(5월 17~19일 구방파제)
관광객들이 멸치 털기를 어부들과 함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하고 흥미로운 이벤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일일어부가 되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참여 관광객들에게는 털기한 멸치를 상품으로 증정까지 해준다니 더욱더 낭만적인 추억이 될 수 있겠네요.

[체험이벤트 및 전시프로그램]

외국인 노래자랑(5월 19일 일요일 특설무대)
기장멸치축제기간 특별행사로 노래 경연을 통한,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만남의 '장' 이 마련된다.

멸치가 갈매기를 만났을 때(대변항 일원)
대변항을 날아다니는 갈매기에게 현장 판매하는 멸치를 던져주는 프로그램으로 '갈매기'도 함께 기장멸치축제를 즐긴다.

멸치잡이 체험(5월 17~19일 대변항)
따사로운 봄빛 가득한 바닷가에서 관광객들이 멸치 그물을 걷어올리는 체험을한다. 힘찬 어부들의 소리! 누가 먼저 걷어 올릴까?

특산물 전시 판매장(대변항 일원)
뛰어난 맛과 품질로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장의 각종 특산물과 대변앞 청정 바다에서 건져올린 각종 수산물들을 전시 및 판매하는 장소.

기장문화예술품 전시(대변항 일원)
기장 관광 사진전, 공예, 우표, 도자기, 수석 전시회를 통해 기장의 문화를 알림.

멸치비비기 체험(대변수협 앞)
털기한 싱싱한 멸치는 희망하는 사람에게 현장에서 즉석으로 비벼 젓갈을 담글 수 있
도록하는 프로그램.

(2002 기장멸치축제 사이트 중에서)

사월 초파일 연등회

올해는 양력으로 5월 19일, "이날 머리깎으면 변색안돼"

음력 4월 8일은 석가탄일(釋迦誕日)이다. 올해는 양력으로 5월 19일이다. 불교에서는 욕불일(浴佛日)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민간에서는 그냥 사월 초파일(初八日)이라고도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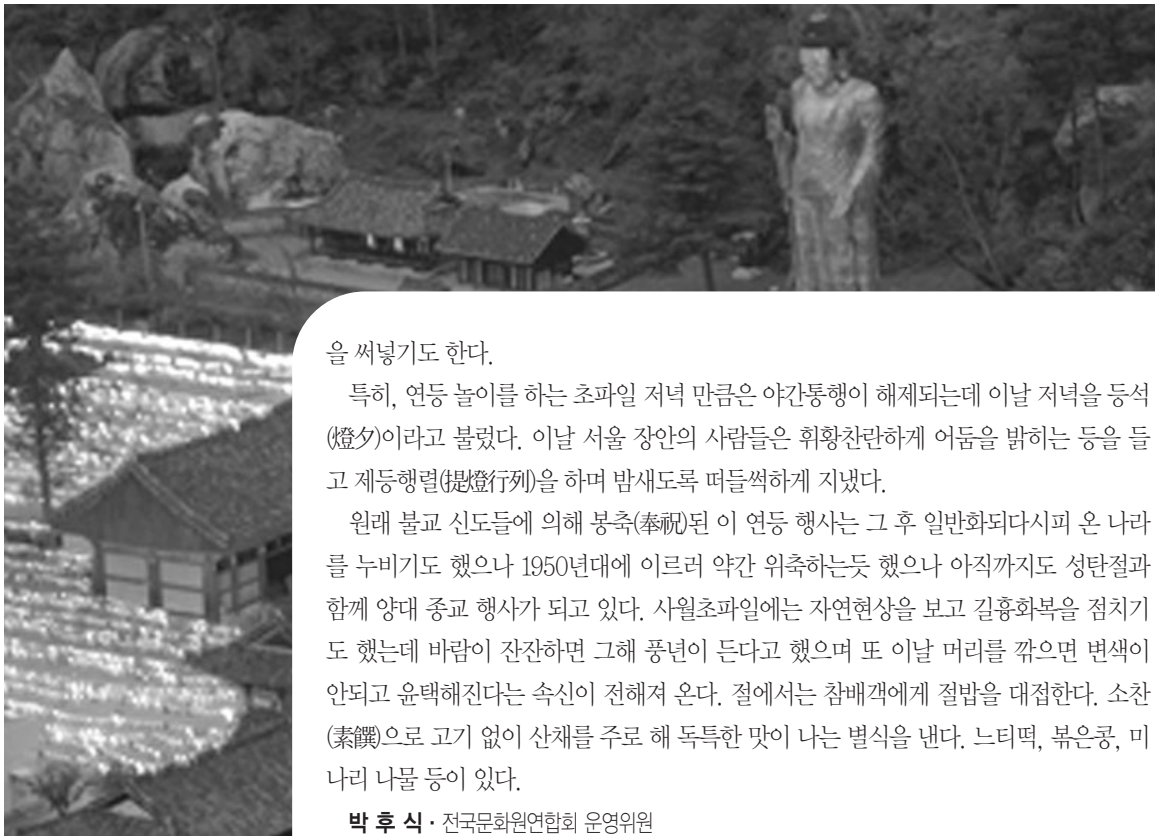
이날에는 불교 신도들이 석가모니의 탄신을 경축하며 사찰에 가서 재(齋)를 올리고 탑을 돌고 연등(燃燈)을 다는 풍습이 전해져온다.

이같은 연등회 풍속은 불교가 융성하던 고려 초에 크게 성행했던 국가적 행사로 궁중의 팔관회(八關會)와 함께 고려의 2대 명절로 민간의 행사로까지 확대된다. 연등 행사 시기는 신라 때에 정월 보름에 행해지다가 고려 때 계승되어 연초에 두차례 정도 실시됐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대회(大會)와 소회(小會)로 나누어 의식을 치르거나 이와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연등도감을 설치하는 등 맥을 이어왔으나 얼마없어 연등회를 수륙재로 대체하는 바람에 공의(公儀)로는 폐지되고 민간의 세시풍속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태종 12년(1412)의 정월 대보름날 연등시에 용 · 봉 · 호랑이 · 표범등의 등(燈)을 만들어 장식했고 성종 6년(1475) 4월 초파일에는 가가호호 온갖 기교한 모양의 등을 달아놓았다고 기록돼 있다. 연등회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동국세시기'에 "우리나라 풍습에 4월 8일이 되기 수십일전부터 여러 아이들은 종이를 잘라 등대에 매달아 깃발을 만들고 성안의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쌀이나 돈을 구해 비용으로 쓰니 이를 호기(呼旗)라 한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고려시대 공민왕은 직접 초파일 연등을 열었고 이때 부터 초파일 연등은 일반 서민층에까지 행해지게 됐으며 이렇게 본격화된 연등은 어린이의 참여로 까지 확대됐다. 호기풍속은 바로 어린이들이 연등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한달전부터 종이를 오려서 대나무 즉 등간(燈竿: 등불을 달 장대 기둥)에 기를 만들어 달고 성중을 돌아다니면서 쌀과 베를 구하는 풍속인 것이다. 이런 물품을 공민왕도 하사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 호기의 풍속이 계승되어 초파일 며칠 전부터 민가에서 등간(燈竿)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꿩깃을 끼워 장식하고 천으로 깃발을 만들어 매단다. 등간(燈竿)에 등을 다는데, 보통 그 집안의 자녀 수대로 등간을 세우고 등(燈)을 달았다가 9일에 그친다.

일반적으로 연등은 종이나 붉고 푸른 천을 바르고 그 위에 다양한 그림을 그려 넣는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연화(蓮花)나 어류 · 과실 모양으로 만드는데 크게 수박 · 마늘 · 연꽃 등의 채과(菜果) 모양과, 종 · 북 · 누각 · 화분 · 가마 · 병 · 항아리 등의 기물(器物) 모양, 용 · 봉황 · 학 · 잉어 · 거북 · 자라 등의 동물(動物) 모양이 있다. 이밖에도 칠성등 · 오행등 · 일월등 등의 천문(天文) 모양의 등(燈)과 수복등(壽福燈) · 태평등(太平燈) · 만세등(萬歲燈), 남산등(南山燈) 등 상징적 문자 의미를 담은 등(燈) 등 아주 다양하다. 등에는 수복(壽福) · 태평만세(太平萬歲) 등의 글



을 써넣기도 한다.

특히, 연등 놀이를 하는 초파일 저녁 만큼은 야간통행이 해제되는데 이날 저녁을 등석(燈夕)이라고 불렀다. 이날 서울 장안의 사람들은 휘황찬란하게 어둠을 밝히는 등을 들고 제등행렬(提燈行列)을 하며 밤새도록 떠들썩하게 지냈다.

원래 불교 신도들에 의해 봉축(奉祝)된 이 연등 행사는 그 후 일반화되다시피 온 나라를 누비기도 했으나 1950년대에 이르러 약간 위축하는듯 했으나 아직까지도 성탄절과 함께 양대 종교 행사가 되고 있다. 사월초파일에는 자연현상을 보고 길흉화복을 점치기도 했는데 바람이 잔잔하면 그해 풍년이 든다고 했으며 또 이날 머리를 깎으면 변색이 안되고 윤택해진다는 속신이 전해져 온다. 절에서는 참배객에게 절밥을 대접한다. 소찬(素饌)으로 고기 없이 산채를 주로 해 독특한 맛이 나는 별식을 낸다. 느티떡, 볶은콩, 미나리 나물 등이 있다.

박 후 식 · 전국문화원연합회 운영위원

[사월 초파일 별식]

소밥(素飯)

고기반찬 없이 느릅떡(유엽병 · 榆葉餠), 볶은 콩, 삶은 미나리 등으로 차린 음식.

느티떡과 상추떡

연한 느티잎이나 상추잎을 멥쌀가루에 섞은 후 설탕을 약간 넣어 시루에서 쪄 낸 음식. 사이사이에 팥고물을 얹어 쪄 내면 그만이다.

비빔국수

국수를 삶아 건져 내고 거기에다 오이, 봄나물, 볶은 고기 등을 얹어 새콤한 초구추장에 비벼 낸 음식. 봄철 시식으로 입맛을 돋우는데 안성마춤이다. 일명 골동면.

외할머니, 당신이 그립습니다

강 민 철 domingo@cultureplus.com

충북 영동이 자자하다. 시내 영화관에 내걸린 대형간판속의 여배우가 바로 영동 출신이기 때문. 그러나 이 여배우는 20대의 '잘빠진' 여배우도 아니고 우리의 눈에 익은 스타도 아니다. 그저 이가 다 빠지고 주름투성이인 김을분 할머니.

평생 영화 한편 못본 그녀가 황혼에 신델레라처럼 여배우로 변신했다. 대한민국의 할머니들이라면 부러할만 한 일. 이렇게 김을분 할머니가 스타로 등극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미술관옆 동물원'으로 알려진 이정향 감독(38)이 있다.

서강대 불문과를 졸업하고 두어편의 영화에서 조감독 생활을 한 후 1998년 〈미술관옆 동물원〉으로 한국영화계에서는 드물게 여성감독으로 성공적 데뷔를 해 주목을 받은 감독이다.

그가 3년만에 다시 메가폰을 잡으며 내놓은 두번째 작품은 〈집으로…〉. 우리의 외할머니를 생각케 하는 영화다. 영화 홍보 사이트에 나온 대로 상쾌하고 유쾌한 영화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조폭 영화'에 시달렸던 우리의 매마른 가슴을 촉촉히 적셔주는 뭉클한 영화임에는 틀림 없다. 국내 개봉돼 흥행에서 성공한 이란영화 〈천국의 아이들〉같은 느낌이 든다.

'집으로…'는 도회지에 살던 7살짜리 꼬마 상우(유승호)가 산골 오지마을의 외할머니(김을분)댁에 맡겨지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담은 영화로 멜로나 액션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는 다큐멘터리라는 얘기도 들을만 하다.

영화 제작과정도 한편의 영화였다. 오지전문가를 통해 이곳저곳 촬영장소와 할머니 배우를 구하던 중 우연히 충북 영동에서 길을 가다 김을분 할머니를 만났고 여러번의 설득끝에 출연 허락을 받아냈다.

영화의 얼개는 이렇다. 일곱살 상우는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그리고 먼지 풀풀 날리는 시골길을 한참 걸어 할머니의 집에 도착한다. 형편이 어려워진 상우 엄마가 잠시 상우를 외할머니 댁에 맡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외할머니는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읽는다. 그런 외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신 시골 외딴집에 남겨진 상우. 전자 오락기와 롤러 블레이드가 있는 세상에서 살아온 아이답게 배터리도 팔지 않는 시골가게,

사방에 돌투성이인 시골집 마당, 깜깜한 뒷간은 도시에선 상상도 못했던 시련이다. 상우는 영악하게도 자신의 욕구 불만을 외할머니에게 드러내기 시작한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외할머니가 그렇듯 짓궂은 상우를 외할머니는 단 한 번도 나무라지 않는다.

상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를 괴롭히는 횟수가 늘어난다. 배터리를 사기 위해 잠든 외할머니의 머리에서 은비녀를 훔치고, 양말을 꿰매는 외할머니 옆에서 방구들이 꺼져라 롤러 블레이드를 타기도 하면서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후라이드 치킨이 먹고 싶었던 상우는 온갖 손짓 발짓으로 외할머니에게 닭을 설명하는 데 성공한다. 드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되는가 싶지만, 할머니가 장에서 사온 닭으로 요리한 것은 닭 백숙이었다. 상우는 "누가 물에 빠뜨린 닭 달랬어?"라며 깡다구를 부린다.

7살 소년과 77살 외할머니의 동거는 이렇게 계속된다. 마지막에 상우는 엄마가 있는 서울로 돌아가는데 할머니에게 글을 가르쳐주던 상우는 연필 잡는 것조차 서툰 할머니에게 화를 낸다.

"할머니 말을 못하니까 전화도 못하는데, 편지도 못쓰면 아플 때 어떡해!"

이렇게 말하며 울음을 떠뜨리고 만다.

〈집으로…〉는 8억원 짜리 영화이다. 〈미술관…〉처럼 대박을 터뜨릴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감독은 '남들이 요즘 무엇을 좋아할까' 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자신이 쓴 시나리오로 영화 만들기를 고집하는 그는 4년전 〈미술관…〉촬영 직전 〈집으로…〉의 시나리오를 완성해 놓으면서 그때 이미 자신의 두 번째 영화로 점찍어 두었다고 한다. 이처럼 '집으로…'는 이 감독이 영화를 꿈꾸기 시작했을 때부터 간직해온 필생의 프로젝트로, 태어나자마자 한집에서 살아온 외할머니가 2년 전 세상을 떠난 뒤 서둘러 촬영 준비에 들어갔다. 영화가 끝나면 '이 땅의 모든 할머니들에게 이 영화를 바칩니다'는 자막이 떠오른다.

그때 관객은 손수건을 준비해야 할 지 모른다. 문

'가정의 달' 5월에 생각해 보는 부모와 자녀

이제는 핵가족의 시대이어서 3대가 함께 한 집에서 사는 가정은 별로 없는 편이다. 부모와 자녀가 곧 한 가정을 이루는 가족 전부이다. 가족은 혈연(血緣)의 운명적인 피붙이면서 동시에 저마다 인생을 경영해 가야하는 개인이면서 동시에 사회인이다. 부모와 자녀가 피붙이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가족 역시 개인들의 구성이며 나아가 사회인의 구성이란 점이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원만한 가정일수록 부모가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려고 노력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자녀로 대하기 보다 한 인간으로 나아가 사회인으로 자녀를 대하려는 부모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1) 서로 대화(對話)하는가?

자식 얼굴 한번 보기 어렵다고 푸념하는 부모들이 많다. 품안의 자식이지 크면 다 소용없다고 투덜대는 부모들도 허다하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빚어지는 서운함이란 따지고 보면 부모가 자녀를 마치 전유물(專有物)처럼 생각하려는 데 있는 것 같다. 천지는 만물을 나아주되 기대지 않는다(生而不待)는 성현의 말을 새겨두는 부모는 피붙이란 혈연의 정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지속한다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벽이 얽힐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본다. 가족관계 역시 인간관계라는 엄연한 사실을 터득하고 가정을 이끌어 가는 부모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에 서서 서로의 바램이 무엇인지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든다. 부모와 자녀가 마음을 열어 놓을 수 있게 하는 기회는 아주 자연스러워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자녀가 자유롭고 마음 편히 속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부모 쪽에서 슬기롭게 배려하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억지로 말하게 강요하는 부모야말로 자녀와의 사이에 철의 장벽을 쌓고 자녀와의 대화를 끊어버리는 짓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가 마치 자신들의 소유물인양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가족의 풍습이 아니다. 특히 부자(父子)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그보다 더 소중한 가정생활은 없다고 본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상의한다는 것은 오래 동안 서로 노력한 결과에 속한다.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부모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버릇이 체질화되어 있어야 커서도 부모 자녀 사이에 있게 마련인 세대의 차이(差異)를 서로 극복하는 통로(通路)가 유지된다.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부모 쪽에서 먼저 이해하고 자녀의 생각을 존중하려는 어버이가 되어야 자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대화는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이지 한 쪽의 생각을 수용하고 다른 쪽의 생각을 배척하는 경우는 결코 대화로 이어질 수가 없다. 이러한 대화의 성질을 잘 아는 부모는 자녀한테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지도 않는다. 말을 강가로 끌고 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물을 먹이자고 억지로 말을 강가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말이 결정할 뿐이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의 통로가 열리려면 서로 돕고 고민하는 인간관계라 생각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서로 조언(助言)하겠다는 신중한 자세로 임하면 왜 자녀가 부모에게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를 거부할 것인가? 자녀의 생각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부모의 생각을 주입하여 지시하려는 부모에게 어느 자녀가 대화를 나누고 싶을 것인가. 결국 부모의 권위주의가 자녀의 심정을 상실하게 하는 셈이다. 권위적인 부모는 항상 자녀로부터 겉돌 수 밖에 없음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는 버릇은 유치원 때부터 그 터를 닦아두어야 누리는 복이기 때

문이다. 그런 복을 누리자면 부모 쪽에서 일찍부터 공을 들여야 하는 셈이다.

2) 자녀를 사랑할 줄 아는 부모

젊은 부부가 네 살 짜리 꼬마와 함께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고 있었다. 세명 다 등에 가방을 지고 있었다.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며 무거운 발을 옮기는 부모 뒤에서 꼬마 녀석 역시 무거운 발을 옮기고 있었다. 이런 광경을 본 어떤 한 할머니가 젊은 부부를 향해 어린것의 등짐을 아버지 등짐에 보태지 않고 꼬마를 저렇게 고생시키느냐고 핀잔을 걸었다. 그러자 젊은 부부는 미소만 짓고서 여전히 꼬마의 등짐은 꼬마가 지고 가도록 하면서 꼬마의 아버지가 꼬마에게 말을 걸었다. "각자의 짐은 각자가 지고 가는 거야." 네 살 꼬마는 머리를 끄덕이며 뒤따라 갔었다. 여러 해 전에 보았던 일이지만 내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녀가 제 인생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정신을 길러주는 일이다.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꼬마가 져야 할 짐을 대신해서 져주어 스스로 일을 처리하는 기회를 빼앗는다. 위에서 말한 젊은 부부는 꼬마를 진실로 사랑하는 까닭에 꼬마에게 제 등짐을 지게 하는 것이다. 부모의 맹목적인 사랑은 거름을 너무 많이 퍼부어 곡식을 웃자라게 하는 짓과 같아 자식을 버리기 쉽다.

참으로 사랑할 줄 아는 부모라면 자녀가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생각하며 자신을 돌이켜 보는 습관을 터득하도록 자녀 옆에서 도우려고 노력한다. 검소하게 살도록 헤아리게 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자녀를 주의하고, 양보하는 사람이 되도록 자녀를 살피고, 의젓하고 당당한 사람이 되도록 자녀의 길잡이 노릇을 할 줄 안다. 그래서 제 자식 사랑하기가 제일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 소중한 목숨을 물려주고 물려받는 사이가 부모와 자녀이므로 천륜(天倫)이라 하는 것이 아닌가. 천륜은 욕심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자식에게 욕심을 부려 부담을 주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학대하는 셈이다. 너는 커서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지 말라 함이다.

부모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는 말이 있다.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사랑하면 그 자녀가 부모가 됐을 때 다시 올바르게 자녀를 사랑해 대대로 자효(慈孝)가 이어진다는 게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자(慈)이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효(孝)이다.

3) 자녀를 돌볼 줄 아는 부모

양육(養育)한다는 말이 있다. 스스로 자라도록 하는 것이 양육이다. 억지로 키우려고 하는 짓은 양육이 아니다. 양계장의 닭을 돌보는 것은 양육이 아니라 사육(飼育)이다.

자녀를 돌보는 일은 농사짓기와 같다. 〈옛날 성급한 농부가 있었다. 제가 지은 곡식이 남의 것보다 덜 자란다고 화가 났던 그는 밤새도록 밭에 나아가 곡식의 대공을 억지로 끄집어 올려 남의 곡식과 같은 크기를 만들었다는 게다. 밤이 가고 낮이 되자 그 농부의 곡식은 모조리 목이 빠져 시들어 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장자(莊子)」에 나온다. 농사는 억지로 안된다. 오직 곡식이 잘 자라도록 때를 잃지 않고 북을 주고 김을 매고 알맞게 거름을 넣어주는 일을 해줄 뿐이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를 돌볼 줄 알아야지 욕심대로 자녀를 들볶는다면 양계장에 있는 닭처럼 사육하는 꼴을 빚어내는 셈이다.

현명한 농부는 곡식을 돌보는 때를 알고 잃지 않는다. 이처럼 자녀를 돌볼 줄 아는 부모는 자녀한테 북을 줄 때를 알고 김매기 할 때를 알고 거름을 줄 때를 안다. 곡식에 북을 준다는 것은 뿌리를 내릴 땅을 돋우어주는 짓이다.

자녀 돌보기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자녀가 직접 생활하면서 옳고 그름을 자기 스스로 터득해 가도록 조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지 강요하거나 요구

하거나 압력을 넣는다면 「장자」에 나오는 성급한 농부 꼴이 되고 만다. 억지로 훌륭한 자녀를 만들려고 발버둥치는 부모는 자녀의 목을 억지로 뽑아 숨통을 막는 짓거리를 마다하지 않는 셈이다. 그러므로 조언을 현명하게 하는 부모야말로 자녀를 돌볼 줄 아는 선생인 셈이다. 자녀 돌보기는 학교의 교사가 못하는 일이다. 자녀 돌보기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가 필요한 까닭이다.

4) 자녀의 뜻을 살피는 부모

자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그런 부모는 행복한 가정을 일구고 사회를 건강하게 이끄는 주인공임에 틀림없다. 상대의 뜻을 알면 넘지 못할 산이란 없다 하지 않는가. 뜻이란 마음이 가는 바(志)이다. 마음 두는 쪽이 어딘지 알면 방향을 잃을 위험이 없을 것이고 마음을 두는 내용이 무엇인지 안다면 늪에 빠질 위험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자녀의 뜻을 살필 줄 아는 부모라면 자녀의 항해를 돕는 나침반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부모는 없다. 항상 부모 심정은 자녀가 화로가에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혹시나 자녀가 잘못될 세라 돌다리도 두들겨 본 다음 건너가게 하려는 부모의 심정은 자녀가 미처 모르는 은혜이다. 자녀의 뜻을 잘 살피는 부모는 가정을 항상 명랑하게 이끌어 가는 지혜가 남다른 편이다.

인생을 항로(航路)로 비유하는 경우는 허다하다. 항로에는 나침반이 필수품이다. 그 나침반은 바로 자신의 마음 속에 있음을 터득하면 곧장 철없는 사람에서 벗어난다. 자녀가 철들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은 자녀 스스로 제 마음 속에 있는 나침반을 살펴 스스로 항로를 정해 순항(順航)하기를 바라는 것 뿐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부모는 자녀의 뜻을 살피는데 과욕(過欲)을 부리지 않는다.

5) 부모를 이해하는 자녀

부모에게 속을 드러내지 않는 자녀들이 많다. 이는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처신하지 못한 까닭이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두절되는 요인은 부모 쪽에 있다고 보아도 된다. 인생의 선배로서 부모는 눈 높이를 낮추어 자녀세대의 정서를 이해해주려는 남모르는 노력이 있어야 자녀의 마음속을 약간이나마 들여다 볼 수 있는 편이다. 그러면 자녀가 왜 부모의 속을 썩이려 드는지 연유를 찾아낼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녀한테 이실직고(以實直告)하라며 성질부리는 아버지가 제일 못난 축에 속한다. 자식이 어디 죄인이란 말인가. 귀한 자식을 스스로 범인 취급하려는 아버지보다 바보는 없다. 그런 바보를 자녀가 어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속썩이는 자식을 푸념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든 원인제공이 부모한테 있다는 사실을 빨리 터득할수록 부모와 자녀는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는 관계를 맺는다.

젊은이한테 부친의 이름을 물으면 함자(銜字)를 불러주는 경우가 있다. 부친의 이름을 막 부르질 않고 무슨 자(字) 무슨 자라고 함자를 알려주는 젊은이를 보면 그 집의 가정생활이 어떤지 짚어볼 수 있다. 겸손한 젊은이를 통하여 부자(父子) 사이가 원만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까닭이다.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에 속하지만 자녀가 아버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서로의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엄하기만 한 아버지는 존경도 사랑도 이해도 받지 못한다. 동시에 부드럽기만 한 어머니도 훌륭하다 할 수 없다.

아버지를 엄친(嚴親) 어머니를 자친(慈親)이라 높이지만 아버지는 항상 엄격해야 하고 어머니는 항상 부드럽고 따뜻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는 엄(嚴)을 본(本)으로 삼고 자(慈)를 말(末)로 삼으라 함이요 어머니는 자(慈)를 근본으로 삼고 엄(嚴)을 말단으로 삼으라 함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부모라면 엄자(嚴慈)를 알맞게 다루어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아 길러내는 것이 천륜(天倫)이다. 자녀가 이러한 천륜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철이 들었다고 한다. 철든 자녀를 대견해 하는 부모가 미소지으며 행복해 하는 모습이야말로 천락(天樂)이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는 것은 부모의 노력에 달린 셈이다.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자녀도 덩달아 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녀는 하나되는 즐거움을 누린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항상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인간관계가 필요하다.

6)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

어떤 젊은이가 가장 자유롭고 떳떳하며 당당할까? 자신이 존경하는 부모를 둔 젊은이일 게다. 돈이 많다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출세를 해서 명성이 자자하다 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고관이 되었다해서 존경받는 것도 아니다. 성실하고 정직하며 순리를 어기지 않는 사람이 결국 존경받는 법이다. 자녀가 진실로 부모를 존경하는 경우 그 자녀는 행복하고 그 부모는 훌륭하다고 할 것이다.

더럽고 추한 일로 입에 오르내리는 부모를 둔 자녀가 제일 불행하다. 부정부패로 쇠고랑을 찬 집의 자녀는 제 부모를 숨기고 산다. 비록 돈이 많아 걱정 없이 산다 할지라도 이는 경제적인 측면만 보고 말하는 것 뿐이다.

부모를 존경해라, 부모를 모셔라, 부모를 받들어라, 이런 등등의 말로 구호를 외치면서 효(孝)의 전통을 살리자고 해서 효도(孝道)하는 전통이 되살아 날 리 없다. 이미 이제는 부모가 군림하고 자녀가 종속되는 세상은 끝나버린 셈이다. 효도해라 해서 효도할 자녀는 이제 없다고 보아도 된다. 그러므로 자녀들로 하여금 효성을 갖도록 하자면 먼저 자녀로부터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선하지 않으면 존경받을 리 없고 어질지 않고서는 존경받기 어렵다. 후덕해야 존경받는다 함은 결국 선하고 어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는 세상에 나아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신의 미래를 이루어갈 수 있다. 부모가 자녀한테 물려줄 가장 소중한 것이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선하고 착한 마음을 자녀한테 물려주는 일이다.

7) 친척을 아낄 줄 아는 자녀

우리 문화가 강하고 장구한 것은 한겨레로서 혈연으로 잇는 가문(家門)들이 조상의 얼을 받들어 지켜온 전통이 확고한 까닭이라고 보아도 된다.

부모가 가문을 소중히 하면 자녀도 따르게 마련이다. 대학생에게 할아버지의 함자를 아느냐고 물어 보면 모른다는 학생이 의외로 많다. 손자로서의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말하면서도 조부의 이름 석자를 잘 모른대서야 친척에 대한 교육이 형편없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촌수를 따져 복잡한 일가친척의 관계를 암기하자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자녀가 조부모(祖父母)의 함자(銜字) 정도만이라도 알아야 할 터이고 자기 성씨(姓氏)의 본관(本貫)과 몇 대손(代孫)인지는 알고 있게 부모가 신경 써야 할 일이다. 우리에게 친척관념은 생활문화를 더욱 친밀하게 이끌 수 있는 정신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협동이 잘 되어 부러워하는 집성촌(集姓村)들을 살펴보면 젊은 세대가 보여주는 친척애(親戚愛)가 도타움을 보여준다. 가족애가 친척애로 확대되고 친척애가 애향심으로 확대되고 애향심이 애국심으로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곧 강한 국가문화의 기층(基層)이다. 그러므로 자녀가 자신이 속해 있는 일가친척에 대한 이해가 깊고 넓을 수록 조국을 사랑하는 안목이 그만큼 깊고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8)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자녀

새도 다 자라면 둥지를 떠난다. 자녀도 다 자라면 사회로 나아가 자신의 인생을 펼쳐나갈 터전을 잡게 마련이다. 항상 부모가 자녀를 슬하에 두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엄호하려고만 든다면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셈이다.

현명한 부모는 자녀를 우물 안 개구리처럼 키우지 않는다. 철 따라 시련을 당하고 겪으며 생존을 잇는 들판의 풀처럼 사회 속에서 자립할 수 있는 재목이 되기를 바란다면 자녀의 시야(視野)를 넓히도록 충격을 주고 격려하는데 성의를 다할 필요가 있다.

젊어 고생은 사서한다. 편안히 안주하면서 부모 덕으로 살려는 젊은이는 이미 패배자요 낙오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부모는 무엇보다 자녀에게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면서 서로 돕고 협동하는 시민이 되도록 길러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거친 바다와 같은 사회에서 뜻하는 바대로 순항(順航)하기를 바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인생을 경영하자면 순항할 때보다 난항(難航)할 때가 더 많을 수 있다. 격랑을 겪어본 당사자는 패배하지 않지만 격랑을 모르는 자가 격랑을 만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신을 상실하고 만다. 문

〈전국문화원연합회 발간 '생활문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중에서〉

전국문화원 연합회

제3차 전국문화원 간사 교육

▷ 일시 : 5월 3 ~ 6일(3박 4일)
▷ 장소 : 북한 금강산
▷ 참가대상 : 전국 지방문화원 간사등
▷ 행사목적
- 문화원 행정 실무자인 간사들에게 지역문화창달에 필요한 소양교육 실시
-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상징인 금강산 관광사업 현장체험으로 남북교류 활성화 및 대북 인식 제고

▷ 특강 – 정부의 지방문화정책

2002 지방문화원장 교육

▷ 일시 : 5월 13 ~ 15일(2박 3일)
▷ 장소 : 북한 금강산
▷ 참가대상 : 전국 지방문화원장
▷ 행사목적
- 문화원 책임자인 지방문화원장에게 지역문화창달에 필요한 특강 실시
-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상징인 금강산 관광사업 현장체험으로 남북교류 활성화 및 대북 인식 제고

▷ 특강 – 정부의 지방문화정책

제4회(2002) 조선족전통음악제

▷ 일시 : 7월 17일(수)
▷ 장소 : 중국 연길시 연변예술극장
▷ 주최 : 전국문화원연합회 · (사)연변조선족문화발전추진회
▷ 후원 : 문화관광부
▷ 참석대상 및 인원
- 연변 거주 중국 조선족 동포 1,000명 내외
- 지방문화원 및 문화원관계자 40여명

▷ 목적
- 중국 연변조선족 동포의 민족의식 고양과 남 · 북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민요경창대회 개최
- 남 · 북한간 직접적인 문화교류추진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 우선적으로 북한주민과 정서가 가까운 중국 연변조선족 문화예술단체인 (사)연변조선족문화발전추진회와 공동으로 민요경창대회를 개최해 북한 문화예술인들의 참여를 이끌어 냄
- 남 · 북한 민족전통문화의 교류를 통해 통일분위기 조성에 기여
- 중국 길림성 연길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도모
- 중국내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및 우리나라 역사와 연관된 문화유적답사등

▷ 방문내용 : 방문객들은 7월 16일부터 21까지 2팀으로 나뉘어 중국 현지를 답사한다.
- 1팀〈연변(백두산) · 하얼빈〉 : 중국 길림성 연길시장 초청 간담회 참석, 연변민요경창대회 참석, 백두산 등정(천지, 장백폭포), 용정(일송정 · 혜란강 · 용정중학교), 도문시(조중 국경다리 관람등)하얼빈
- 2팀〈연변(백두산) · 북경〉 : 중국 길림성 연길시장 초청간담회 참석, 연변민요경창대회 참석, 백두산 등정(천지, 장백폭포), 용정(일송정 · 혜란강 · 용정중학교), 도문시(조중 국경다리 관람등) 북경(천안문, 자금성, 천안공원, 만리장성, 명 13릉등)

▷ 참가자 선발기준
- 2002년도 문화원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는 문화원장(임직원 포함)을 대상으로 신청받음

서울 시지회

채강희 신임 편집주간

서울시지회는 최근 '서울문화' 지를 담당할 편집주간으로 채강희씨를 임명했다.

동대문 문화원

선농제향

동대문문화원은 4월 20일 오전 11시에 선농단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문화행사인 선농제향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중랑 문화원

봉화산도당제

중랑문화원은 4월 15일 400년 전통의 전래행사인 봉화산 도당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달성 문화원

제17차 정기총회 개최

달성문화원은 2월 28일 현풍면 사무소 3층에서 제1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달서 문화원

'제3회 달서 전국사진공모전' 개최요강

대구 달서구문화원에서는 사진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문화예술적 가치가 내포된 사진작품을 5월 23일까지 공모한다.

▷ 응모부문 : 자유작 및 주제작(달서구 소재)
▷ 작품규격 : 11″× 14″, 흑백 혹은 칼라사진(판넬불요)
▷ 시상 : 금상 1점(상금 100만원) 외
▷ 심사발표 : 5월 27 ~ 29일, 개별통보
▷ 전시 : 6월 11 ~ 17일
※ 문의 : 달서구문화원(554-4800)

「제1회 가족동요대회」

대구 달서구 문화원에서는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해 달서구문화원 주최 '제1회 가족동요대회'를 5월 18일 오후 4시 푸른방송 아트홀에서 개최한다.

향토작가초대 '달서사랑 서예문인화전'

대구 달서구문화원에서는 지역의 서예가 및 문인화가 작품을 초대, 지역민에게 다양한 서예 · 문인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서예 미술에 관심있는 문화가족의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향토작가초대 '달서사랑 서예 문인화전'을 5월 20일 푸른방송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부평 문화원

주소변경

(403-826)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442-3

광산 문화원

제11회 용아 박용철 전국백일장

일제 암흑기인 1930년대 순수서정시운동을 펼쳐 우리 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용아 박용철 선생을 기리고 그의 애국정신과 문학사상을 널리 선양하기 위한 '제11회 용아 박용철 전국백일장'이 지난 4월 19일 호남대 2캠퍼스 도서관 주변에서 전국 초 · 중 · 고등학생 및 일반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대전 지회

임원 전원 연임

대전지회는 2월 27일 정기총회를 열고 류해상지회장을 비롯한 임원 전원을 연임키로 결정했다.

대전 중구 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 작품전

대전중구문화원은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문화학교 수강생 작품전을 개최했다.

울산 동구 문화원

송시준 원장 취임식

울산동구문화원은 3월 9일 오후3시 현대예술관 실내체육관에서 송시준 원장 취임식 및 한마당 축제를 겸한 행사를 개최했다.

울주 문화원

윤성태 신임사무국장

울주문화원은 개원이래 지금까지 근무해오던 이부열 사무국장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관계로 4월 1일 윤성태씨를 사무국장에 임명한다.

성남 문화원

남선우 성남문화원장 재선

남선우 성남문화원장은 최근 정기총회에서 원장에 재선됐다.

부천 문화원

제18회 경로효친사상 선양 실천수기공모전

부천문화원은 4월 1일부터 25일까지 제18회 경로효친사상 선양 실천수기공모전을 개최했다. 시상은 오는 5월 25일 문화의 집 강당에서 있으며 작품들은 '복사골 22집'에 수록할 계획이다.

과천 문화원

원소절행사 개최

과천문화원은 2002년도 향토민속보존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정월대보름날 기관장과 시민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태민안과 시화연풍을 기원하는 원소절행사를 개최했다. 과천민속보존회의 농악대가 시청광장에서 출발해 부림교에서 답교놀이와 지신밟기를 선보였다. 이날 행사는 과천시민 모두의 안녕을 빌며 참석자 전원이 소지를 올리는 가운데 시민의 흥겨움을 더해 주는 한마당 잔치로서 대미를 장식했다.

문화박물관교실 개강

과천문화원에서는 3월 21일 수강생 및 임원 기관장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박물관교실 개강식을 개최했다.

2002년도 문화학교 문화교실 개강식 개최

과천문화원은 지난 2월 22일 생활문화진흥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도 문화학교 문화교실 10개분야 14개반 수강생(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날 문화교실 강의를 담당한 지도강사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했다. 2부 순서로 열린 경기민요 지도강사와 시조교실 지도강사의 흥겨운 전통가락 시범은 수강생 전원의 갈채를 받기에 충분했다.

남양주 문화원

'3.1 독립만세운동' 횃불 대행진

제83주년 3. 1 독립만세운동재현 횃불대행진이 2월 28일 오후 6시 화도읍 월산리 월산교회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연천 문화원

송대진 사무국장 퇴임

연천문화원은 지난 2월 28일 문화원 강당에서 송대진 사무국장 퇴임식을 개최했다.

의왕 문화원

제2회 白雲서예대전 공모요강

▶ 전시기간 : 2002년 6월 15일부터 ~ 6월 20일까지

Culture News

▶ 전시장소 : 의왕문화원

▷ 전시주최 : 의왕문화원
▷ 접수부문 : 한글서예, 한문서예, 문인화
▷ 원서교부 : 2002년 5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 원서접수 : 2002년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 접수장소 : 의왕문화원 (437-070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413-1 의왕문화복지회관 1층 사무실)
▷ 작품형식 및 규격
- 성인부 ☞ 가로 35㎝, 세로 135㎝ 이내 종서 작품
- 중·고등부 ☞ 가로 35㎝, 세로 135㎝
- 초등부 ☞ 가로 35㎝, 세로 70㎝ 이내

※주의사항 : 표구(배접)하지 않고 출품해야함. 문인화는 소재 자유

▷ 출품수 : 각 부문별 3점 이내 출품할 수 있음
▷ 출품료
- 성인부 - 1점당 20,000원 ◇ 학생부 - 없음
- (출품료송금계좌 : 농협 211040-51-081635 의왕문화원)

▷ 출품내용 : 서예발전에 기여하는 창작작품, 국내외 발표되지 않은 전통문화와 미풍양속에 위배되지 않는 작품
▷ 출품자격 : 경기도내 거주자 및 관내 재학생
▷ 심사발표 : 2002년 5월 30일(예정)
- 개별통보 및 지역 월간지와 의왕문화원홈페이지, 의왕시청홈페이지에 발표

▷ 시상
- 성인부 대상매입(1명 50만원) 최우수상매입(1명 30만원) 우수상 매입(2명 각 10만원) 장려상(4명 각5만원) 특선(상장, 부상) 입선(상장)
- 학생부 대상(2명 각 20만원) 최우수상(2명 각10만원) 우수상(2명 각5만원) 장려상(10명 각3만원) 특선(상장, 부상) 입선(상장)

▷ 문의 : 의왕문화원(☎ 456-4994, FAX 458-8045)

정선 문화원

2002년 정기총회 개최

▷ 일시 : 2월 5일
▷ 장소 : 정선문화원예술회관 1층 교육관
▷ 내용 : 2001년도 사업 및 예살결산안 승인의 건. 200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의 건. 임원(감사) 선임의 건.

세시풍속 문화사업(대보름 놀이)

▷ 일시 : 2월 26일
▷ 장소 : 정선 제2교 강변둔치
▷ 목적 : 대보름놀이를 통해 군민들의 새해 소망과 안녕을 기원하며, 우리 지역의 독특한 민속문화를 알리며,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는 추억을 성인들에게는 어린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민속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함.

도원문화학교 개강식

▷ 일시 : 3월 11일
▷ 장소 : 정선문화예술회관 1층 교육관
▷ 목적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 감성 계발 및 건전여가문화 조성

충북 지회

박영수 신임지회장

충북지회는 3월 6일 정기총회를 열고 박영수 청주문화원장(64)을 새 지회장으로 선임했다. 이에따라 지회사무실은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92 청주문화관내로 바뀌었다. 전화 : (043)256-3624

정기총회

충북지회는 3월 6일 명암파크관광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서산 문화원

2002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2002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가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해미읍성에서 열렸다.

전북 지회

사무실 이전

주소 : (560-021)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1가 104-5 전북예술회관3층

금산 문화원

금산장동달맞이축제

금산문화원은 2월 26일 오후 6시 금산읍 양지리 장동마을 축제행사장에서 금산 장동달맞이 축제를 개최했다.

전주 문화원

전주문화원 홈페이지 운용

전주문화원은 2002전주월드컵을 계기로 향토문화 진흥에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E-mail 개설에 이어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이제 개설했기 때문에 자료가 넉넉하지 못하지만, 빠른 시일안에 전주의 역사 · 문화 · 예술 · 풍습 등 많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주문화원은 "전주정신을 가꿉시다라는 원훈을 뿌리깊은 나무로 삼고 전주를 사랑하는 모든분들에게 전주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학술 조사와 향토지발간을 비롯 모든 사업과 행사를 시민과 함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http://www.jjmhy.or.kr

▷ E-mail : cjmhy7500@yahoo.co.kr

임실 문화원

노동환 신임사무국장

임실문화원은 최근 사무국장에 노동환씨를 임명했다.

고창 문화원

5거리 당산제 개최

고창문화원은 2월 27일 고창읍 중거리 당산과 동리국악당 광장에서 5거리 당산제 및 대보름 민속놀이 큰잔치를 개최했다.

화순 문화원

지영희 신임사무국장

화순문화원은 3월 27일자로 지영희씨(34)를 사무국장에 임명했다.

영광 문화원

강은영 신임총무과장

영광문화원은 3월 13일자로 강은영씨(32)를 총무과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장성 문화원

김영무 신임사무국장

장성문화원은 지난 4월 1일자로 김영무씨(61)를 사무국장에 임명했다. 장성문화원은 또 이에 앞서 1월 1일자로 임은진씨(25)를 간사에 임명했다.

신안 문화원

조애숙 신임간사

신안문화원은 조애숙씨(34)를 간사에 임명했다.

경북 지회

정기총회

경북지회는 4월 16일 경북지회 2층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문경시

운강 이강년 기념관 개강식

문경이 낳은 구 한말의 위대한 의병장 운강 이강년 선생의 나라사랑과 살신성인의 정신을 기리고 후세들의 산 교육장으로 삼기 위해 건립한 '운강 이강년 기념관'이 문경시 주최로 지난 4월 11일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현지에서 개관했다.

문경 문화원

문화학교 개강

▷ 일시 : 4월 2일
▷ 장소 : 문경문화원 회의실
▷ 내용 : 관내 거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학교(생활영어, 주부예절, 한문예절, 단전호흡) 개강식을 가졌다.

제17회 경로효친실천 및 내고장 문화유족사랑 실천수기 공모

문경문화원은 4월 1 ~ 30일 제17회 경로효친실천 및 내고장 문화유족사랑 실천수기 공모를 개최했다.

허동량 신임문화원장

고령문화원은 3월 7일 정기총회를 열고 유병규원장 후임으로 허동량씨를 문화원장에 임명했다.

밀양 문화원

손양현 신임사무국장

밀양문화원은 3월 2일자로 손양현씨(59)를 사무국장에 임명했다.

울진 문화원

주상준 신임 울진문화원장

울진문화원은 4월 1일자로 문화원장에 주상준씨(69)를 선임했다.

울릉 문화원

서면 태하성하 신당제

울릉문화원은 4월 13일 태하리 성하신당에서 태하성하신당 기원제를 개최했다.

진해 문화원

제3회 진해시민 휘호대회

진해문화원은 제40회 군항제를 기념하고 서예 문화의 계승발전과 역량있는 서예인을 발굴하기 위해 제3회 진해시민 휘호대회를 지난 4월 4일(목) 오전 11시에 진해시민회관 체육관에서 김병로 진해시장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장과 문화원 이사, 휘호대회 참가자 100여명 등 서예에 관심있는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했다. 박차생 문화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서예는 우리 전통문화의 정수리에서 우리들에게 선비정신을 키워 주었고 일본이 칼을 쓰는 무사의 나라라면 우리나라는 붓을 쓰는 선비의 나라이므로 오늘날 참된 선비정신을 계승하자"고 강조했다.

임진왜란 신호연 전시회

진해문화원은 제40회 군항제를 맞이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7일간 진해시민회관에서 임진왜란 신호연 전시회를 개최했다. 신호연 31점과 이순신 장군 영정, 거북선 모형, 한산도가 사본 등을 함께 전시해 전시회장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다.

김해 문화원

일본 듀엣 '하루(春)' 초청 공연

김해문화원은 일본후쿠오카에 거주하면서 미주지역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부부 듀엣 '하루(春)'를 초청해 공연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문화원과 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히젠쪼 국제교류협회의 주선으로 개최됐다. 4월 4일 오후 4시와 7시 2회 공연을 가졌다.

제12회 김해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

김해문화원은 가야금의 본고장인 김해, 가야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국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김해 전국가야금경연대회를 4월 13 ~ 14일 양일간 개최했다. 전국 초·중·고 대학 일반부의 기악부문, 병창부문의 경연으로 일반부 대상에는 대통령상, 최우수상에는 문화관광부장관상, 초·중·고등부 대상에는 각각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이 주어진다.

홍관표 김해문화원장 취임

김해문화원은 지난 3월 16 갑자기 타계한 고 김영해 전임원장의 후임으로 홍관표 부원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4월 8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문화원장으로 선출된 김영해원장은 제13대 원장이 된다. 홍관표 신임원장은 16년간 문화원 이사-부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문화원 사업에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었으며 오랜 기간동안 향토사·민속학 등을 두루 섭렵하며 닦아온 문화적 기반을 바탕으로 김해문화원을 전국에서 으뜸가는 문화원으로 발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제12회 김해전국가야금경연대회 개최

김해문화원에서는 지난 4월 13일과 14일 양일간 가야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국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제12회 김해전국가야금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120명의 연주자들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벌인 이번 대회 결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이 주어지는 초. 중, 고등부 대상에는 진주신안초등학교 4년 이서영양과 충무중학교 2년 원먼동마루군,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3년 장민혜양이 기악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문화관광부장관상이 주어지는 일반부 최우수상은 병창무분의 부산시 진구 범천동의 천주미씨가 수상했다. 특히 상금 5백만원과 대통령상의 영예가 주어지는 일반부 대상에는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88의 오경희씨가 서공철류 가야금산조를 연주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제2회 시민문화탐방

김해문화원은 시민들에게 역사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문화가족간의 유대를 다지고자 개최하는 4월 21일 하루 동안 창원 성산가야유적과 고성의소가야유적으로 제2회 시민문화탐방을 떠났다.

제26회 가락문화제

금관가야의 시조인 김수로왕이 왕위에 즉위한 날을 기려 매년 개최되는 가락문화제26회째 행사가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됐다.

의령 문화원

제8회 정월대보름 전통민속축제 개최

의령문화원은 지난 2월 26일 의령남산천에서 통일염원·월드컵 성공개최·향토번영기원 '제8회 정월대보름 전통민속축제'를 개최했다.

제주 문화원

문은숙 신임 간사

제주문화원은 2월 1일자로 문은숙씨(27)를 간사에 임명했다.

소반(小盤) 이야기

명절이나 경축일에 왕이 여러 가지 음식의 상을 받기만 하고 물린 뒤에,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는 어상(御床), 왕과 왕비가 평소에 받는 진지상(進支床)인 수라상(水喇床), 술을 대접하기 위해 차린 주안상(酒案床), 궁이나 관가에서 음식을 운반할 때 머리에 이고 가기 위한 소반의 하나인 공고상 또는 번상(番床), 차나 과일을 내어 놓은 다과상(茶菓床), 국수나 장국을 주음식으로 차린 장국상, 혼인날 전안례를 올릴 때 쓰는 독좌상(獨坐床), 제사 음식을 담아 나누어 돌릴 때 쓰는 작은 목판의 엄족반(掩足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먹는 겸상(兼床), 아이의 돌잔치 때 차리는 돌상, 출산 전 산모의 안산을 비는 삼신상(三神床), 음식을 담아 먹는 식기를 비롯해 책(冊) 등의 물건을 놓거나 얹어 사용하기 위해 판으로 받칠 수 있게 만든 기무를 총칭해 상(床)이라고 한다. 대개는 상과 소반을 구별하지 않고 부르나, 엄밀하게는 책상과 같이 비교적 고정시켜 놓고 사용하는 것을 상이라 부르고, 음식을 담은 그릇을 올려 놓을 수 있고 운반기능을 겸한 비교적 작은 상을 소반이라고 한다.

나주반(羅州盤)

합리적이며 편리한 생활 용구인 소반

호족반(虎足盤)

소반을 보면 우리의 주생활과 식생활문화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즉, 소반은 우리의 한식공간이 그리 넓지 않다는 점과 주방과 방이 떨어져 있다는 점, 남녀노소의 구분이 뚜렷해 겸상이 드물었다는 점, 방의 특성상 밥을 먹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했다는 점을 볼 때 좁은 공간에서 여러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당한, 지극히 합리적이며 편리한 생활 용구인 것이다.

지역에 따라 용도와 형태에 따라 가지각색인 우리의 소반. 소반은 사회규범과 신분의 질서가 엄격해 사랑채, 안채, 행랑채로 구분되었던 생활공간에서 운반이 손쉬운 형태의 규모, 구조로 제작된 생활용품이고 모든 계층이 널리 사용했던 만큼 그 종류와 형태도 매우 다양하게 발달했다.

지역에 따라 나누어 보면, 간결함과 소박함으로 나무의 결을 살릴 것이 특징인 나주반, 화려함과 장식성이 강한 해주반, 매우 소박하고 안정적인 형태의 바닥(상판)에 자개를 놓아 외형적인 특징을 더하는 통영반(統營盤), 충주반(忠州盤) 그리고 안주반(安州盤)이 있다.

용도와 형태에 따른 반의 분류법

호랑이의 다리와 같다하여 호족반(虎足盤). 수라상으로 쓰이던 호족반은 다리의 굴곡이 힘차고 위용이 있으며 높이가 높고 반은 날렵하게 다리보다 밖으로 뻗쳐 있다.

개다리상이라고 불리는 구족반(狗足盤). 여유롭고 소박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구족반은 충주반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각을 넣은 다리가 반으로 둥글게 벌어지면서 아래로 흐르다가 발 끝에서 안으로 굽어져 바닥을 힘있게 딛고 있어 무거운 반을 안정감 있게 지탱할 수 있다.

숨어있는 4개의 다리를 가지고 빙빙 도는 단각반(單角盤). 한개의 기둥이 반의 중심을 받치고 있어 단각반은 크기가 작아서 간단한 다과나 과일을 접대하기 위한 용도로 쓰였다. 단가의 모양을 원통형으로 해서 반면이 돌아가도록 회전반으로 만든 것도 있고, 단각 외에 보조 다리를 4개, 6개로 달아내린 것도 있는데, 단각에는 대부분 나선형 조각이 되어 있고 보조다리는 연주문,

공고상

다 반

두리반

구족반

연당초문, 조각으로 장식한 점이 특이하다.

반달 모양의 반월반(半月盤). 전라도 지방에서 제작된 반월반은 한 쪽 반면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특이한 형태로 보아 다른 상과 부착해 사용했거나, 평소에 벽면에 붙여 놓고 특별한 때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궁중에서는 특별한 때에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상의 앞 부분이 직선으로 되어 있어 음식을 먹기에 편한 이점이 있다. 따라서 간소한 형태의 주안상으로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또 반면에는 화려한 무늬와 아름다운 장식을 했으며 세 개의 평판으로 된 상 다리가 양편 모서리와 중앙에 한개씩 부착되어 있으며 다리 밑부분에는 이중 평판이 부드럽게 굴려져 있어 안정감을 준다.

단각반(單角盤)

반월반(半月盤)

연엽반(蓮葉盤)

반면의 모양이 연꽃잎 같은 연엽반(蓮葉盤). 한송이 연꽃잎이 물 위에 떠 있는 형상이다. 반의 모서리에는 꽃잎선이 돌리고, 반 밑의 중앙에는 꽃받침과 같은 운각으로 오각형의 조각을 부착, 다리를 고정시키고 있다. 그리고 다리는 꽃줄기처럼 부드러운 선 흘림을 하여 밑으로 내려오는데, 족대 대신 +자형의 우아한 4족이 코 끝을 약간 들어올린 채 받치고 있다.

나전주칠호족반

그 외 사용 목적에 따라

궁이나 관가에서 음식을 운반할 때 머리에 이고 가기 위한 소반의 하나인 공고상 또는 번상(番床), 과일이나 과자류를 놓는 소반인 과반, 함께 모여 식사를 할 때 차리는 큰 상인 교자상(交子床), 입춘 때나 봄에 봄나물이나 쑥떡 등을 진상할 때 쓰는 춘반(春盤), 주안상과 비슷하게 생긴 상으로 약사반을 얹어 옮기거나 약을 마실 때 사용하는 약반(藥盤), 무당이 굿을 할 때 무신의 하나인 걸립신을 위해 차려 놓은 걸립상(乞粒床), 어린이나 부녀자들이 함께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할 때 사용하는 크고 둥근 원반 모양인 두리반 그리고 안방의 여인네들이나 규방의 처녀들 사이에 다과상과 과반 용도로 사용되었던 지승반(紙繩盤) 등이 있다.

충주댐 수몰마을사 충주댐 수몰마을사 편찬위원회

충주댐 수몰마을사 편찬위원회는 충주다목적댐의 건설로 수몰된 충주, 제천, 단양지역의 지명과 문화유적 및 생활문화를 총망라한「충주댐 수몰마을사」를 발간하였다. 사라져간 삶의 일부를 기록 보존하고, 수몰실향민들에게 고향사랑의 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책은 총괄 · 충주편, 제천편, 단양편의 3책 1질로 되어 있다.

강화지명지 강화문화원

지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와 역사의 소산이며, 땅의 모양이나 지역의 변천사를 알수 있는 유산이다. 강화문화원은 산업화의 물결에 밀려 사라져가는 마을과 산과 들과 하천등 땅의 이름과 내력을 바로 알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강화군내 13개 읍면의 리(里)단위까지의 전통적인 지명과 그 유래를 조사하여「강화지명지」를 발간하였다.

국역 밀주지 지리편 밀양문화원

밀양문화원에서는 1987년에 간행한 향토사료집을 대본으로 삼아 연차적인 국역사업으로 밀양문헌집람을 발간하기로 한바 그 첫 번째 책으로「국역밀주지 지리편」을 발행하였다. 이 책은 밀양 향토사료집(제1집)에 수록된「밀주지리인물문한지(密州地理人物文翰誌)」의「밀양도호부지리편」을 대본으로 오자와 탈루부분을 보완하여 국역한 책이다.

양산 역사문화관광선집 양산문화원

양산문화원은 양산의 역사 · 문화 · 관광자원을 총정리한「양산역사문화관광선집」을 발간하였다. 이책은 제1장에서 양산의 권역 · 연혁 · 행정사를 다룬 양산의 역사, 제2장 양산의 인물에서는 신라 · 고려 · 조선 · 근현대인물, 제3장에서는 양산의 고전문화, 제4장에서는 양산의 문화유적 · 유물, 제5장에서는 양산의 명승지, 제6장 교육기간 및 시설을 다루고 있다.

역주 평택의 금석문 I 평택시문화원

평택시 문화원에서는 이 지역에 산재하는 금석문의 내용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자세한 주석을 달아「역주 평택의 금석문 I」을 발간하였다. 이책에는 대동균역만세불망비, 이대원장군 신도비, 남두징 묘표, 최진운 묘갈, 원준량 신도비, 충의제각비, 김만근 묘표, 김진륜 묘표, 김무택 묘표, 이정좌 신도비, 충정공 홍익한 묘갈 등 18건의 금석문이 수록되었다.

선비의 고장 약진하는 포천 포천문화원

포천문화원에서는 5년전에 출간되었던 '포천군지'가 너무 방대하고 무거워 누구나 손에 잡고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포천의 모든 것을 요약정리하여「선비의고장 약진하는 포천」을 발간하였다. 1장 포천의 역사, 2장 포천의 자연환경, 3장 삶의문화, 4장 고장을 빛낸 인물, 5장 고장의 문화유산, 6장 관광문화, 부록으로 지명유래등이 수록되어 있다.

청파유고 울진문화원

청파유고(靑坡遺稿)는 장만시(張萬始, 호靑坡, 1696~1745)의 시고(詩稿)이다. 원래 3천여수의 초고가 전해오던 것을 1961년에「청파유고」라는 제명으로 발간하였던 것인데 이번에 울진문화원이 문집번역을 하면서 울진의

향토사연구에 도움이 되는 부분과 청파공의 학문 · 철학 · 사상등에 미치는 문장들을 골라서 전광홍(田光弘)씨가 번역했다.

충효열행적지 하동문화원

하동문화원에서는 하동사람으로서 충효열행한 사람의 행적과 포상시설물을 일제히 조사하여 충효정신과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忠孝烈行蹟誌」를 발간하였다. 이책에는 하동군내의 충행적편(忠行蹟篇)과 군내 각 읍 · 면 단위의 효열행적편(孝烈行蹟篇)으로 나뉘어 관련된 탑 · 비각 · 정려 등에 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옛 제주인의 표해록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에서는 향토사학자 고 김봉옥 선생이 그동안 모아 번역한 김배회의 '중국표류기', 김비의의 '유구표류기', 최부의 '표해록', 정희이의 '일본표류기', 김기손의 '중구표류기', 강연공의 '일본표류기', 김대황의 '표해일록', 장한철의 '표해록', 이방익의 '남유록' 등 9편의 표해록을 고인의 아들 김지홍교수의 정리로 원문과 번역문을 수록 발간하였다.

남사일록(李增저, 金益洙역) 제주문화원

제주문화원에서는 이증(李增 1628~1686)의 남사일록(南槎日錄)을 번역출판하였다. 이 책은 이증이 숙종의 명을 받아 제주안핵겸순무어사로 활동한 5개월(1679. 12~1680. 4)동안 보고 들은 것을 일기체로 엮은 책이다. 어사의 직책, 제주3읍의 지리, 풍속, 물산, 봉수, 무기체계, 호구와 인구, 방어시설, 한라산등산코스, 육로와 해로 등이 기록되어 있다.

중구의 구전설화 (서울)중구문화원

중구문화원에서는 지난 2년동안 중구의 구전설화를 수집정리하여 중구향토사관계자료 제6집으로 「중구의 구전설화」를 발간하였다. 중앙대학교 김선풍교수에 의해 집필된 이 책에는 '남산골 샌님', '남산골 딸깍발이' 등 중구에 전승되어 온 구전설화를 각 동별로 그 지역을 개관하고 지역의 구전설화를 조사 · 정리 · 수록하고 있다.

봉화산 도당굿 (서울)중랑문화원

중랑문화원에서는 '중랑향토사 제2호'로 이지역에 전승되어오는「봉화산도당굿」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조사개관 · 봉화산도당굿의 유래 · 봉화산 도당굿의 제의영역(하효길 집필), 봉화산도당굿의 무가영역 · 춤영역(양중승 집필), 봉화산 도당굿의 음악영역(이용식 집필), 봉화산도당굿의 복식영역(김은정 집필)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산속의 전쟁사와 군사문화 용산문화원

용산문화원에서 시리즈로 발간해 온 '용산향토사료편람Ⅳ」로 「용산속의 전쟁사와 군사문화」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옛정취를 찾아볼수 없는 사라진 땅이라는 '용산'에 왜 군부대와 군사시설들이 이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 해 준다. 숙명여대 한희숙 교수에 의해 집필된 이 책은 1부 한국역사 속의 용산전쟁사. 2부 용산의 군사문화로 짜여있다.

은평구의 불교문화 은평문화원

은평문화원은 '은평향토사료집 '로 「은평구의 불교문화」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3개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장은 은평구의 전통사찰로 삼천사(三千寺), 수국사(守國寺), 진관사(津寬寺), 제2장은 북한산성과 의승군(義僧軍), 제3장은 자료편이다. 오경후 · 주성지 · 차인배 3인의 공동편저로 자료원문과 번역문이 함께 실려있다

하남시 사료집 인물편 하남문화원

하남문화원에서 시리즈로 발행하는 '하남시 사료집: 인물편'의 첫 번째로 민영휘(閔泳徽 1852~1935)에 관한 자료를 김세민 · 신동규편으로 발간하였다. 민영휘는 조선말기의 문신이며, 휘문학교를 설립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탐관오리 · 친일파 등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인물이

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올바른 역사정립의 거울이 된다는 점에서 발간하였다고 한다.

우암산 그 역사의 숨결 청주문화원

청주문화원 향토사료집5 「우암산 그 역사의 숨결」이 차용걸 · 박상일 · 안상경 공저로 발간되었다. 우암산(牛巖山)은 청주의 진산으로 와우산(臥牛山)이라고도 칭한다. 이 책은 우암산의 개관, 우암산의 성터, 우암산의 불교유적, 우암산의 민속 등을 망라하여 조사 · 연구 함으로써 향토사의 귀중한 보고라는 인식을 청주시민들에게 일깨워 주고자하였다.

청원군 전설지 청원문화원

청원문화원에서는 이 고장의 옛이야기들을 한데모아 「청원군전설지」를 임동철 · 연해진 · 안산경 3인의 공동집필로 발간하였다. 이책에는 청원군 전설의 분류와 특징을 비롯하여 군내 각 읍 · 면에 전해오는 103편의 설화가 수록되었는데 지명전설이 43편, 인물전설이 16편, 풍수전설 9편, 유물전설 8편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순창의 마을입석 순창문화원

순창문화원에서는 '마을민속시리즈 '로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송화섭소장의 집필로 「순창의 마을입석」을 발간하였다. 군내의 입석을 수구막이 입석(6개), 진터입석(8개), 돛대입석(1개), 석불입상과 연봉석(3개), 남근석과 남근지세(1개), 여근곡과 여근암(1개), 당산입석(4개), 화개막이 입석(2개)으로 분류하여 사진과 도면을 곁들여 유래와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양평사론 양평문화원

양평문화원의 '향맥(鄕脈)' 시리즈 제12집으로 「양평사론(楊平史論)」을 황규렬 교사의 집필로 발간되었다. 이 책은 양평지역의 역사를 탐구하는데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던 '용진(龍津)나루의 지명쟁탈' 과 같은 양평사에 논점이 될만한 글과 함께 이고장에서 출생 · 성장한 인물들

의 기록을 '조선왕조실록' 의 기사에 의거하여 왕조별 · 시대별로 엮은 책이다.

운곡원천석연구논총 원주문화원

원주문화원에서는 고려말~조선조초 원주와 함께하였고 절의지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원천석(호 운곡 1330~1394)선생의 생애와 사상 · 학문세계를 담은「운곡원천석연구논총(耘谷元天錫硏究論叢)」을 발간하였다. 이 논총은 원천석의 생애와 원주생활, 원천석의 삼교일리론과 도학정신, 원천석의 문학적 위치와 칠봉서원 등 3부로 구성되었으며, 이인재 · 허경진의 공편이다.

운곡시사 원주문화원

원주문화원은 원주의 대표적인 역사적 인물로 손꼽히는 운곡원천석선생의 시문집인 「운고시사(耘谷詩史)」를 이인재 · 허경진 교수의 공역으로 역주발간하였다. 이책은 1,144수의 운곡시사를 현대의 맞춤법과 어휘에 의하여 읽기 쉽게 번역하고, 시 가운데 내재된 운곡선생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각주를 소상히 다는 등 700여쪽의 방대한 시집이다.

임윤지당의 생애와 사상 원주시 · 원주문화원

원주문화원에서는 조선후기 원주가 낳은 위대한 여성철학자(성리학자)인 임윤지당(任允摯堂 1721~1793)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한 논문집을 발간하였다. 이 책에는 제1편 학술세미나의 발표와 토론내용, 제2편에는 임윤지당의 원주 거주지에 관한 연구논문, 제3편에는 임윤지당에 관련된 참고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임윤지당은 우수한 철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여성철학자였다.

사천의 민속신앙 사천문화원

사천문화원은 사라져가는 옛조상의 생활모습을 자연마을별로 답사하고 주민들을 직접만나 조사하여 「사천의 민속신앙」을 발간 하였다. 사천의 민속신앙을 당제(堂祭) · 기우제(祈雨祭) · 비보(裨補) · 풍어제(豊漁祭) · 명당(明堂)등으로 구분하여 시내 읍 · 면별로 총68건의 민속신앙과 관련자료사진을 수록하고 있다.

남원의 문화유산 남원문화원

남원문화원에서는 '남원을 바로알고 선양하자' 는 취지로 많은 문화유산중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소개 · 설명한 「남원의 문화유산」을 발간하였다. 이자료집에는 내고장의 역사, 남원문화의 특성, 남원의 문화유산(누정 · 가옥 · 민간신앙 · 장승 · 서원 · 사우 · 사당 · 천연기년물 · 돌부처 · 사찰 · 산성 · 고분군 · 장인 · 석탑 · 인물 · 고전문학 · 판소리 · 향교), 참고자료등으로 짜였다.

백제의 곰말 몽촌토성 송파문화원

송파문화원에서는 백제문화의 발굴과 학술적 복원이 미미한 상태에서 '한성백제연구총서 제1집' 으로 「백제의 곰말 몽촌토성」을 임영진 교수의 집필로 발간하였다. 이 책은 발굴과정에서본 몽촌토성, 발굴을 통해 드러난 몽촌토성의 면모,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유물들, 몽촌토성을 통해본 백제 한성시대, 몽촌토성의 역사고고학적 성격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 고종시대사 강화사료집 강화문화원

강화문화원에서는 작년「조성왕조실록 강화사료집」을 발간한데 이어 그 후속편으로「조선 고종시대사 강화사료집」을 간행하였다. 조선조말 개국의 여명기에 서구문물의 각축장으로 병인양요 · 신미양요 · 운양호사건 · 강화도조약등 역사의 현장이었던 고종시대(고종원년 1864~융희3년 1909)의 강화지역의 역사와 사건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적 가치가 있는 책이다.

광주 남구 향토자료 모음집 Ⅰ,Ⅱ,Ⅲ 광주남구문화원

광주광역시 남구문화원에서는 '광주남구 향토자료모음집' 을 발간하기로 하고 그 제Ⅰ집으로 「인물과 문헌」(인물 · 문집해제 · 한시문 · 연구논문), 제2집으로 「문화유적」(지정문화재 · 문화유적 · 불교유적 · 누정 · 모정 · 서원사우 · 송암동 주거지), 제3집으로는「민속지」(당산제 · 관혼상제 · 민속놀이 · 무속 · 민요 · 전설과 설화 · 지명)등 3권을 발간하였다.

화성시 문화재 편람 화성문화원

화성문화원에서는 화성시 관내에 소재하는 국가지정문화재(12건), 경기도 지정문화재(22건), 향토유적(11건)등 총45건의 문화재를 소개 · 설명하는 「화성시 문화재 편람」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우리말 설명에 곁들여 영문설명을 첨부하였으며, 사진작가(김기훈)의 실사사진을 전부 원색으로 인쇄하여 '보는 문화재 편람' 으로 손색이 없다.

현풍현향약 달성문화원

달성문화원에서는 채수목 문화원장의 집필로 「현풍현향약(玄風縣鄕約)」을 발간하였다. 현풍향약은 현풍현의 현감이었던 동명(東溟) 김세렴(金世濂)이 예안향약을 본받아 현풍의 실정에 맞도록 제정했던 것이다. 이 책에는 현풍향약과 현풍학규(玄風學規) 그리고 동명 김세렴의 유문(遺文)등을 알기 쉽게 번역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영산강 유역의 중심 나주 나주문화원

나주시문화원에서는 나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영산강 유역의 중심 나주-역사와 문화이

야기」를 발간하였다. 이책에는 나주의 역사를 비롯하여 금성산, 영산강, 인물이야기, 문학의 향기, 민속, 당제, 민요, 전설, 나주의 장인, 특산품, 문화유적답사. 지정문화재 일람표, 나주연표 등에 이르기까지 나주의 모든 것을 알수 있게 정리하였다.

함평의 고전문학 함평문화원

함평문화원은 '함평향토사료 6집'으로 「함평의 고전문학」을 발간하였다. 이현석 편저로 꾸며진 이책은 제1부에서 고대의 문학활동과 유고 및 문집(1900년 이전)으로 시문류 · 가사류 · 일록류(일기) · 유고 및 문집일람, 제2부에서는 현대의 문학활동(1900년 이후)으로 한문학 · 지리와 기행문 · 함평인 저작의 시가고찰 등으로 엮어져 있다.

조선환여승람(정읍) 정읍문화원

정읍문화원에서는 「조선환여승람」 정읍편(井邑編)을 국역 발간하였다. 「조선환여승람」은 1929년에 이병연(李秉延)이 편찬한 지리서로 '동국여지승람'과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그 궤를 같이하는 지리서로서 근대 최후의 이방면의 역작이다. 1914년 전국적인 행정구역 조정으로 고부 · 태인 · 정읍이 하나로 합쳐져 정읍군을 형성한 시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책이다.

대전근대사료집 대전중구문화원

대전중구문화원에서는 '향토자료(11)'로 「대전근대사료집」(大田近代史料集)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1917년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에 의해 발간되었던 '대전발전지(大田發展誌)'를 원문과 번역문을 동시에 수록한 책이다. 책의 내용은 당시의 인구상황 · 식수문제 · 농산물 · 교통 · 금융 · 교육 · 문화등 100년전 대전의 역사를 읽을수 있는 유일한 기록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가평군 금석문집 가평문화원

가평문화원은 가평군 관내의 20건의 금석문을 모아 「가평군 금석문집」을 발간하였다. 이 책에는 이방실 · 가은군 · 선거관 · 이계 · 이정귀 · 이필행 · 이명한 · 이소한 · 남노성 · 이일상 · 이후징 · 이은상 · 이유상 · 이명신 · 이우신 · 이보혁 · 이천보 · 이익보 · 이문회 · 조종암 등 20명의 금석문을 연대별로 배열하여 금석문의 번역문과 원문 · 참고자료등을 자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진안의 금석문 진안문화원

진안문화원에서는 진안군내에 산재해 있는 비석들을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조사 · 선별하고 읍 · 면별 리별 마을별로 가나다순으로 수록한 「진안의 금석문」을 발간하였다. 각 비석은 사진자료와 소재지, 건립연대, 크기, 설명을 곁들이고 비문원문과 번역문을 수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고 있다. 이책에는 모두 168건의 금석문을 수록되어 있다.

부천의 땅이름 이야기 부천문화원

부천문화원은 「부천의 땅이름 이야기」를 '부천 향토사료집 '으로 출판하였다. 이 책은 부천의 땅이름 변천과정을 비롯하여 부천의 역사적 특성, 산 · 골짜기 · 고개이름 · 하천이름 · 마을 · 동(洞) · 들판이름 등을 삼국시대 이전까지로 연결시키면서 부천토박이들의 구술과 고어(古語)의 변천과정까지 논리적으로 추적하였다고 한다.

담양고을 땅 이름 담양문화원

담양문화원에서는 「담양고을 땅 이름」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우리 땅이름이 대개 우리말에 바탕을 두고 정착되어 왔다는 점에 유의하여 오래동안 지명연구에 애써온 배우리씨가 집필하였다. 책의 내용은 담양군의 연혁, 담양군의 옛 땅이름, 담양의 산천, 각 읍 · 면의 내력을 살피고 군내 137개 마을(里)들의 명칭과 그 내력을 설명하고 있다.

북문예문 대구북구문화원

대구북구문화원에서는 이 고장의 문화유산 일부를 역사의 내용과 옛날의 이야기를 첨부하여 「북문예문(北門藝門)」을 발간하였다. 이 책에는 옛날지명 이야기 18건, 옛날이야기 12건, 내고향 문화재 이야기 15건등 45건의 이야기를 컬러사진을 곁들여 이야기체로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사찬 곡성군지 곡성문화원

곡성문화원에서는 1994년에 국역 곡성군지를 발간하였으나 최근에 지역사에 관심을 갖고 지지류(地誌類)를 찾는 사람이 많아져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곡성군지의 증보판인 「사찬 곡성군지(私撰谷城郡誌)」를 발간하였다. 곡성의 연혁 · 위치 · 산천 · 관청 · 관직 · 고적 · 불우(佛宇) · 물산 · 학교 · 호총 · 성씨 · 인물 · 사환(仕宦) · 분묘 등이 수록되어 있다

양주사료총서 2 의정부문화원

의정부문화원에서는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에 나타난 이고장의 모습을 조명하기 위하여 「양주사료총서」를 발간하는데 이번에 그 둘째권으로 연산군~선조조까지의 조선왕조실록 양주관련기사를 발췌하여 발간하였다. 의정부시는 양주군에서 시로 승격한 곳이므로 이 책자는 양주권의 향토사와 양주문화연구에 중요한 사료가 될것으로 보인다.

이천시 호법면 문화유적 · 민속조사 보고서

이 보고서는 강남대학교 학술조사단과 이천시 문화원이 공동으로 이천시 호법면의 문화유적 · 민속자료를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다.「이천시지」발간을 위한 기초조사 작업으로 실시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조사개요 · 역사지리적 환경 · 문화유적 · 구비전승자료 · 민속자료 · 호법면의 문화유적 및 민속자료에 대한 종합적 고찰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천시 모가면 문화유적 · 민속조사보고서

이 보고서는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와 이천시 문화원이 공동으로 이천시 모가면의 문화유적 · 구전자료를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천시지」발간을 위한 기초조사 작업으로 실시된 이보고서는 그동안 2개읍 6개면의 보고서가 발간된데 이은 제9차 보고서에 해당된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앞에서 설명된 호법면의 보고서와 같은 체계이다.

혼의 예술 좌도굿 진도문화원

진도문화원에서는 무형문화재 좌도굿 뜬쇠 조병호(趙炳鎬)저의「혼의 예술 좌도굿(魂의 藝術 左道굿)」을 발간하였다. 진안(鎭安)지방은 호남좌도굿의 발상지로서 한때는 좌도굿의 총본산 역할을 했었으나 6.25이후 쇠퇴하여 그 전통이 기억에서 조차 희미해지는 가운데 고 김봉열옹과 조병호 선생이 이어오고 있다. 이책은 좌도굿의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다.

마포문화유적 마포문화원

마포문화원은 '마포구자료총서 제2집'으로「마포문화유적」을 발간하였다. 이책은 고종황제의 생부(生父) 흥선대원군 이하응과 그의 별장이었던 아소정(我笑亭), 그리고 관리의 녹봉을 저장 관리하던 광흥창(廣興倉)에 관련된 조선왕조실록의 자료들을 모아 꾸몄다. 마포구민의 자부심을 고양시키고, 향토문화의 전통과 가치를 한층 높이기 위해 발간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완도군편(上) 완도문화원

완도문화원에서는 「조성왕조실록 완도군편(上)」을 발간하였다. 이 자료집은 '조성왕조실록' 중에서 태조~중종까지 (1390~1608)의 전라도 전반에 해당되는 일반적

인 사료와 영암군 · 장흥군 · 강진현 · 해남현의 사료중에서 완도와 관련된 자료를 발췌하여 수록한 조선시대의 완도군 역사자료이다. 사료의 빈곤을 아쉬워 하던 완도군민에게 희소식이 될만한 자료집이라 하겠다.

자랑스러운 연기의 문화재 조치원문화원

조치원문화원에서는 「자랑스러운 연기의 문화재」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백제시대를 정점으로 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유산 가운데 국가지정 문화재 7건,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18건, 군지정문화재 41건, 기타 10건 등 총76건의 문화재를 컬러사진과 별도의 해설문을 엮어서 한권의 화보집 형식으로 발간한 것이다.

연기 이야기 조치원문화원

조치원문화원에서는 슬기로운 조상의 역사이야기와 설화 · 전설들을 책으로 엮어 읽히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느낌이 있기를 바라면서 「연기 이야기」를 발간하였다. 이책에는 제1편 연기의 충 · 효 · 열 18이야기, 제2편 구전설화 14이야기, 제3편 연기의 전설 20이야기, 제4편 제례범절 12건 등이 수록되어 있다.

동작역사문화 동작문화원

동작문화원은 동작구개관 · 동지 · 동작의 문화유산 · 동작의 인물들을 소개한 「동작역사문화」를 발간하였다

영동의 재발견 살아있는 문화유산 영동문화원

영동문화원에서는 '문화재순회전시' 의 화보집으로 「영동의 재발견 살아있는 문화유산」을 사진 남기동 · 기획 김기현으로 발간하였다

정 기 간 행 물

의령문화	2002/제10호	의령문화원발행	함안문화	2001/제7호	함안문화원발행
서귀포문화	2001/제5호	서귀포문화원발행	진안문화	2001/제10호	진안문화원발행
기장문화	2001/창간호	기장문화원발행	고흥문화	문예편/제12호	고흥문화원 발행
전남문화	2001/제14호	전라남도지회발행	청원문화	2001/제10호	청원문화원 발행
강북문화	2001/제5호	강북문화원발행	금당문화	2001/창간호	광주남구문화원발행
양주문화	2001/제26호	양주문화원발행	제일강산	2001/제20호	강릉문화원발행
강진문화	2001/제20호	강진문화원발행	증평문화	2001/제5집	증평문화원발행
밀양문화	2001/제2호	밀양문화원발행	임영문화	2001/제25집	강릉문화원발행
시흥문화	2001/제4호	시흥문화원발행	고령문화	2001/제16집	고령문화원발행
강진문화마당	2001년 하반기	강진문화원발행	태봉문화	2001/제15집	철원문화원발행
제주문화	2001/제7호	제주문화원발행	우리고장문화	2001/제18호	아우내문화원발행
廣州文化	2001/제12호	광주문화원발행	영주문화사랑	2001/제2호	영주문화원발행
합천문화	2001/제19호	합천문화원발행	양산문화	2001/제12호	양산문화원발행
문화의 뜰	2001/겨울호	화성문화원발행	하동문화	2001/제20호	하동문화원발행
포천문화	2001/제8호	포천문화원발행	장흥문화	2001/제23호	장흥문화원발행
정읍문화	2001/제10호	정읍문화원발행	파주문화	2001/제15호	파주문화원발행
나성의 맥	향토집/제17집	영월문화원발행	보성문화	2001/제10호	보성문화원발행

노봉문집 권1, 시집 제주문화원

제주문화원에서는 노봉(蘆峰) 김정(金 侹) 목사(牧使)의 시집인 「노봉문집」을 김익수 역으로 출간하였다. 노봉선생은 1735년 4월에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2년여를 재임하다 제주에서 병사한 목민관이었다.

노귤시집 · 화암시집 제주문화원

제주문화원에서는 노귤(老橘) 김협(金浹 1829~1894) 선생과 화암(禾菴) 신홍석(愼鴻錫 1850~1920) 선생의 시집을 김익수 역으로 출간하였다.

고죽집 영암문화원

영암문화원에서는 조선조 중기에 삼당시인(三唐詩人)중의 한 사람이라고 일컬었던 고죽(孤竹) 최경창(崔慶昌 1539~1583)선생의 작품집을 권순열 교수의 8년동안의 번역으로 「고죽집(孤竹集)」을 출간하였다.

국역 한산대첩 한시수상작 선집 통영문화원

통영문화원총서 제7집으로 「국역한산대첩한시수상작선집」이 발간되었다. 이책에는 1969년, 1971년, 1974년도의 한시백일장 수상작품중 각각 100수 씩 300수와 두룡시사회 회원들의 작품 50수가 국역 수록되어 있다.

무안군출신 한시인대표작 선집 무안문화원

무안문화원에서는 '무안문학선집(1)'로 1525년~2000년 까지의 무안출신의 한시인(漢詩人)의 작품중에서 가려뽑아 원문과 번역문을 한데 엮어 작품집을 발간하였다.

한시집 고흥문화원

고흥문화원에서는 그 동안 문화원이 개최했던 한시백일장에 입상한 사람의 작품을 위주로 원문과 번역문을 곁들인 「한시집(漢詩集)」을 발간하였다.

2001동작 주부백일장 및 사진공모전 입상작 모음집

동작문화원에서는 2001동작주부백일장과 사진공모전에 입상한 작품을 모아 작품집을 발간하였다.

효녀심청 글짓기 공모전 수상집 곡성문화원

곡성문화원에서는 '제2회 효녀심청 전국청소년 예술공모전'의 글짓기 부문 「수상집」을 발간하였다. 초등부 · 중등부 · 고등부의 수상작 시 · 산문 · 소설 등을 수록하고 있다.

울진문화	2001/제15호	울진문화원발행
동구문화	2001/제19호	대전동구문화원발행
소성의 향기	2001/제7호	태안문화원발행
백운문화	2001/제18호	양평문화원발행
서울문화	2002/창간호 · 제2호	서울시지회발행
스산의 숨결	2002/2월 · 3월호	서산문화원발행
광주문화소식	2002/4월호	廣州문화원발행
목포문화사랑	2002/3월호(제64호)	목포문화원발행
공주문화소식	2002/1 · 2 · 3월호	공주문화원발행
문화유성	2002/2	유성문화원발행
문화중랑	2002/봄호	중랑문화원발행
송파문화	2002/상반기호	송파문화원발행
인천문화	2002/4(제87호)	인천문화원발행
사상문화	2002/신년호	사상문화원발행
갑천문화	2002/2 · 3 · 4월호	대전서구문화원발행
용산문학	2002/제7호	용산문화원발행
고은향토	2002/창간호	영양문화원발행
담양문화	2002/제10집	담양문화원발행
청해문화	2002/제10호	완도문화원발행
노 령	2002/새봄호(101)	전주문화원발행
수원사랑	2002/3 · 4월호	수원문화원발행
오산문화	2002/제26호	오산문화원발행

지방문화원은 전국에 214개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지회(02-518-1294)
- 종로문화원(02-731-0628)
- 중구문화원(02-775-3001)
- 용산문화원(02-703-0052)
- 성동문화원(02-2290-7714)
- 광진문화원(02-447-9364)
- 동대문문화원(02-2241-9300)
- 중랑문화원(02-492-0066~7)
- 성북문화원(02-765-1611)
- 강북문화원(02-984-8086~7)
- 도봉문화원(02-905-4026)
- 노원문화원(02-938-1244)
- 은평문화원(02-383-9300~2)
- 마포문화원(02-312-1100)
- 양천문화원(02-651-5300)
- 강서문화원(02-3661-8233)
- 동작문화원(02-822-8500)
- 관악문화원(02-885-5975)
- 강남문화원(02-518-1295)
- 송파문화원(02-414-0354)
- 강동문화원(02-476-6681)
- 금천문화원(02-896-8553)
- 영등포문화원(02-846-0155)
- 서대문문화원(02-3217-1592~3)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지회(051-555-1441)
- 동래문화원(051-555-1441)
- 북구낙동문화원(051-301-2710)
- 강서문화원(051-972-6369)
- 연제문화원(051-759-3113)
- 기장문화원(051-724-2224)
- 사상문화원(051-310-4894)
- 금정문화원(051-581-9071~2)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지회(053-744-7950)
- 중구문화원(053-255-5123)
- 달성문화원(053-611-0010)
- 남구문화원(053-652-4450)
- 북구문화원(053-326-2555)
- 서구문화원(053-563-9066)
- 달서구문화원(053-553-4800)
- 동구팔공문화원(053-984-8774)

인천광역시
- 인천문화원(032-761-2778)
- 부평문화원(032-505-9001)
- 강화문화원(032-932-0011)
- 연수문화원(032-821-6229)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지회(062-527-7701)
- 동구문화원(062-225-5815)
- 서구문화원(062-652-4148)
- 남구문화원(062-361-7256)
- 북구문화원(062-527-7701)
- 광산문화원(062-941-3377)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지회(042-627-7517)
- 동구문화원(042-274-2135)
- 중구문화원(042-256-3684)
- 서구문화원(042-488-5474)
- 유성문화원(042-862-6969)
- 대덕문화원(042-627-7517)

울산광역시
- 울산동구문화원(052-234-2202)
- 울산남구문화원(052-266-3786~7)
- 울주문화원(052-279-0527)
- 울산중구문화원(052-244-2007~8)

경기도
- 경기도지회(031-239-1020)
- 수원문화원(031-244-2161~3)
- 성남문화원(031-781-1020)
- 의정부문화원(031-872-5678)
- 안양문화원(031-449-4451)
- 부천문화원(031-651-3739)
- 광명문화원(031-618-5800)
- 평택문화원(031-655-2184)
- 동두천문화원(031-865-2923)
- 안산문화원(031-480-9823~5)
- 고양문화원(031-963-0600)
- 과천문화원(031-504-6513)
- 구리문화원(031-557-6383)
- 남양주문화원(031-592-0667)
- 오산문화원(031-375-7755)
- 시흥문화원(031-315-6465)
- 군포문화원(031-397-0195)
- 하남문화원(031-795-1020)
- 용인문화원(031-335-2033)
- 파주문화원(031-941-2425)
- 이천문화원(031-635-2316)
- 안성문화원(031-673-2625)
- 김포문화원(031-984-6550)
- 양주문화원(031-840-6467)
- 여주문화원(031-883-3450)
- 화성문화원(031-353-6330)
- 광주문화원(031-764-0686)
- 연천문화원(031-834-2350)
- 포천문화원(031-532-5055)
- 가평문화원(031-582-2016)
- 양평문화원(031-771-3866)
- 의왕문화원(031-456-4994)

강원도
- 강원도지회(033-255-5105)
- 춘천문화원(033-254-5105)
- 원주문화원(033-764-3794)
- 강릉문화원(033-648-3014)
- 동해문화원(033-531-3298)
- 태백문화원(033-553-3161)
- 속초문화원(033-632-1231)
- 삼척문화원(033-573-2882)
- 홍천문화원(033-434-2080)
- 횡성문화원(033-343-2271)
- 영월문화원(033-373-3434)
- 평창문화원(033-332-3546)
- 정선문화원(033-563-5471)
- 철원문화원(033-452-6235)
- 화천문화원(033-442-2607)
- 양구문화원(033-481-2681)
- 인제문화원(033-461-6678)
- 고성군문화원(033-681-2922)
- 양양문화원(033-461-6678)

충청북도
- 충청북도지회(043-733-5588)
- 청주문화원(043-256-3624)
- 충주문화원(043-847-3906)

'지역문화' 가 궁금하면 노크하십시오

- 제천문화원(043-646-3646)
- 청원문화원(043-257-2858)
- 보은문화원(043-544-2314)
- 옥천문화원(043-733-5588)
- 영동문화원(043-742-2215)
- 진천문화원(043-533-2744)
- 괴산문화원(043-832-3588)
- 음성문화원(043-872-4084)
- 단양문화원(043-423-0701)
- 증평문화원(043-836-3400)

충청남도

- 충청남도지회(041-667-0417)
- 천안문화원(041-575-3004)
- 공주문화원(041-852-9005)
- 서산문화원(041-669-5050)
- 논산문화원(041-732-2395)
- 금산문화원(041-754-2724)
- 부여문화원(041-835-3318)
- 서천문화원(041-953-0123)
- 청양문화원(041-943-4774)
- 홍성문화원(041-632-3613)
- 예산문화원(041-335-2441)
- 태안문화원(041-674-2192)
- 당진문화원(041-354-2367)
- 대천문화원(041-934-3061)
- 온양문화원(041-545-2222)
- 조치원문화원(041-865-2411)
- 아우내문화원(041-564-1022)
- 성환문화원(041-581-2101)

전라북도

- 전라북도지회(063-287-5509)
- 전주문화원(063-288-7500)
- 군산문화원(063-451-2138)
- 익산문화원(063-835-0120)
- 정읍문화원(063-532-8723)
- 남원문화원(063-633-1582)
- 김제문화원(063-547-4659)
- 완주문화원(063-263-4335)
- 진안문화원(063-433-1674)
- 무주문화원(063-324-1300)
- 장수문화원(063-351-5349)
- 임실문화원(063-642-2211)
- 순창문화원(063-653-2069)
- 고창문화원(063-564-2340)
- 부안문화원(063-583-2101)

전라남도

- 전라남도지회(062-223-0019)
- 목포문화원(061-244-0044)
- 여수시문화원(061-682-5388)
- 순천문화원(061-723-4563)
- 나주문화원(061-332-5115)
- 광양문화원(061-763-0496)
- 담양문화원(061-383-6066)
- 곡성문화원(061-362-0890)
- 구례문화원(061-782-8802)
- 고흥문화원(061-835-5245)
- 보성문화원(061-852-2629)
- 화순문화원(061-374-3333)
- 장흥문화원(061-863-6362)
- 강진문화원(061-433-7373)
- 해남문화원(061-533-5345)
- 영암문화원(061-473-2632)
- 무안문화원(061-452-8648)
- 함평문화원(061-322-0505)
- 영광문화원(061-351-3255)
- 장성문화원(061-392-1796)
- 완도문화원(061-552-4834)
- 진도문화원(061-542-1108)
- 신안문화원(061-242-8131)

경상북도

- 경상북도지회(054-556-5234)
- 포항문화원(054-242-4711)
- 경주문화원(054-743-7182)
- 김천문화원(054-434-4336)
- 안동문화원(054-859-0825)
- 구미문화원(054-482-5422)
- 영주문화원(054-631-3300)
- 영천문화원(054-334-3030)
- 상주문화원(054-535-2339)
- 문경문화원(054-555-2571)
- 경산문화원(054-815-0593)
- 군위문화원(054-383-2003)
- 의성문화원(054-834-5048)
- 청송문화원(054-873-2527)
- 영양문화원(054-682-1378)
- 영덕문화원(054-734-2456)
- 청도문화원(054-371-2514)
- 고령문화원(054-954-2347)
- 성주문화원(054-933-0700~1)
- 칠곡문화원(054-974-0450)
- 예천문화원(054-654-3833)
- 봉화문화원(054-673-2350)
- 울진문화원(054-783-2270)
- 울릉문화원(054-791-0245)

경상남도

- 경상남도지회(055-2293-1186)
- 창원문화원(055-284-8870)
- 마산문화원(055-243-5222)
- 진주문화원(055-746-5001)
- 진해문화원(055-544-8880)
- 통영문화원(055-645-7755)
- 사천문화원(055-833-3163)
- 김해문화원(055-336-2646)
- 밀양문화원(055-352-3010)
- 거제문화원(055-681-2603)
- 양산문화원(055-386-0890)
- 의령문화원(055-573-2034)
- 함안문화원(055-583-2290)
- 창녕문화원(055-533-3777)
- 고성문화원(055-672-3805)
- 남해문화원(055-864-6969)
- 하동문화원(055-884-3929)
- 산청문화원(055-973-0977)
- 함양문화원(055-963-2646)
- 거창문화원(055-942-6166)
- 합천문화원(055-931-2401)

제주도

- 제주도지회(064-722-0203)
- 제주문화원(064-722-0203)
- 서귀포문화원(064-733-3789)

월간 '우리문화'
구독 · 광고문의
T.(02)704-2311

알림

본회 편집실에는 전국문화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사료나 향토지를 비치하고 있어 수시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 史料 및 情報資料 提供

전국 시 · 군지, 향토사 자료등 각종자료 3천여권이 비치되어 있는 본회에 訪問하면 됩니다.

⊙ (향토지) 각종 圖書 復刊相談

지방에서 발행할 각종 책자의 편집 및 출간을 위해 자료, 견본 등을 제공하고 편간에 대한 자세한 상담도 해드립니다.

⊙ 海外 刊行物 交流

해외에서 발행되는 여러 간행물을 통해 우리의 文化遺産에 대한 올바른 評價와 자료의 수집을 위해 "海外刊行物交流事業"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련자 여러분이 소장하고 있는 서적이나 관련자료 또는 정보의 교류추진을 알선해 드립니다.

편집후기

벌써 5월이군요. 간혹 에어콘 생각이 납니다.예전 같으면 5월은 대학가 최루가스 냄새로 알게되는 계절이었습니다. 일년 중 5월은 '오! 월' 이라 부를만큼 피끓는 계절이었습니다. 데모를 하다 수배자 명단에 올라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젊은이들이 그믐달 아래서 밤이슬을 맞기도 하던 계절이지요.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 이라고 점잖게 부릅니다. 어린이날이 3일 지나 바로 어버이날이 있는 걸 보면 꾸어준 돈 되돌려 받듯해 웃기기도 하지만 어쨌든 서로가 한번 쯤 옆으로 되돌아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어 좋습니다. 신록이 우거지는 계절, 부모자녀사이가 사랑으로 돈독해야 하듯 사회와 민족도 갈등과 반목을 끊고 사랑과 화합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번호에는 북한 금강산을 다녀온 사무국장님들의 기행문을 분량에 구애받지 않고 특집으로 꾸몄습니다. 어느 사무국장님의 기행문에는 아버님께서 살아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쓰여있었습니다. "사내대장부로 태어났으면 금강산 구경은 꼭 한번 하고 죽어야 하는데 나는 다행히 그 꿈을 이루었다만 가로막힌 휴전선 때문에 너는 금강산 구경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 사무국장님 금강산에 섰을 때 금강산에 대한 그리움은 씻기울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못 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눈물로 맺혔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5월. 지방문화원 사무국장님들의 금강산 탐방에 이어 간사와 원장님들도 북한행 보따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가 무엇인지 북한에서 많이 많이 담아오시기 바랍니다. (旼)

정기구독 안내

〈우리문화〉는 5천여년 간 숨쉬어 온 民族文化를 아름답게 꽃 피워보고자 하는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 自矜心을 기르고자 합니다. 이 책은 특히 海外에서 한민족의 自矜心을 갖고 꿋꿋이 살아가는 분들에게 권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구독료**(권당 3,000원)
국내 : 1년 정기구독료 36,000원 (우송료 본회 부담) 6개월 구독료 18,000원
海外 : 1년 정기구독료 36,000+우송료 6개월 구독료 18,000+우송료 (※문화원 회원은 1권당 2,000원)

● **송금방법**
송금은 농협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십시오. • 온라인번호 농협 032-01-013084 문화원연합회

● **보낼곳**
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국문화원연합회 우리문화 편집실